금주의 법구-〈아함경〉
의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분노를 일으키는 근본이며
사이를 떼어놓는 독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0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6월 6일)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학제 개편 불가피" VS "전통교육으로 내실을"

조계종 교육원, 12일 승가교육 개선 방안 종책 세미나

출가자 감소, 교육환경에 영향
교육기관 학인 정원 미달 속출
통합적 종단 도제 교육 어려움

14개 승가대학 6개 축소안 등
교육원 학제 개편 방안 제시

교육기관 입장차 명확히 확인
"전통교육 중요" 주장들 다수
"기관 통합…교육 일원화" 의견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재 한국불교는 '출가 절벽 시대'를 맞았다. 지난해까지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1년 출가자 수 150명 선이 무너져 올해에는 110명 선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같은 출가자 감소는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서 학인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7월 12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조계종 승가교육 개선방안'을 주제로 교육종책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승가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다.

학년별 정원 채운 교육기관 2곳뿐

이날 세미나에서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현재 승가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계종 교육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종단 승가교육 학제 시스템 변화의 당위성은 분명하다. 당장, 기본교육기관들이 학인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기본교육기관 14개 사찰 승가대학 중 종법이 제시하고 있는 학년별 정원 10인을 충족하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총 학인 정원 40인을 채운 교육기관은 4곳이었다. 중앙승가대의 경우 학년별 입학정원인 120명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기본교육기관임에도 이질적 교육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사찰승가대학은 교과목 · 교육시간 · 교수 확보 · 예산 등 교육환경이 취약하며, 중앙승가대는 학년 중심의 구조가 사미(니) 교육에 적합지 않음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동국대의 경우 세속적 교육환경으로 출가자로서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급격한 교육환경에 변화에 따른 승가교육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출가자가 100명 선으로 줄어들면 교육기관 학인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계획적 학인 수급, 통일적인 교과과정 운영, 종단 차원의 계획적 인력 양성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기본교육기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줄이고, 합치고… 교육원 제시 개선안

이날 세미나에서 조계종 교육원은 행자교육 · 기본교육 · 전법교화활동에 거쳐 개선방안을 내놨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안들은 기본교육 부분에 집중됐다. 교육원은 기본교육 기관 조정안으로 △사찰승가대학 수를 14곳에서 6곳으로 조정(사미 4 · 사미니 2) △중앙승가대만 기본교육기관으로 운영 △동국대 · 중앙승가대 통합해 '동국대 중앙승가대학 캠퍼스'로 전환 △기본선원을 선 지도자 운영을 위한 2년제 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수학기관 조정 방안으로는 △기본교육과정 3년으로 단축 △기본 · 전문교육과정 '3+2' 년제로 통합해 의무교육과정으로 운영 △기본 · 전문교육과정 '2+2' 년제로 통합해 의무교육과정으로 운영 등을 내놨다.

교육기관마다 상반되는 입장들

하지만 이 같은 교육원의 개선안에 각 기본교육기관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당장 적정 수 조정안에 영향을 받는 교구본사, 사찰승가대학, 기본선원 등에 집중됐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교육원의 종책이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경과 율을 수학하며 자신의 수행 목표를 정하는 것이 기본교육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차라리 전통 강원 교육을 부활해 기본 교육을 받고 동국대나 중앙승가대는 전문적인 학문을 배우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화사 승가대학장 양관 스님은 "교육원이 너무 수치에 매몰됐다"면서 "통일적 교육은 필요하지만 너무 획일화되어도 안된다. 기관 통합은 전통적 승가 모습을 상실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도 기본교육기관 축소와 수학기간 조정에 우려를 표하며 "사찰승가대학의 강점은 삶의 지혜를 몸소 익히며 수행공동체 생활 속에 육화합(六和合)의 이론이 직결되는 삶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승가교육의 시스템적 혁신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앙종회의원 원명 스님은 "사찰승가대학이나 동국대, 기본선원 등을 기본교육기관서 제외하고 통일된 공간에서 양질의 통합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원은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승가교육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현재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며 "추후 관련 위원회 구성,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종회를 통한 제도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禪불교 세계화 전진기지 '첫 삽'

에서 첫 삽을 뜨는 참가 대중의 모습이다.

한국불교의 전통수행법인 간화선을 전세계에 알릴 '문경세계명상마을' 기공식이 7월 12일 문경 봉암사 인근 현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한 1000여 불자 대중이 참여해 한국불교 세계화와 선수행의 현대화를 기원했다. 사진은 기공식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노덕현 기자

"텀블러 사용으로 불살생계 실천해요"

불교환경연대, 일회용품 소비감소 위한 캠페인 전개

"내가 마신 음료 한 잔이 고래, 거북이 등 바다 생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과 플라스틱대신 집에 있는 텀블러를 사용한다면 제1계율인 불살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분리수거 처리에 대한 이슈가 또다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7월 9일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을 독려하는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불교환경연대는 정기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들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캠페인 역시 활동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7월 8일 고양 금륜사는 불교환경연대와 '1회용품 쓰지 않는 녹색사찰' 협약을 맺고, 텀블러 사용 캠페인에 동참 의지를 다졌다.

캠페인은 7월 9일~8월 30일 약 2달 동안 집중 시행되며, 모음과 나눔으로 나뉜다. 먼저 모음은 기부할 텀블러를 불교환경연대나 협력사찰(서울 조계사 · 봉은사, 고양 금륜사)로 가져간 뒤,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된다. 나눔은 환경보전 기금으로 쓰일 기부금을 원하는 만큼 내고 텀블러를 골라가는 방식이다. 한편, 불교환경연대 측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본부 및 협력사찰서 텀블러 나눔을 실시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지원 수습기자

사고

새 연재를 알립니다

본지는 하반기부터 새로운 연재 두 편을 게재합니다. 일본 불교 성지 시코쿠 순례를 4번 완주한 젊은 불자 작가의 순례기를 담은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환경적 이슈들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담은 '불교와 환경'입니다. 새로운 연재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시코쿠 순례는 일본불교의 대표 성지순례 코스입니다. 코보대사 쿠카이(弘法大師 空海)가 수행한 자리에 세워진 절들을 일주하는 순례가 바로 '시코쿠 88개소(四國八十八カ所)' 입니다. 약 1200km의 코스에 모두 1번부터 88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사찰을 순례하며, 순례자들은 '동행이인'의 정진을 합니다.

4번 완주한 20대 젊은 불자 작가는 "'시코쿠병' 혹은 '버릇'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코쿠 순례에는 엄청난 매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시코쿠 순례길을 젊은 불자의 눈으로 소개합니다.

불교와 환경



살충제 계란 파동, 라돈 침대 사태, 미세먼지 등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불교와 환경〉에서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합니다.

환경 운동계의 불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각 연재마다 사회 이슈가 되는 환경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불자들의 생명살림 행동과제를 제시합니다. 이제 미래세대를 위해 생명살림의 가치관을 펼칠 때입니다.



불광사 내홍 격화… 법적 다툼 불가피

대각회 중재안에도 '창건주 권한' 두고 대립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최근 창건주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불광사에 대해 상위재단인 대각회가 정상화대책위를 통한 원만 해결을 추진했지만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대각회도 대책위 무산 시 법적 해결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만큼 내홍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홍 스님은 7월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각회 정관에 따라 법적 권한을 재확인 받았다. 이 같은 뜻을 받들어 불광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사현정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 화합이 문제 해결의 제1원칙이지만 정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홍 스님은 문도회에 대해 "현재와 같이 우유부단하고 탐욕만을 고집한다면 누가 문도회를 믿고 따르겠는가"라며 "전법과 제2불광운동에 매진하겠다. 매서운 겨울을 겪고 있지만 정법에 대한 뜨거운 원력으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불광사 신도임원회의인 불광사 명등 일동은 같은 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불광법회 신도들은 정상화대책위로 책임을 미룬 대각회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 대책위 참석 거부와 함께 즉각적인 비대위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광법회 불사들의 보시금 모금을 중단하고, 지홍 스님에 대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 후속조치를 단행하겠다. 또 불광법회 감사로 종무행정과 회계 전반의 감사 요청과 불광법회 포교사를 중심으로 포교원장 사퇴운동, 조계종단 3원장 완전 퇴진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도들 "고발, 소송 등 불사"
지홍 스님 "창건주권한 확인"
정상화대책위는 사실상 무산
사회법 해석 따라 결론 날 듯

이 같은 입장 속에 개최 시기와 활동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각회 정상화대책위는 12일까지 지홍 스님 측과 불광문도회, 신도회 측에 참가여부를 묻는 통보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대각회 이사회(이사장 혜총)는 앞서 10일 목동 법안정사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광덕 스님 사제인 흥교 스님을 위원장으로, 지홍 스님 측 1인과 문도회 측 1인, 신도회 측 1인 및 대각회 감사 월암 · 일광 스님을 위원으로 불광사 정상화대책위를 구성키로 한 바 있다.

핵심 쟁점사항 2가지는

정상화대책위가 무산되면 불광사 사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에서 다툼이 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불광사 주지추천권을 갖는 창건주 권한 문제다. 대각회 이사회에서 광덕문도회와 신도회 측은 '창건주 승계의 당위성' 이란 배포자료를 통해 "1999년 2월 광덕 스님 입적 후 49재서 열린 문도회의서 지정 스님을 임기 10년으로 정하여 창건주 지위를 승계 받게 했다. 5년 후 지정 스님 사임 당시 2004년 2월 문도회의서 지홍 스님을 임기 10년으로 정해 창건주 지위를 승계 받게 했다. 2014년 지홍 스님 후임을 선출하려 했으나 지홍 스님의 비협조로 선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각회가 소속된 조계종의 사찰법 상에는 창건주 권한은 창건주에서 승계되고, 창건주 권한 승계 전 창건주 사망 시에 도제 및 사형사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수결로 승계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각회 이사회는 불광사 창건주 권한에 대해 "대각회 정관상 창건주 권한은 창건주에서 창건주로 이양된다. 정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지홍 스님의)창건주 권한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한 상태다.

또 다른 쟁점은 지홍 스님의 불광사 유치원 임금 수령에 대한 법적해석 여부다. 불광사 명등 소속 51명은 7월 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지홍 스님이 불광사가 운영하는 유치원 이사장 지위로 상근자로 등재, 매월 325~360만원의 급여를 차명계좌로 부정 수령했다고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3년 넘게 약 1억 3069만원을 횡령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홍 스님 측은 "차명계좌는 없었으며 급여를 받았지만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법적 절차를 제기한 만큼 법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질 것으로 더 이상 음해와 비방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설조 스님 찾아간 설정 스님… '입장 차 분명'

7월 10일, 단식 21일째 만나 5분가량 대화
시민연대-조계종 논평, 입장문 통해 공방

설조 스님의 단식 21일째인 7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단식장을 찾아가 설조 스님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6시 10분경 설정 스님은 호법부장 진우 스님 등과 함께 단식장에서 5분가량 설조 스님과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설조 스님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서 "종단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자"고 말했으나 설조 스님은 설정 스님의 퇴진에 방점을 찍어 대화가 길어지지 못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88세 노스님이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한 21일째야 총무원장이 찾아왔다면 분명한 답을 갖고 왔어야 한다"며 "총무원장이 한두 명 바뀐다고 종단이 바뀌겠냐고 했다는 것은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종단에 도덕이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는 노스님의 간절한 호소를 희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또한 설정 스님에 대해 "자식문제가 발생한지 19년 동안 유전자 검사로 결백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자식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면서 "설조 스님의 비원은 진짜 비구 승려가 종단의 공적 소임을 맡아야 한다는 것 단 한 가지다. 더 이상 시간을 끌거나 얼토당토 않는 변명이나 해명에 급급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의 이 같은 논평에 조계종도 즉각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대변인 일감 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설조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물러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사진 오른쪽)이 단식 21일째인 설조 스님을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진 못했다.

조계종은 "승가공동체 내부에서 불교적 방식을 통한 문제해결을 고민하고 제시할 때 비로소 설조 스님 단식이 대중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조 스님의 단식 또한 과거의 잘못된 문제해결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권을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된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이어 종정 진제 스님의 교시를 받들어 구성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 활동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며 "종단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설조 스님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시어 하루속히 단식을 중단하고 종단 혁신을 위한 길에 함께할 수 있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6바라밀 깨달음 향한 보살의 실천 덕목

6바라밀(波羅蜜)은 대승불교의 보살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6가지 실천 덕목입니다.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반야(般若, 지혜) 바라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일러주신 열반에 이르는 길 8정도는 계정혜 삼학입니다. 대승불교의 6바라밀도 삼학의 구조인데, 계학에 이타적(利他的) 덕목인 보시와 인욕을 추가했습니다.

자기 완성을 위한 출가 중심의 8정도 수행에 대사회적인 보시와 인욕을 부각시켜 재가자를 포함한 보살의 이타적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살의 수행은 중생계에 회향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이 곧 중생을 교화하는 수행이고, 중생을 교화하는 수행이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이어야 합니다. 보살의 이러한 수행을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고 합니다.

상구보리에서 이룬 선득지(先得智, 근본지)가 실천으로 나타나 하화중생할 때 후득지(後得智)가 드러납니다. 후득지 없는 선득지는 아상만 키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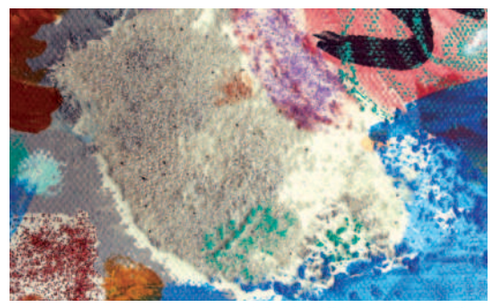
산승의 선지식이며 수행의 거울인 복지현장은 후득지 증득을 위한 더없는 도량입니다. 중생을 이익되고 복되게 하면서 자기도 이로운 자리이타(自利利他)의 후득지 성취가 6바라밀 수행의 종착지입니다.

*보시바라밀: 자기 것을 조건없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보시는 무주상 자비행이며 깨달음에 이르는 첫걸음' 이라고 이 연재를 시작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자비심을 일으키는 수행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주는 물건이 청정해야 합니다.

지계바라밀: 상대방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인이 지켜야 할 기본 5계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가 있고,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의 구족계가 있습니다.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면 계를 지킨다는 상이 없습니다.

인욕바라밀: 비방하는 상대를 헤아리며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분노없는 마음은 부처님 마음입니다. 칭찬에도 들뜨지 맙시다.

정진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을 쉼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면서 '방일하지 말라' 고 당부하셨습니다.


상구보리하화중생 그림 · 조향숙

8정도에 '보시 · 인욕' 추가
대승의 이타적 특징 부각
지혜바라밀은 대자대비

선정바라밀: 정진 바라밀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요함이며 삼매입니다.

반야바라밀: 청정심으로 보는 실상입니다. 지혜의 완성인 반야바라밀에서 자리이타가 나오고 대자대비가 나옵니다.

*지금 대승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불자들은 생활 속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보살이 됩시다. 6바라밀 수행은 보살행이며 중생복지입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낸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 받아야 하는지 수보리의 질문에 자상하게 일러주십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할 때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나침반인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가르침에 따라 성불로 가는 보살의 길을 닦읍시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2018년 백중기간 5% 특별할인(8월25일까지)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회계 감사보고 결과
지급 여력 비율(100% 이상) ·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 업체 공개

BTN 불국토 상조는
불자님들을 위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입니다



상담 및 가입문의 1577-7675

불교의 전통 그대로
• 입관시 스님의 시다림
• 제단에 불교식장엄번 설치
• 불경수의 제공
• 지장보살상 위패 제공

불교TV의 안전성으로
• 불교TV자회사 (주)불국토에서 운영
• 해약시 환급율에 따른 환불(만기 1년 후 100% 환급)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서울-2001 제68호)
• 선불식 할부금 예치기관(국민은행)

거품없는 가격으로
• 매월 3만3천원의 합리적 가격
• 물가 상승시에도 추가부담 없음
• 부부형 가입시 할인혜택
• 묘지/납골당 저렴하게 이용

전국어디서나 편리하게
• 전화 한통화로 임종에서 장지까지 원스톱서비스
• 전문장례지도사 24시간 대기
• 회원권 누구에게나 양도 가능(단 부부형 제외)
• 전국 어디에서도 서비스 가능(단 도서지역 제외)

BTN 불국토 상조
• 당사는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 (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 고객 환급 의무액 10,286,288,045원, 상조 관련 자산 15,736,255,734원입니다. • 대표이사 : 구본일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 홈페이지 : ww.btnlife.co.kr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서울-2011-제68호

삼국시대부터 조선전기 화승·불모 '총망라'

최선일 위원, 〈불교장인 인명사전 삼국~조선 전기〉 발간

조선 후기 인명사전 이후 8년만
1400여 불교 장인 스님 정리해
불교미술사 연구 중요 기초자료
"작가 중심 연구가 필요한 시점"
근대편 집필 준비… 3년 뒤 회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에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불상, 불화, 전각들이 많다. 하지만, 이를 조성한 화승이나 조각승들이 누구인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상량문이나 화기, 복장물들을 통한 단편적 정보만이 존재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조성 작가를 전문적으로 발굴하려는 학술 연구가 미진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최근 내놓은 〈한국불교장인 인명사전-삼국시대~조선 전기〉는 주목할 만 하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수 많은 불교문화재의 작가들을 조명해 놓고 있어서다.

〈한국불교장인 인명사전-삼국시대~조선 전기〉는 1427명의 화승·조각승·각수·수철장·주종장·와장 등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어느 작품에 참여했는지도 기록했다. 사전의 뒷부분에는 관련 작품의 도판과 참고문헌까지 적어 다른 연구자들이 참조할 수 있게 했다.

사실 최 위원의 이런 작업은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후기 불교장인 인명사전〉이란 이름으로 불교조소·회화·공예와 전적·건축과 석조미술편을 잇달아 발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다룬 불교 장인만 6227명이다.

이번 사전 작업은 5번째로, 나오기 까지 8년여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자료 취합과 정리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임진왜란 이후 전소된 사찰들을 복원하느라 불사가 많았고 시기가 가까워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던 조선 후기와 달리 삼국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되도록 많은 사료들을 접해 장인 스님들을 정리하려 했다"면서 "그러다보니 욕심이 생겼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술회했다.



약 10년동안 정리한 불교장인 수만 7600여 명. 이렇게 지난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 위원은 "인간 중심의 미술사를 하고 싶어서"라고 질문에 즉각 화답했다.

그는 "내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양식사 위주의 연구가 주류였지 작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서 "은사인 안귀숙 선생님의 화승 의겸과 주종장 사인 관련 논문을 읽으며 불교조각에서도 작가를 찾을 수 있는 판단이 들었고, 조각승 색난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문화재 지정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찾으며 많은 장인들의 단편활동을 밝혀내고 이를 모아 인명사전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최 위원의 〈한국불교장인 인명사전〉 시리즈는 한국불교미술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성과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추천사를 통해 "문헌자료와 작품 이미지를 통해 탐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교미술 장인들의 생애를 드러내고 밝혔다"면서 "풍부한 미술사담론, 그리고 미술사연구 분야를 보다 두텁게 만들어준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 위원은 인명사전 근대편을 준비 중에 있다. 총 2권으로 발간될 예정인 근대편은 집필에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최 위원은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은 무수히 많은 장인들의 공덕으로 불교문화재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우리 문화재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인명사전을 통해 잊혀진 장인을 한 명이라도 밝혀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설정 스님, "쌍용차 사태 해결, 함께 노력"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7월 1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이하 쌍용차지부) 대한문 분향소를 방문, 조합원들을 위로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 국장스님들과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글=김지원 수습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33관음성지순례, 10년간 50명 완주 '눈길'

일본인 호시나 씨, 50번째로 순례 마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08년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한 한국전통사찰순례(33관음성지순례)의 완주자가 50명을 돌파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7월 9일 서울 견지동 사업단 3층에서 올해 7번째로 관음성지순례를 마친 호시나 토시히로(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소장) 씨에게 완료증서를 수여했다. 호시나 씨는 여행가이드북에서 관음성지순례에 대한 소개를 접하면서 관심을 갖게 돼 지난해부터 딸과 순례에 나섰다.

호시나 씨는 "일본에도 절은 있지만 한국과 문화가 다르다. 한국을 잘 알고 싶어 관음성지순례를 하게 됐다"면서 "가장 인상 깊은 사찰은 도심 속 조계사다. 일본사찰은 묘지 개념이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의 한국사찰을 볼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호시나 씨는 이외에도 수려한 풍경의 내소사에서 접한 고즈넉한 분위기가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얼마 전 한국산사 7곳이 유네스코로 지정되는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다. 호시나 씨가 다녀온 사찰 중에도 해당 사찰이 있다"며 "한국 전통문화를 간직한 사찰을 일본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음성지순례 사업은 한국의 전통사찰 중 관음사상에 기초한 33곳을 선정해 국내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8년 시작해 올해까지 총 50명의 내외국인들이 순례 완료 증서를 받았다. 윤호섭 기자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오른쪽)이 관음성지순례를 마친 호시나 씨에게 수료증을 수여한 뒤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

월정사 오대산 명상마을 7월 28일 개원

월정사 오대산 자연명상마을(Odaesan Meditation Village)이 7월 28일 오후 1시 개원한다. 자연명상마을 이름은 영어 약자를 축약한 '옴뷔(OMV)'로 정해졌다.

월정사 측은 "2014년부터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성 어린 솜씨로 공간을 빚어내 탄생한 자연명상마을은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힐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밝혔다.

자연명상마을에 위치한 조정래 집칠촌에서 작가의 문학강의가 이뤄지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선문답 강의도 진행된다.

윤호섭 기자

"세계유산 등재 계기로 산사 유·무형 가치 인식 확대돼야"



세계유산 산사, 보존 방향을 듣다
조계종 문화부장 종민 스님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하 산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약 4년 동안 준비해왔는데, 회의할 때마다 108배를 하는 마음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재 확정될 당시 위원장이 산사가 '1080번째로 등재됐다'고 하며 의사봉을 쳤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감격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전문위원들이 나중에 이야기하더군요.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산사가 잘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3000배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1080번째 세계유산 등재 의미
"108배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와"
종단 중심으로 통합관리단 구성
수행 보존·변화 추진

조계종 문화부장 종민 스님〈사진〉은 7월 9일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머리를 풀며 등재 순간을 술회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일부 등재 권고와 이후 정오표·외교지지협력문서 작성, 현장에서의 협상 등을 거쳐 21개 이사국의 7개 사찰 모두 등재 지지를 이끌어 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드라마 같았다. 조계종과 등재추진위원회는 그 드라마의 주역이었다. 특히 등재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정오표와 외교지지협력문서는 이사국들을 설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정오표와 외교 자료가 일괄 등재에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정오표와 지지자료가 우리를 설득시켰다'는 각국 대표단의 지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등재의 기쁨도 순간이다. 이제 더 중요한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등재보고서에 기술한 대로 산사 통합관리단(가칭) 구성을 통해 7개 산사의 통합적 보존·관리 방안을 내놔야 하는 것이다.

종민 스님의 기조는 단호했다. 유네스코가 산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이유는 산사가 '유·무형 문화가 모두 공존하는 살아있는 유산'임을 인정한 것이기에 이를 조화롭게 보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등재는 산사의 무형적 가치, 특히 스님들의 수행·교육·의례와 신도들의 신행까지 모두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점 단위가 아닌 면 단위로 문화유산을 인식한 것이죠. 한국의 문화재 인식 역시 단순히 단일 문화재가 아닌 구성요소를 함께 보존 관리하는 방안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산사와 같이 '살아있는 유산'은 더욱 면 단위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또한 종민 스님은 향후 구성될 산사통합관리단은 종단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세간에 제기했던 '박제화' 등의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종단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합관리단은 홍보나 관광객 교육부터 사찰 보존·관리, 연구 등이 이뤄지는 기구입니다. 이는 각 사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연속유산이기 때문에 한 곳만 잘한다고 유산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어서 모두 잘 보존돼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단이 필요합니다. 등재신청서에도 종단 주도의 통합관리단을 만들어 총괄 관리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스님에 따르면 통합관리단은 종단과 당해 사찰, 지자체, 문화재청이 참여하며 올 연말에는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조계종은 8월 중순 경 세계유산 등재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에 대해 종민 스님은 "7월 말경 유네스코에서 등재 인증서가 도착할 예정"이라며 "인증서가 도착하면 8월 중순에 세계유산 등재 선포식을 개최해 공식적으로 등재 소식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 기업부설연구소
대표 변융태 [공학박사 / 기술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1, 3층 전화 : 8017-1010 | 팩스 : 8017-1011

청소년 '심신수행 삼매'로 무더위 잊는다

재가안거, 집중명상 등 이어져

동련 21일 재가안거 개최 눈길
용주사 · 국제선센터 강좌 개설
탄허기념관 명상 · 인문학 접목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7년 동련이 개최한 제 1회 어린이 · 청소년 재가안거에서 삼매에 빠져있는 불자의 모습.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함께하는 수행의 장이 마련된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곳은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심산)와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신공)이 개최하는 '내 안의 감사향기' 어린이 청소년 21일 재가안거다. 재가안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21일간 진행되는 수행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행 프로그램은 불교 미래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동참해 불자수지독송, 감사수행일기, 수행발원문, 사불, 감사편지 작성 등을 하게 된다. 특히 수행집에 따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재가안거는 유아부터 초등학생, 중 · 고생까지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의 경우 단체 참여도 가능하다. 〈내 안의 감사향기〉 수행집은 사단법인 동련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밴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수행 모습을 사진으로 공유하고 지도법사 스님들이 점검할 수도 있다. 입재식은 각 사찰이나 개인적으로 봉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가안거 회향식은 오는 8월 26일 오후 3시 부산 흥법사에서 봉행된다.

화성 용주사(주지 성월)도 8월 3일부터 5일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氣)충전 행복에너지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여기서는 청소년들이 참선, 108배 기공, 화산숲길 명상 기공, 다도 체험, 예불, 발우공양, 우리문화 바로 알기 등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7월 21일과 22일 국제선센터와 인근 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여름불교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사찰예절교육을 시작으로 명상과 108배, 소금만다라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27일부터 29일까지는 2박3일간 '원어민과 함께 하는 야단법석 어린이 영어캠프'도 실시한다.

탄허기념관(관장 혜거)도 7월 15일부터 9월 1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완명상과 집중명상, 놀이와 활동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명상프로그램 '마음의 소리'를 진행한다. 마음의 소리는 특히 한국박물관협회와 인문학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예술교육과 명상을 접목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마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방학을 맞아 다양한 놀이 위주의 동적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지만 어린이 청소년들의 심신 수련을 위한 정적인 수행 또한 필요하다"며 "정적인 수행에 재미를 더해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재가단체 '반쪽 통합' … 희망 불씨 남아

총연합신도회 출범에 부산불교신도회 '보이콧'

부산불교신도회 · 연합신도회
통합할 총연합신도회 꾸렸지만
부산신도회, 절차에 문제제기
두 단체 화합에는 모두 공감



박수관 총연합신도회장(사진 가운데)과 양재생 수석부회장이 경선 스님으로부터 회기를 받아 힘차게 흔들고 있다.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신도회가 둘로 나뉜 지 10년 만에 이를 아우를 통합조직이 구성됐지만 한쪽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평가를 받게 됐다. 화합이라는 명분에는 서로 공감하지만 절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7월 12일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및 금정총림 범어사 신도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대성 前부산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등 각계 대표 단체와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지만 화합을 위한 핵심단체인 부산불교신도회가 불참하면서 그 의미가 바랬다.

애당초 이 행사는 현재 둘로 갈라진 '부산불교신도회'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의 통합을 위해 추진됐다. 본래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재가단체는 1967년 5월 창립된 부산불교신도회였으나 2008년 11월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양분된 형태를 유지해왔다. 당시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부산불교계 대화주였던 故하도명화 보살이 부산불교신도회에 기부한 해운대구 소재 토지 기금 사용처에 대한 부적절성을 제기했으며, 이는 연합신도회 출범의 원인이 됐다.

이로부터 약 10년간 양 단체의 통합은 이뤄지지 않은 채 갈등만 지속됐다. 이에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범어사 주지)이 화합을 위해 힘을 쏟으며, 양 단체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뭉치길 서원했다. 다행히 양 단체가 화합의 뜻에 공감하며 함께할 것을 다짐했으나 출범식을 앞두고 서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며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부산불교신도회는 총연합회 출범식 전인 6월 28일 부산불교연합신도회에 내용증명을 발송,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을 알렸다. 내용증명에서 부산불교신도회는 "통합을 위해선 주요 회담을 준비하는 양측 실무기구가 조직되고,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일을 성사시켜야하지만 본회는 어떤 과정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상대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사실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통합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회원들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통합에 앞장섰다"며 "하지만 우리 단체는 재단법인으로 통합하려면 논의가 필요하고 절차도 까다롭다. 의사 논의 없이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운영진에도 우리 측 회원 1명만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같은 부산불교신도회의 불참으로 통합은 무산됐지만 경선 스님은 향후 의견 조율을 통해 완전한 화합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부산불교신도회도 이날 총연합회장으로 취임한 박수관 회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다. 경선 스님은 "2년간 두 단체의 통합을 위해 공을 들이고 노력했다. 오늘 행사 전에도 함께 의논하며 모두 통합에는 합의한 상황"이라며 "결국에는 대통합을 이룰 것이고, 오늘은 이를 위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여름휴가는 산사로 떠나자

전국사찰서 여름 맞이 템플스테이 운영

올 여름, 아직까지 휴가 피서지를 정하지 못했다면 사찰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전국 72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서 여름휴가가 고민인 당신을 위해 '여름휴가 특별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서울 '도심 속 산사를 거닐다'

금선사는 8월 8~9일 '가족, 친구 산사캠프'를 실시한다. 가족 · 친구 · 연인과 함께 산사에서 깊은 밤 산새가 우는 낭만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다. 또 도심 속 산사를 거니는 '숲속 걷기명상'과 나의 고민 등을 털어놓으며 스님과 대화하는 '스님과의 talk talk'이 준비돼 있다.

진관사는 7월 28~29일 '내 마음 속 예쁜 꽃씨를 찾아(어린이)', 8월 4~5일 '내게 몰입하는 1박2일(청소년)', 8월 18~19일 '본래 내가 안고 사는 행복한 달(성인)' 등 참가자 나이에 맞춘 다채로운 템플스테이를 연다. 9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드러난 백초월 스님의 태극기를 모티브로 만든 '태극등 만들기'를 비롯해 108배, 타종체험, 명상, 차담, 사찰음식 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다.

경기도 '가벼운 나들이, 나만의 여행'

비밀의 숲이 있는 봉선사는 8월 1~5일 '제2회 붓다의 향기'를 진행한다.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명상프로그램과 더불어 힐링멘토 혜민 스님, '내비둬콘서트' 진행자 일감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 BTN 라디오 진행자 원영 스님 등이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용문사는 8월 매주 토요일마다 1박2일 여름 템플스테이를 연다. 시원한 계곡 물놀이를 비롯해 화덕 채식피자 만들기, 스님과 함께하는 아쉬탕가 요가, 은행잎 소원쓰기 등 한여름밤을 가득 채울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충청도 '한여름밤의 꿈'

반야사는 7월 27~29일 '가족끼리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반야사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좋은 '천연 손수건 염색체험'부터 소백산맥의 한 봉우리인 백화산 정기를 받으며 걷는 숲길 명상 등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갑사는 7~8월 '캠핑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보물로 가득한 갑사를 알아보는 시간과 △108 여의보주 만들기 △별빛 명상 △용문폭포 걷기명상 등 숲속 텐트에서 사찰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원도 '여름엔 역시 강원도'

보현사는 7~8월 '뒹굴뒹굴 휴&휴' 프로그램을 연다. 힐링 음악을 들으며 몸을 이완시키는 요가를 비롯해 △스님과의 차담 △사물체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등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내는 속 시원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특히 강릉에서 유명한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는 체험도 가능하다.

고판화로 잘 알려진 명주사는 7월 28~29일, 8월 4~5일, 8월 11~12일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 템플스테이에서는 목판화 인쇄로 나만의 티셔츠를 만들고, 해설이 있는 박물관 관람을 할 수 있다. 발우공양과 명상 등 가족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라도 '나를 찾으며 만나는 구도의 길'

여름에 바다가 빠질 순 없다. 바다와 가까운 완도 신흥사는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외국인도 참가 가능한 '여름 바다소리, 풍경소리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구계등 해변서 달빛아래 포행이 준비돼 있으며, 고요한 숲길을 따라 명상하는 등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되돌아보는 체험이 다양하다.

지리산자락 피아골 연곡사는 8월 1~12일 '오직 쉴 뿐 休~'를 진행한다. 여름휴가지로 손꼽히는 피아골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울창한 숲속을 거닐며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경상도 '천년 역사 속 1박2일'

축서사는 7월부터 8월까지 '산사의 바람소리'를 연다.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참선을 비롯해 별자리를 찾아보는 '별빛명상' '소금만다라' '솟대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표충사는 7월 27~28일, 8월 3~5일 '호국성지 표충사에서 여름나기'를 운영한다. 전국에서 하나뿐인 850m 고지의 사자평 답사, 푸른 나무 아래 숲길 포행, 공예체험, 별빛아래 텐트 취침 등을 즐길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8년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섭 기자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가 7월 10일 부산 동의대에서 개최한 첫 국민행복포럼 행사. 힐링멘토 법륜 스님이 즉문즉설과 강연을 하며 청중과 소통하고 있다.



멘토들과 자신의 고민을 나누기 위해 손을 들고 질문하려는 청중들의 표정이 밝다.



운동본부에는 정각 스님 등 불교계 인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국민행복포럼 이후 기념촬영 모습.

"국민행복 찾아 실천과제 만들자"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동의대서 첫 포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유치원에서 맞고 온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줘야 하나요?" "오지랖 넓은 우리 아이, 부모의 대화에 꼭 끼어들어요." "친정엄마를 만나면 꼭 싸워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소한 질문이지만 대답은 확실했다. 국민들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 스님들이 나섰다.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상임대표 정각 · 이하 국민행복실천)가 7월 10일 부산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에서 '2018 국민행복포럼'을 개최했다.

국민행복실천은 '행복은 소유보다 공유에 의미가 있다'는 모토로 지난 3월 창립됐다. 상임대표 정각 스님(미륭사 회주)과 공동대표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목종 스님(대광명사 주지) 등 불교계 대표가 참여해 창립한 사단법인으로 오직 '국민행복'이 화두다.

국민행복실천은 분기별로 행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각 분야 대표 강연 및 국민행복 실천 모델과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최한 행사는 첫 시작을 알린 국민행복포럼이어서 의미가 깊다.

국민행복포럼 첫 강연은 추성진(르네추) 추 심리치료 정신의학센터 대표와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로 시작됐다.

추성진 대표는 '행복한 삶을 위한 소통과 정신의학'을 주제로 정신의학을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소통 원칙 10가지를 제시했다. 추 대표는 예술 심리치료로 안양법원 심리치료사로 활동했으며 한국예술원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추 심리치료 정신의학센터 대표로 정신전문 의학 치료로 국민행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추 대표는 "인간의 존엄성은 축복이며 나 자신을 세상에 다시없는 소중한 존재로 71억 중 하나밖에 없는 명품 중 명품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선 소통이 중요하며 경청과 칭찬, 공감 등 따뜻한 인간관계를 위한 핵심 요소를 연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된 행복 제시 위한 대화場
'행복은 소유보다 공유' 의미
법륜 스님 · 추성진 등 멘토들
"행복 위한 삶의 가치 찾아라"

법륜 스님은 '일상생활에서의 행복과 바른 생각'을 주제로 청중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손을 들어 자신들의 고민을 호소했고, 스님은 소소한 고민들에 대해 조언하면서 그 가운데 알아야 할 불교 사상을 자세히 엮어 설명에 깊이를 더했다.

한 청중이 "오지랖이 넓은 우리 손자가 대화중에 끼어든다.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자 법륜 스님은 심리적 억압의 문제를 설명하며 자녀 교육을 위한 치료와 교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법륜 스님은 "어른들 가운데 술주정하며 했던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들은 어릴 적에 심리적 억압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이들을 위한 바른 교육은 징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 잘못을 깨우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건강에 대한 고민과 친정부모와의 관계 개선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포럼에 참여한 불자 및 시민들은 "명쾌한 해답에 전문가의 설명까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선영(화명동 · 42) 씨는 "모두들 행복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행복을 원하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행복은 배워야 하고,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포럼을 통해 앞으로도 좋은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복남(가야동 · 55) 씨는 "가벼운 질문도 법륜 스님이 정성스럽게 대답해주시는 것을 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며 "작은 고민도 소중하게 경청하는 모습에서 이미 힐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행사에는 상임대표 정각 스님, 공동대표 심산 스님, 공순진 동의대 총장, 김종민 공동대표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참가 내빈들은 개회사 및 환영사 등 축하인사로 포럼 개최를 지지했다.

심산 스님은 개회사에서 "과거 우리는 경제가 최우선 화두였으나 세월이 흘러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로 관심사가 옮겨갔다"며 "하지만 이제 행복이 삶의 화두다. 국민행복포럼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삶의 실천과제를 찾고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된 종교 역할은 행복 창조"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정각 스님



"행복을 공유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고도 경제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은 자살로 사람을 몰아내고, 세계 최저 출산율 문제와 고독사까지 수많은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참된 행복을 제시하고 좀 더 역동적인 활동으로 대국민 행복운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정각 스님〈사진〉은 행복 가치 실현과 실천운동에 앞장서며 지난 3월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를 창단했다. 이후 첫 국민행복포럼을 7월 10일 동의대 석당아트홀에서 개최하고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각 스님은 "포럼을 분기별로 개최하고 국민행복 실천과제를 공표하는 등 각계 분야 역할을 조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세계행복의 날(3월 20일)을 맞아 각종 행사를 진행해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행복 대상을 선정해 국민 행복에 앞장선 공로자를 격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복을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행복상담사를 양성 운영해 각 기관에서 활동하도록 돕고 전문상담센터 운영으로 장기적인 행복전문 상담 인프라도 구축해야 합니다. 행복명상법 개발과 보급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는 지난 4월 23일 동의대학교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앞으로 동의대에 행복상담사 양성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다양한 교육사업과 행복인프라 확충에 앞장선다.

한편 정각 스님은 현재 영도 미륭사 회주이며 부산불교인권위원회와 부산인권센터를 창립해 인권운동에 매진했다. 또한 부산자치참여연대 상임대표,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삼보불교아카데미 특별법문

“방편에 매달리지 말고 실상 보라”

주제 : 깨달음과 한국불교

종범 스님



종범 스님은… 1963년 통도사서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 69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통도사 강원 강주,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조계종 중앙상임포교사, 중앙승가대 4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삼보불교아카데미 학장을 맡고 있다.

(사)대한불교삼보회(이사장 유억근)는 7월 8일 서울 삼보정사서 삼보불교아카데미 학장인 종범 스님을 초청해 특별법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스님은 “부처님과 관련된 모든 방편은 깨달음이란 실상을 깨우치기 위함일 뿐이다”며 “한국불교의 조사선풍에 따라 금강경으로 수행 입문해 보리심으로 발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김지원 수습기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깨달음에 대해 말씀드리고, 자료를 본 다음 마치겠습니다.

법문은 깨달음 위한 방편

불교에는 불상, 불탑, 불경 즉, 상 · 탑 · 경이 있는데 전부 부처님과 관련된 예경의 대상입니다. 불상은 부처님 당신 모습, 불탑은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 불경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당신 몸 · 뼈를 보이고, 말을 듣게 하려고 세상에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몸 · 뼈 · 말 모습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보이기가 쉽지 않으니 방편을 이용하신 것이지요.

‘개방편문 시진실상(開方便門 示眞實相)’이란 말이 있습니다. 방편문을 열어서 진실상을 보이는 것이죠. 불교는 어떤 형식으로 설명을 하든 방편이란 뜻입니다. 그 설명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 법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법문 주제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을 받으면 참 속상해요.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천 마디, 한 마디를 해도 깨달음이 주제입니다.

설명 아닌 증입 통해 깨달음으로

‘이지표월(以指標月)’이라,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방편문을 연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왜 가리킵니까? 그 목적은 손가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달에 있습니다. 달이 바로 진실상을 상징합니다.

가리킴을 본 뒤 그 가리킴을 본 사람이 할 일은 ‘인지견월(因指見月)’이라 합니다. 손가락으로 인해(통해서) 달을 본다. 달을 보는 것이 곧 달 가리킨 것을 본 사람이 할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손가락에 매달려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교는 손가락(방편문)을 통해 달(진실상)을 보이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집지위월(執指爲月)’하면 그것은 비도(非道)입니다. 인지견월은 정도(正道)요, 손가락을 달이라 우기면 그것은 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불교는 집지위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동안 철야정진을 했고, 불교교학에 대해 아는 것이 많다고 하는 등 전부 손가락을 달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친 것은 방편문이고, 깨우친 것은 진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가르치신 분이 아니고 깨우치신 분이라고 해야 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하는 게 가르침이고, 보일 수 없는 것을 형상으로써 보여주는 게 깨우침입니다. 보일 때 볼 수 있는 것을 통해 볼 수 없는 세계를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정도입니다. 볼 수 있는 것에만 매달리면 비도요, 잘못된 도는 사도입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할 때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배웁니다. 어떤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결국 깨달음을 위한 것입니다. 가르침은 일체 허망한 것도, 최종 진실한 것도 아닙니다. ‘불가설 유계합(不可說唯契合)’이라, 말할 수 없고 오직 합할 뿐이에요. 이를 방에 비유한다면, 밖에서 문 열고 방을 설명해봐야 방 전체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저 방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턱 앉으면 방이 내가 되고 내가 방이 되는데 이게 바로 계합이고, 증입(證入)입니다. 깨달음은 이처럼 몸소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방편, 깨달음은 진실
손가락만 쳐다보면 非道요
결국 달을 바라봐야 正道다
형식 자체보다 깨우침에 목적을

한국불교는 조사선풍(祖師禪風)

한국불교의 주된 경전과 교전은 〈금강 · 법화 · 화엄경〉 그리고 〈선어록〉입니다. 그리고 사원은 전체적으로 당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당은 법당을 의미해요. 이때 법당이 어떻게 배치됐는지를 가람배치라고 해요. 가람배치는 법규와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대웅전이 있어야 하고, 동탑, 서탑, 다보탑 등을 세우고 하는 규식들이 전부 법화경에 나오는 법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불교의 전통은 〈법화경〉으로 사원 규식을 삼습니다.

사원을 건립했으면 예경의범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예경은 전부 〈화엄경〉입니다. 화엄경교로 우의예경하고, 예경의범을 삼는 것입니다. 예경하면 발심 수행을 할 것 아닙니까? 이때 〈금강경〉으로 수행입문을 삼게 됩니다. 수행의 첫 걸음은 광대한 원력을 가지고 일체중생을 제도해 무여열반에 들겠다는 발심입니다. 〈금강경〉에서는 해탈과 중생교화를 하겠다는 보리심 없이 업적과 성과를 내고자 하는 발심은 인간계 복에 머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불과 중생교화만을 위해 공덕을 닦는 것이 발심수행입니다. 그 다음 수행자성 할 때는 조사어록으로 수행을 삼습니다.

〈금강경〉으로 입문, 스스로 성취해 수행의 과덕을 이루게 되면 전부 조사가풍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바로 한국불교예요. 수행이 점점 완성되고, 원숙하게 되면 조사선풍이라고 내려오는 가풍이 있어요. 조사어록으로 수행자성을 삼는 법풍을 일컬어 조사가풍이라 합니다. 바로 이 조사선 선풍 때문에 한국불교는 법덕이 높아질수록 경만 외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원규식이 법화경이요, 예경의범이 화엄경이요, 수행입문이 금강경이요, 수행자성이 조사어록이란 말은 어느 책에도 안 써있어요. 저 혼자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수시지송(隋時持誦) 게송 풀이

전통한국불교 예경의식문 가운데 1935년에 지어진 ‘성문의범’이 이른바 결정판인데, 거의 화엄경으로 형성돼 있어요. 또 조사어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다 한국불교의 법풍(法風)이 의식집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료에 실은 다섯 게송을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게송은 통도사 사리탑 주련에 붙어있는 게송입니다. 태백산 정암사 자장 스님이 친히 지은 역사가 있는 게송이에요.

만대윤왕삼계주(萬代輪王三界主) - 세월이 흘러도 중생을 깨우치는 법의 주인(부처님)이
쌍림시멸기천추(雙林示滅幾千秋) - 두 나무 수풀서 열반을 보인지 몇 천년이 됐는가
진신사리금유재(眞身舍利今猶在) - 부처님 몸에서 나온 신골사리가 아직도 있으니
보사군생예불휴(普使群生禮不休) - 중생으로 하여금 예경을 그치지 아니하게 하도다.

두 번째 게송입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닙니다. 깨우치는 것은 할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법도생으로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이 불교가 추구해 가야할 길입니다.

불신보변시방중(佛身普遍十方中) - 부처님 지혜의 몸이 온 시방에 널리 두루하니
삼세여래일체동(三世如來一體同) - 과거, 현재, 미래의 여래 지신(知身)이 일체 똑같다
광대원운항부진(廣大願雲恒不盡) - 부처님에겐 시방 가득한 서원의 세계가 다함이 없고
왕양각해묘난궁(汪洋覺海渺難窮) - 넓고 넓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아득하고 끝이 없네.

세 번째 게송은 불상 점안의식 게송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상 눈동자를 그려넣는 것이 화엄경과 다르지 않아요. 깨달음에 다다르면 전부 계합할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 부처님은 모두 화엄경 부처님입니다.

전단목주중생상(栴檀木做衆生像) - 향나무로 중생의 형상을 만들고
급여여래보살형(及與如來菩薩形) - 또 여래와 보살의 형상도 만든다네.
만면천두수각이(萬面千頭雖各異) - 만 얼굴과 천 개 머리가 비록 다 달라도,
약문훈기일반향(若聞薰氣一般香) - 향을 맡아보면 모두가 똑같은 전단향이네.

네 번째는 화엄경 수미정상게찬품 제14에 있는 게송입니다. 어둠 속은 오온 즉, 중생의 마음을 뜻해요. 중생의 오온 속에 청정불성이 꽉 차있다는 뜻이에요.

비여암중보(譬如暗中寶) - 비유하건대 어둠 속 보배가 있는데
무등불가견(無燈不可見) -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과 같아서
불법무인설(佛法無人說) - 불법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수혜막능요(雖慧莫能了) - 비록 영리한 지혜를 가졌더라도 알 수 없다.

다섯번째는 마음공부를 하는 근본 게송입니다. 스스로의 근기가 감당하는 것에 따른다는 말은 자기 마음에 의해 중생도, 보살도, 여래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망상만 쉬면 바로 부처인데, 망상을 일으켜서 중생인 겁니다.

불시중생심리불(佛是衆生心裏佛) - 불이란 것은 중생 마음 속 부처요.
수자근감무이물(隨自根堪無異物) - 스스로 근기의 감당함을 따를 뿐 다른 것이 아니다
욕지일체제불원(欲知一切諸佛源) - 제불이 나온 근원을 알고자 할진데
오자무명본시불(悟自無明本是佛) - 자기 무명의 망상집착이 본래 부처인줄 알아야 하느니라.





생명위기시대, 행복의 정의를 묻다

[프롤로그] 불교, 다시 환경 속으로

어린 싯다르타의 고뇌 '모든 생명은 왜 함께 행복할 수 없을까?'

어린 싯다르타태자는 아버지 정반왕(숫도다나왕)을 따라 들로 나가 농부들의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제(農耕祭)에 참여한다. 이때 뜨거운 태양아래 땀을 흘리며 쟁기질하는 농부들을 보았다. 더욱 자세히 보니 그 농부의 채찍을 맞으며 힘들게 밭을 가는 소를 보게 되었고, 그 소의 쟁기 끝에 파헤쳐진 꿈틀거리는 작은 벌레들을 보게 된다. 이때 새들이 날아와 그 벌레를 쪼아 물고 날아가는 광경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게된다. 그는 홀로 앉아 방금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되새기면서 생각했다. "아아 가엾구나 어찌하여 살아 있는 것들을 서로 죽이기를 거듭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생명은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여 오랫동안 깊은 명상에 잠겼다.

이러한 고민을 시작으로 싯다르타 태자는 결국 왕위를 버리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고,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처럼 부처님의 고뇌는 곧, '모든 생명이 더불어 행복하기 위한' 생명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살충제 계란부터 라돈 침대까지

2017년 8월 14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남양주시 농가 한 곳에서 살충제성분의 피프로닐을, 광주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린을 검출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등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메놀수론, 에톡사졸 등의 살충제가 검출되면서 살충제 계란파동이 이어졌다.

과거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오존, 부유분진등으로 구분되던 것이 이제는 더욱 심각하게 미세먼지가 실질적인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카락의 1/20~1/30에 불과한 아주 작은 부유물질이다. 미세먼지는 국내의 석탄과 석유등의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공장, 자동차의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도 작기 때문에 대기중에 떠다니고 인체의 호흡기를 거쳐 폐로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발암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가습기 분무액에 포함된 살균제가 사람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폐질환을 일으켜 실제 영유아 36명을 포함하여 78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다. 영국계 다국적 기업회사로 매각되어 판매되어온 옥시에서 발생된 이 살균제는 1994년에 출시되어 2011년까지 60만개가 판매되어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심각한 위해를 끼쳐왔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것이다.

최근 중국이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폐지 및 재활용쓰레기 가격이 폭락하자 재활용쓰레기 업체들은 소각비용이 올라가 수지를 맞추기 어려워져 수거를 거부하여 재활용 비닐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 과거에도 스티로폼으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정부의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올해 5월 3일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실내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620베크렐에 달하는 다량의 라돈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이온 파우더를 매트리스에 코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한 소비자가 우연히 알아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라돈은 새집증후군의 대표적인 물질이며 심각한 방사능물질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물질이다.

48년간 낙동강에 비소, 아연 등을 방류하여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켜온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석포제련소 문제, 평창올림픽을 위해 천연림

생명 살림의 가르침 '불교'
욕망 폐해 치유할 근원력
미래 대안 행동과제 남아

을 파괴하고도 복구계획없이 현재 엄청난 산림파괴를 방치하고 있는 가리왕산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2020년 6월 30일까지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을 풀어주게 되어, 더 많은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운동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심각한 발암성 생리대 문제, GMO식품 문제, 4대강 재자연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핵발전소는 포항지역의 지진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화장품의 미세플라스틱 문제,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오염, 또한 동물복지 문제로서 개식용금지 입법화, 바다로 간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계획 등도 중요한 환경현안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환경문제의 근원, 무한욕망 사회

기후변화의 위기, 핵발전소의 위협, 생물종 다양성의 훼손, 쓰레기오염 문제 등, 위기로서의 환경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날 세계는 '경제적 성장'이 발전의 유일한 척도로 규정하고 이제까지 달려왔다. 산업혁명이후 불과 200여년의 짧은 시간 동안, 이전의 수천년보다 몇 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회로 급성장해 왔다. 모든 나라들은 서로 앞다투어 미국이나 유럽 등 앞선 선진국들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1990년을 경과하면서 환경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이러한 풍요의 미래가 모든 나라가 다같이 누릴 수 있는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한정된 자원소비를 지속하면 인류는 유토피아(Utopia)가 아니라 오히려 파국(Dystopia)을 맞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성장사회란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폐기의 사회이며, 이는 오늘날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각종 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던 우리들에게 닥친 이 엄청난 위기의 원인을 사람들은 복기해보기 시작했다. 위기는 가장 상처받기 쉬운 자연환경의 파괴로 시작되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 환경파괴의 복원과 보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것이다. 잘못된 정치, 경제, 민주주의 등의 제도, 보다 더 깊이는 세계관과 가치관, 사상, 생활양식 등에서 비롯되어 우리들 삶속에 겹겹이 축적되었던 문제가 약한 고리인 환경위기로 표출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불교는 나무와 숲의 종교이며 '살림' 종교

불교는 숲과 나무의 종교이다. 부처님은 룸비니 숲의 무수나무 아래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보리수나무 아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리고 녹야원숲서 최초로 설법을 하셨고, 쿠시나가라 숲속 두그루의 사라수 아래서 열반에 드셨다. 우리나라 산봉우리 이름은 천왕봉, 비로봉, 나한봉, 관음봉, 반야봉 등 하나같이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가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불교와 숲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속세를 버리고 불교에 귀의하는 것을 입산(入山)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선원, 강원, 율원이 모두 있는 큰 절을 총림(叢林)이라고 하였다. 조계총림, 영축총림, 덕숭총림, 고불총림 등 '숲속에 모인 수행자 집단'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절이 없는 숲과 산도 상상할 수 없지만, 숲이 없는 절 역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모든 생명이 함께 행복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며 출가 하신 부처님, 불살생 계율을 첫 번째로 하며 숲과 생명살림의 종교인 불교는 생명위기시대에 문명전환의 대안적 가르침이다. 문제는 부처님 본래 담마는 위기시대 미래의 대안사상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종교로서의 불교는 그 반대로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과제는 미래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성으로 만드는가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는 오늘날 불자들의 행동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청소년 심신수양을 위한 템플스테이
제 53회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 53회 화랑수련회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 언 제 : 2018년 7월 29일 ~ 2018년 8월 18일 (3주간)
■ 모집인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참가)
■ 수련회비 :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양말 · 운동복 · 운동화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 예약 및 문의 : TEL 054-775-1689 / 054-744-1689 홈페이지 www.sunmudo.com

• 기본 프로그램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불교강의, 108배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 매주 색다른 경주문화유산 탐방 :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기림사, 경주국립박물관
양남 주상절리길 및 감포깍지길 탐방
• 자아성찰 : 힐링 명상, 요가, 자자회

일 과 표 〈일과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5:00	기상	13:00	독서와 사색
5:30	새벽 예불 / 좌선 / 걷기명상	14:00	요일에 따라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효도마사지, 예절교육, 호신술, 트래킹
6:20	아침 공양 (주1회 발우공양)	16:30	울력 (도량 청소 및 정리)
9:00	원어민 영어 수업/불교 강의	17:10	저녁 공양
10:00	선무도 수련과 힐링 명상	18:30	저녁 예불
11:00	108배	19:00	자아성찰 및 참회록 쓰기, 방학 숙제하기
11:40	점심 공양	21:00	취침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선무도 화랑학교
본 프로그램은 종교를 초월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보안장치 부수고 절도… 20년 지나도 '묘연'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⑬ 공주 갑사의 도난 성보







사진 왼쪽부터 현대 도난된 갑사 약사여래회상도, 갑사칠성도, 갑사 신중도.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계룡산(鷄龍山) 서남부 연천봉 아래에 위치한 갑사는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의 말사(末寺)이다. 갑사(甲寺)는 계룡갑사(鷄龍甲寺), 갑사(岬寺), 갑사사(甲士寺), 계룡사(鷄龍寺)라고 불렸다. 이 사찰은 420년에 아도(阿道)가 창건하였다는 설과 556년 혜명(惠明)이 창건하였다는 설, 아도가 창건하고 혜명이 중창했다는 설 등이 분분하다. 679년 의상(義湘)이 사찰을 중수하고, 화엄대학지소(華嚴大學之所)로 삼았으며, 이때부터 신라 화엄십찰(華嚴十刹)의 하나가 되었다. 그 후 갑사는 859년과 887년에 중창하였지만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문헌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1424년 4월 조정에서 전국의 사원에 거주하는 스님과 토지의 소유를 정할 때, 예조에서 '충청도 공주 계룡사는 원래 100결의 토지가 있었지만, 이제 50결을 더해서 70명의 승려를 거주토록 할 것'을 건의할 정도로 충남을 대표하는 사찰이 되었다. 1583년 여름에 정문루(正門樓)가 중수되고, 1584년 여름에 철 8,000근으로 대종(大鐘)을 주조하였다.

1597년에 일어난 정유재란으로 모든 전각이 소실된 후, 1604년에 인호(印浩), 경순(敬淳), 성안(性安), 병윤(竝胤) 등이 대웅전과 진해당(振海堂)을 중건하였다.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1617년 내부 수미단에 삼세불과 그 사이사이에 보살상 4구를 배치한 삼불과 칠보살의 칠존이 봉안되었다. 1654년에 사정(思淨), 신휘(愼徽) 등이 관찰사 강백년(姜栢年)의 도움을 얻어 크게 중창하였다.

1659년에 여주목사 이지천(李志賤)이 지은 계룡산갑사사적비를 건립하였고, 1738년에 표충원(表忠院)을 세웠으며, 1797년에 원선사(圓禪師)가 중창하였고, 1875년에 중수를 거쳐 1899년에 적묵당(寂默堂)을 신축하였다.

일제강점기 1584년에 주조된 동종은 금속기의 공출로 제공되었다가 광복 후 인천에서 다시 찾아왔다.

일제강점기 갑사 재산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조선총독부 관보본이 남아있다. 두 내용의 품목과 수량이 차이가 나 작성 시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재산대장에서는 불교회화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불성급각존신탱화(佛聖及各尊神幀畵) 총 55점'으로 적어놓았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관보본은 1932년 11월 10일에 작성된 자료에서 불상과 불화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지만, 본사의 전각이나 암자별로 나누어 적었는지 불상, 불화, 공예 순으로 반복해서 적어놓았다.

신라 화엄십찰 중 한 곳, 갑사

80~90년대 불화 3점 도난 확인

재산목록 비교 시 10점 더 유출

소장 문화재 체계적인 자료 연구는

잊혀진 사찰의 역사 복원하는 방법

일제강점기 갑사 소장 불교회화 재산목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조선총독부 관보본		갑사 소장 불교회화(2004년 기준)		도난
佛聖及各尊神幀畵	55	後佛幀	3	三身佛掛佛圖(1650년 敬岑 작)	1	
		神衆幀	10	三世佛圖(1730년 義謙 작)	2	1
		七星幀	7	三世佛圖(1907년 法隆隆坡 작)	1	
		後佛幀	14	八相圖(1910년 法隆隆坡 작)	8	
		現王幀	3	三藏菩薩圖(1905년 錦湖若效 작)	1	
		八相幀	4	現王圖(1910년 錦湖若效 작)	1	
		三世幀	1	神衆圖(1910년 錦湖若效 작 等)	7	1
		掛佛幀	1	四天王圖(1907년 錦湖若效 작)	2	
		祖師影幀	4	眞影	8	
		獨聖幀	6	靈山會上圖(1930년 普應文性 작 等)	2	
		山神幀	7	七星圖(1858년 靜供天竺 작 等)	2	1
		仁王幀	1	獨聖圖(1910년 法隆隆坡 작 等)	2	
				山神圖(1933년 普應文性 작)	1	
	55		61		38	3

현재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2016년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에는 갑사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로 약사회상도(1998.12.20 도난), 칠성도와 신중도(1984.3.29 도난)가 올라가 있다. 이외 일제강점기 55점에 달하던 불화는 현재 본사와 말사를 합쳐도 43점이라서 최소한 10점이 더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1730년대 불화승 의겸이 조성한 삼세불도 중 약사회상도 도난에 관해서는 신문 기록이 남아 있다.

〈한겨레신문〉 1998년 12월 24일자에는 "이상재 선생 유품, 공주 갑사 탱화 등 도난당해 (前略) 지난 21일에는 공주시 계룡명의 전통사찰인 갑사 대웅전에 도난방지용 열감지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절도범이 가로 280cm, 세로 455cm의 탱화 '약사여래회상도'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 도난 사건이 문화재 전문절도범 등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며 기사화되었지만, 20여 년 동안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재산대장에는 불교회화는 55점으로 적혀 있고, 1932년에 작성된 조선총독부 관보 재산대장에는 불교회화가 61점, 현재 갑사와 산내암자에 봉안된 불교회화는 합하여 38점이다. 그리고 현재 도난불화 가운데 대웅전 약사여래도, 칠성도와 신중도가 종단에 신고되었지만,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칠성도와 신중도는 도난조차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도난된 갑사 대웅전 약사여래도는 대웅전에 걸려 있는 삼세불도 중의 하나로, 현재 영산회상도와 아미타여래도는 보물 제1651호로 지정되어 있다. 영산회상도는 가로 285cm, 세로 441cm라 도난당한 약사여래도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중앙에 자리한 약사불은 키형 광배를 갖추고 오른손을 어깨 높이까지 들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취하고, 오른쪽 어깨에 편삼을 걸치지 않은 상태로 대의자락을 반원형으로 걸치고 있다. 약사불 아래로 협시보살과 사천왕 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화면의 윗부분 여래의 광배 좌우로는 불제자 아라한과 신중들을 꽉 차게 그려 넣었다. 세련된 필치로 각 존상의 얼굴과 신체, 문양 등을 표현하고, 적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차분한 느낌을 준다. 이 불화와 같이 그려진 영산회상도와 아미타회상도의 화기를 참조하면, 1730년에 수화승(首畵員) 의겸(義謙)과 행종(幸宗), 채인(採仁), 일민(日敏), 덕민(德敏), 각천(覺天), 지원(智元), 정관(晶寬), 책활(策濶)이 함께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칠성도는 기존 자료에 의하면 1820년에 조성된 작품이다. 전체 화면가운데 상하를 구름으로 구획하고, 화면 상단 중앙에 배치한 치성광여래는 원형의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두르고 있으며, 그 좌우에 보관을 쓴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서 있다.

그 옆으로 칠원성군이 화현한 칠여래 등이 합장을 하고, 하단에는 수성노인을 중심으로 자미대제와 칠원성군이 일렬로 서 있다. 이와 같은 구도는 19세기에 그려진 칠성도 가운데 매우 귀한 구도라서 특별전시회에 출품되어 나온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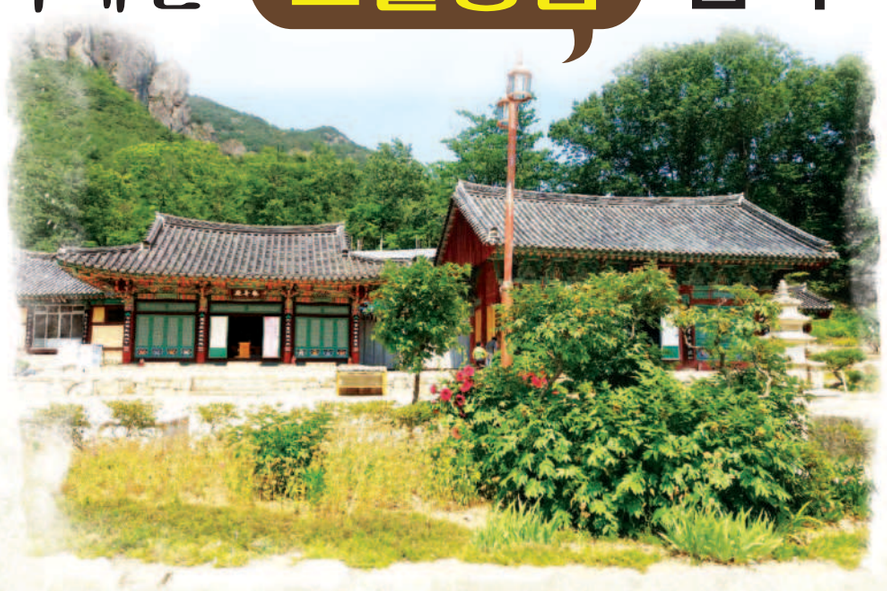
기존 자료에 따르면 신중도 또한 칠성도와 함께 1820년에 조성된 작품이다. 화면 구성을 보면, 전체화면을 상하로 구획하고, 하단 중앙 위태천을 중심으로 신장(神將)을 화면 가득 빽빽이 채우고, 상단에는 대자재천을 중심으로 범천과 제석천 등을 배치하였다. 화면의 인물 배치와 설채법 등에서 19세기 전반의 불상에서 나타나는 양식적인 특징이 보이고 있다.

공주 갑사는 동학사와 더불어 계룡산을 대표하는 사찰로, 수 백점의 성보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사찰이다.

재작년 대웅전 내부 수미단에 삼세불과 여래존상 사이사이에 보살상 네 구를 배치한 삼불사보살(三佛四菩薩)의 칠존(七尊)이 1617년에 비구니 묘총(妙聰)과 은덕(恩德)이 시주하여 조각승 행사(幸思), 덕현(德玄), 응매(應梅) 등이 제작한 것이 새롭게 밝혀져 임진왜란 이후 갑사의 역사를 복원하게 되었다. 이처럼 갑사에 소장된 문화재의 체계적인 자료 공개와 연구는 잊혀진 사찰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지역포교의 첩경, '지역친화'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⑬ 포교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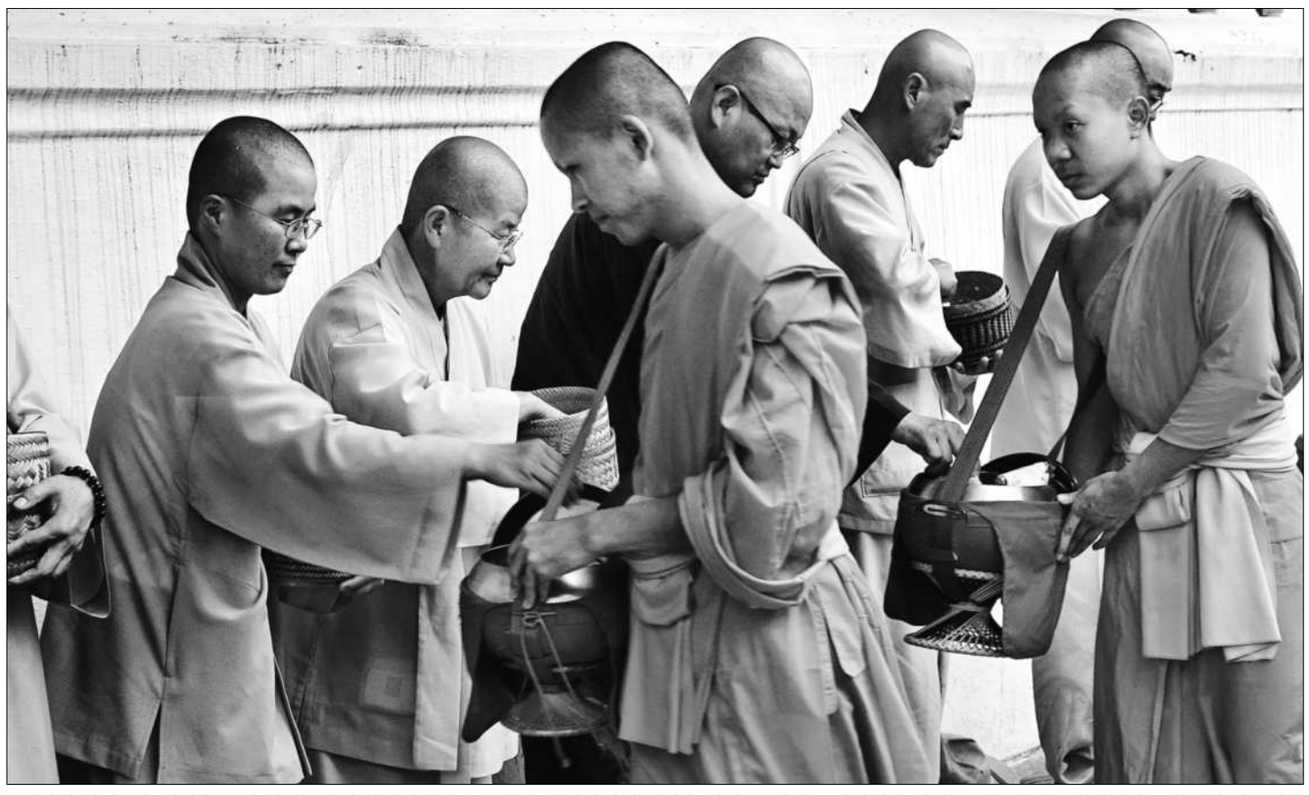
사찰의 소임을 사는 스님 특히 주지 스님은 포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물론 포교는 부처님 법을 중생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고(苦)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끌어주는데 궁극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한국스님들의 포교 고민은 이보다 훨씬 실존적이다. 탈종교시대, 다종교사회에서 불교와 사찰의 존립을 위하여 포교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교를 왜 하는가?' 보다 '포교를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질문이 보다 더 이 실존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종교도 성쇠(盛衰)와 부침(浮沈)을 겪는다. 수많은 종교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현재에도 새로운 종교는 계속 생겨나고 사라져간다. 한 때 천년만년 지속될 것 같이 위세를 크게 떨치던 종교도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 불교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조차 불교가 쇠락했다는 것은 한국불교도 예외가 아님을 단적으로 반증한다. 불교인구에서 나아가 출가승려마저도 감소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불교유적만 있고 불교는 없는 인도의 현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불교의 성쇠와 부침은 한마디로 포교에 달려있다. 포교는 불교교단을 유지시키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불교교단을 유지하기 위해선 신도가 지속적으로 귀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도의 유입은 포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만약 신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단 자체도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포교는 불교를 유지시키는 근본이자 모든 불자의 사명이다.

그러하기에 부처님 재세 시에 전도부촉(傳道付囑)을 들은 수많은 제자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교에 헌신하였다.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가 수로나국으로 포교를 떠나려 할 때 부처님께서 그곳의 백성들이 난폭하고 포악한 것을 걱정하시자 부루나 존자는 "설사 그들이 욕하고, 때리고, 죽인다 하여도 원망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대화는 중생을 고통으로 벗어나게 하겠다는 전법교화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자 이를 통한 불교교단의 유지와 전승에 대한 신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가 쇠락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부처님의 포교에서 찾아야 한다. 부처님은 지역사회 즉 마을주민들과의 관계 맺음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한 마을에 머물게 되면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공유했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매일 아침 탁발을 통해 공양을 받았고 칠가식(七家食)을 지켰다. 칠가식이란 탁발을 시작한 첫 번째 집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일곱 번째 집까지만 공양물을 받는 것이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탁발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소통했다. 현대사회서 이같은 탁발 등 행위는 어렵지만 사회요구를 발빠르게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진은 동남아 탁발의 모습이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칠가식을 함에 발우에 공양물이 먹을 만큼 차면 일곱 집을 다 돌지 않아도 탁발을 중단하였다. 물론 일곱 집을 돌았을 때 발우를 채우지 못했어도 그냥 돌아와야 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일곱 집을 다 돌고도 발우를 채우지 못하신 날도 있다고 전해진다. 일곱 집을 돌기 전에 발우를 다 채운 상황이라면 마을주민들의 삶이 풍족함을, 만일 일곱 집을 다 돌고도 발우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라면 부처님께 조차 드릴 공양물마저도 없을 정도로 삶이 궁핍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칠가식의 탁발을 통해 부처님과 제자들은 마을주민들과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했던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과 제자들의 탁발은 단순히 음식물을 얻는 행위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삶을 이해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포교는 설법과 공양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자체가 지역사회와의 관계맺음이었다. 그들은 설법 그리고 탁발과 공양의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를 통해 부처님과 제자들은 마을주민들이 느끼는 희로애락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을 주었다. 경전에는 부처님의 비구 대중이 1,250인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매일 아침 천명의 비구들이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만나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의 포교에 있어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을 것임에 분명하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한국불교에 시사점을 준다. 포교는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을 이루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처님 재세 시의 포교는 전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친화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걸식을 하는 무리로서는 당연한 행위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걸식을 하지 않는 한국승가는 어떻게 지역사회와 친화하면서 포교를 해야 하는가?

사찰이 지역사회와 친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사찰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서거나,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에 동참하거나, 사찰의 행사를 지역사회의 행사로 승화시키는 일은 사찰이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되는 지름길이다.

부처님과 제자, 탁발 · 칠가식
설법과 공양으로 지역사회 관계
지역 요구 파악해 접근해야

사찰이 지역사회와 친화하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지역사회에 회향하면서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다. 사찰은 지역사회와 유리(遊離)되어서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 사찰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지역포교의 전제 조건이자 성공조건이다.

현재 지역친화성이 부족한 사찰들의 상당수가 역설적이게도 비교적 재정의 여유가 있는 관람료 사찰이라는 점은 지역친화포교에 있어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만하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이 발행한 〈지역포교 리포트〉에 의하면, 이들 사찰의 신도는 상당수가 해당 지역이나 사하촌의 주민이 아니라고 한다. 지역주민의 신도 비율이 낮은 사찰이 어떻게 지역친화적인 포교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찰의 포교가 지역과 친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요구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금부터는 지역 요구의 파악 방법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역 요구를 파악한다는 것은 포교를 함에 있어서 지역의 현실과 특성 그리고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시장조사와 같은 개념에 해당하며, '지역통계연보' 의 활용은 지역친화포교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해당 지역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도, 시, 군, 구 등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지역통계연보에는 그 지역의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지역의 연혁과 토지, 기후에서부터 포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인구, 산업, 보건, 환경, 교육, 재정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역정보가 구비되어 있다. 이들 정보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면 지역의 상황과 현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친화포교에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낮은 반면 청년 인구의 유출이 높은 지역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교에 나선다면 중장년이나 노년층 포교에 비하여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교육기관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포교에 힘을 쓰는 것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되는 곳이라면 경로잔치, 독거노인돕기, 노인대학과 같이 노년층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포교에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지역통계연보를 활용하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역친화포교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한 후에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사찰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을 들 수 있지만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지역친화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여러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직자들을 위한 무료급식,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도시락 배달, 경로잔치, 푸드 뱅크(food bank), 자활 센터, 장학금 지원 등이 그러한 프로그램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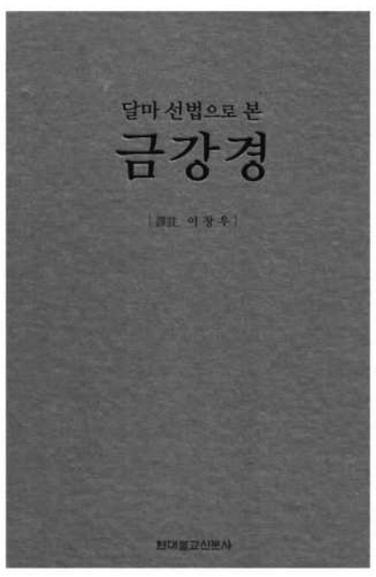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전시적 · 일회적이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계획적 ·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지역친화 프로그램이 일회성의 전시적 행사에 그친다면 지역주민들은 그 사찰에 대하여 실망하고 오히려 포교에는 역효과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사찰이 계획적인 지역친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면 지역주민들은 그 사찰을 신뢰하고, 나아가 불교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포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역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사찰이 지역의 이슈(issue)에 천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과거의 진보 대 보수,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등 계급과 이념 투쟁적인 사회운동이 아닌 인권, 경제, 통일, 환경,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영역의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환경운동과 생태운동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들이 지역공동체의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또는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띤 시민사회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사찰의 여러 스님들은 지역의 이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리하고 그 대안을 내는 이른 바 이슈 매이킹(issue making) 또는 이슈 리딩(issue leading)으로 불리는 활동에 능동적으로 동참하여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찰이 지역과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면, 사찰의 성장을 지역에 회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찰이 자신의 성장만을 추가한다면 지역과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사찰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성장의 토대로 하고 있기에 그 성장을 지역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사찰이 성장의 결실을 해당 지역과 공유하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사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포교에 유익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찰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
여시아문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 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 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 고 말한다.

■ 구입문의 :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 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영원한 생명, 무량한 광명은 서쪽에 있다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㉖ 정토삼부경 2 〈무량수경(無量壽經)〉

극락은 왜 서쪽에 있을까? 동쪽은 해가 뜨는 근원의 자리로 본각(本覺)인 불성(佛性)을 나타내니 금덩이와 같고, 서쪽은 완성된 자리, 시각(始覺)인 부처를 이룬 것이 마치 세공된 보석과 같다. 들어갈 때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수기라는 약속을 받아 갈 수 있는 극락부처학교는 그 입학자격 자체가 스스로 원해야 갈 수 있다. 평소 염불로 자신이 원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죽어서도 갈 수 있는 곳, 또한 살아서도 극락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평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곳에 갈 수는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사람답게 사는 법이 있으니 바로 팔정도(八正道)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 정도는 살아줘야 극락문턱에라도 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극락은 부처학교라면 그 곳엔 누가 있어 우리를 교육시키는가, 바로 아미타부처님이다.

아미타불은 누구인가. 까마득한 과거 어느 세월 속에 거룩한 부처님이 탄생하시니 이름이 정광부처님이다. 그 분의 뒤를 이어 50분의 부처님이 각기 다른 이름으로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인연 따라 열반에 드셨다, 그리고 51번째 세자재왕부처님이 나오신다. 당시의 왕이 세자재왕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하여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니 법장(法藏)비구다.

"원하옵나니 저도 부처가 되어 성스러운 부처님들의 대열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처님들처럼 저도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지 못하는 중생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안락한 곳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상상 이상의 우주 최고의 불국토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런 불국토에 오고자 하는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광명을 보내 길을 안내하고 싶고 도착한 뒤에도 그들을 청정하게 하며 나고 죽는 사이에 겪게 되는 온갖 고통을 다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가르쳐 교화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든지 더 할 나위없는 즐거움과 안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불국토를 기필코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서원이 이와 같으니 부처님은 증명해주소서, 이 서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숨 바쳐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법장비구의 광대한 서원을 들으신 세자재왕부처님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우주공간에 펼쳐져 있는 이백일십억이나 되는 세계의 특징과 장점들을 자세하게 홀로그램으로 영화처럼 보여주었다.

법장비구는 그 영상 속에서 자신이 세우고 싶었던 극락세계의 마스터플랜을 다 구축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실천에 옮겨 견고한 의지와 불퇴전의 정진력으로 용맹스럽게 수행하였다. 모든 중생의 안락한 터전을 만들어 주기 위해 목숨 걸고 정진한 법장비구의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르니 마음이 숙연해진다. 그렇게 수행하다 다시 세자재왕부처님 앞에 나아가 결연하게 말한다.

"부처님,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발원한 48가지가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면 그때 저도 부처가 될 것입니다. 목숨 걸고 다시 가려하오니 저를 위하여 가피하여 주소서. 내 불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다시는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몸에서는 황금빛 광채가 나고. 멋진 몸을 지녀 못난 이가 없고, 모두 숙명통을 얻어 과거 자신의 삶을 다 알고, 천안통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고, 타심통을 얻어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알며, 신족통을 얻어 수 많은 세계를 순식간에 통과하고, 이들은 모두 번뇌로 아집을 일으키지 않으며, 반드시 성불할 인연의 삶을 이 생에서 살도록 그들을 이끌 때 나의 광명은 백천억 나유타세계를 다 비출 것이다. 수명 또한 한량이 없으며, 이 곳에 태어나려는 이들을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시니 내 이름을 열 번만 불러도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 단 나쁜 짓한 이들은 제외한다. 또 보리심을 내어 항상 공덕을 닦은 이가 임종할 때엔 내가 대중과 함께 가서 그를 맞이하여 극락으로 인도할 것이다."

48가지의 대원을 이룬 법장비구의 이야기를 들은 아난이 부처님께 법장비구가 성불했는지 묻자, "물론이다. 십 겁 전에 성불했지. 바로 아미타불이란다. 영원한 광명인 무량광불(無量光佛), 한량없는 생명을 지닌 무량수불(無量壽佛)이라 불리며 극락세계를 건설하여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그 부처님의 광명과 수명의 힘이 그 세계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찬찬히 설명하시는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고 자애로워 그 곁에 앉아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서울 반야사 주지〉

불교와 유교, 기독교는 같은 가르침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㉕ 금강경 17분

금강경 17분에 부처님께서 "일체법(一切法)이 무아(無我) 무인(無人) 무중생(無衆生) 무수자(無壽者)라"하신 말씀을 타력 신앙종교의 가르침처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거나 지었다면 사람들은 이는 당연히 내가 소유한 내 집이라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잘 실천하여 아상이 없어진 사람은 자신이 사는 집을 내 집이 아닌 부처님의 집이요, 부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집으로 여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힘써 번 돈을 으레 내 돈이라 생각하지만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내 돈이 아니요, 부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놓은 돈으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쓸 때도 돈의 주인이신 부처님께 여쭈어 승낙을 얻은 연후에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이란 마음 밖의 형상이 있는 부처님이 아닌 마음속의 부처님, 즉 '참나'를 의미하며, 기독교인이 말하는 '하나님', 유교에서 말하는 '하늘'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게 마련해서 살고 있는 이 집은 당연히 내 집이며,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이라 생각하고 이해타산에 따라 팔려 하지만, 그렇게 내 마음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강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자신은 주인이 아니고 단순히 관리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부처님(또는 잠재의식)의 목소리를 들어 승낙을 얻은 후에 팔려 합니다. 지공무사(至公無私)하신 부처님께서 집을 팔라고 승낙하시는 응답을 받은 경우, 반드시 부동산은 팔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말씀도 없으신 부처님의 승낙을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것을 간절히 부처님께 바칠 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명확한 느낌으로, 또는 선명한 꿈으로 응답을 표시하십니다. 또는 존경하는 스님의 모습이 되어 말씀하기도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은 집을 팔고 싶을 때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을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집이 팔리면 내 기도의 힘이라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고 할 것입니다. 보통 불자들은 집을 판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을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경 공부로 자력과 타력이 다르지 않음을 아는 불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을 불자들과 다르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妻), 자식 하면 내 처, 내 자식으로 여겨 그들을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강경을 공부한 사람은 내 처, 내 자식이라 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부처님께서(잠재의식이) 보내주신 인연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설사 원수 같은 처자식이라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내 진심(嗔心) 닦으라고 보내주셨구나 하며 감사히 맞이합니다.

주인이신 부처님께 일단 여쭈며 주인이신 부처님의 응답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무아(無我) 무인(無人) 무중생(無衆生) 무수자(無壽者)를 제대로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밝아지는 길입니다. 또한 무능을 능력으로, 무지를 지혜로 바꾸는 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사지(四智)와 유식삼성(唯識三性)

우리가 금생에 사지(四智)를 체득해 생사고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잡이가 생활속에서 성취할 수 있는 활구참선법인 간화선 '이 뭣고' 이다.

전의(轉依)로 얻은 네 가지 청정한 지혜를 사지라 하는데, 전의는 번뇌에 오염된 여덟가지 마음 작용을 청정한 상태로 변혁시킨다는 뜻이다. 전의는 불가사의한 전식득지(轉識得智)로서 자신의 존재기반 자체를 허망한 상태(변계소집성)로부터 '이 뭣고'를 수행함으로써 원성실성으로 변형시켜 완전한 불지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온갖 분별이 끊겨 마음도 대상도 없기 때문에 이분법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스스로 체득한 내면의 깨달음이다.

전오식(前五識)을 질적으로 변혁시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을 모두 성취하는 성소작지로 바꾸고, 제육식(第六識)은 모든 현상을 잘 관찰하고 자유자재로 가르침을 설해 중생의 의심을 끊어주는 묘관찰지로, 제칠말나식은 사번뇌가 소멸됨으로써 자타의 평등함을 깨달아 대자비심을 일으키는 평등성지를 얻고, 제팔 아뢰야식은 모든 종자가 소멸돼 마치 온갖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내는 크고 맑은 거울 같은 청정한 무분별지인 대원경지 성취를 말하고, 마음이 없어 생각하거나 헤아리지 않으니, 이는 출세간의 지혜가 된다.

그러나 지식으로 쌓인 중생의 인격은 한 생각으로 인(因)하여 전생의 인과에 의해서 아뢰야식(장식)에 쌓아 놓은 업식을 따르기 때문에 사회 저명인사나 대통령의 인격도 양면성이 있어 하천(下賤)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전의는 불가사의한 전식득지로서 자신의 존재기반 자체를 허망한 상태(변계소집성)로부터 '이 뭣고'를 수행함으로써 원성실성으로 변형해 완전한 불지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변계소집성(遍計所集性)은 식(識)의 실성인 의타기성(유식성)을 알지 못하는 무명(無明)으로 인해 발생한다. 말나식은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배우기 전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아(我)와 법(法)이 실재가 아니라 바로 심층에 있는 아뢰야식의 발현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고, 거짓 자아와 대상에 분별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다.

저녁 무렵 길 위에 놓여 있는 짚으로 꼰 새끼줄 한토막을 뱀으로 착각하는데, 중생이 무지해서 갖가지 대상에 집착하므로 생긴다. 깨달은 사람의 지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지만 범부의 식은 주객 대립의 인식상황 속에서 선입견으로 착각하여 본다.

의타기성(依他起性)은 우리가 착각하는 그 새끼줄은 다른 것과 서로 연기에 의한 상입, 상즉의 관계이다. 상입이란 사물이 서로 융합하는 것이고, 상즉은 곁으로 보기에는 별개의 사물 같지만, 그 본체는 하나라는 것이다. 즉 종이는 펄프에서, 펄프는 나무에서, 나무는 흙과 물과 공기와 태양 등 수많은 요소의 인과 연으로 또 사람들의 손과 기계를 거쳐 만들어진다. 곧 상즉, 상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들꽃이 둘이 아닌 곧 우주 그 자체인 것이다.

원성실성(圓成實性)은 위 두 가지를 멀리 떠난 성품이며, 모든 현상의 긍극적인 이치이고 또한 진여이다. 불변하고 분별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공서 나타나는 원만한 성취가 모든 법의 참다운 성품이므로 원성실성이라 하며, 이 두 가지 공을 통해 드러나는 진여를 그 자성으로 삼는다. 그 깨달음을 성취해 금생에 생사 해탈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생활속에서 '이 뭣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오직 선택받은 스님께만 행운이 돌아갑니다... 지금 바로 예약 하십시오!!

법당의 구형 음향설비를 「300만원대」의 최고급 엠프 설비로 160만원에 보시!!

(제공 : 800W(USB)엠프+450W 스피커2개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사용중인 엠프 스피커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법당 엠프설치비 가격표

•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헤드셋 1조)
C형 : 158만원 (B형 + CD 1대)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이스)
•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800W 믹싱포함 일절)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고급헤드셋 포함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초고성능 마이크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임 | 원

대 승 정 : 성광당 경보 대종사
원로원장 : 무명당 월곡 종회의장 : 대진당 혜월 승가원장 : 고암당 정인

▶각교구원장◀

서울교구 : 법룡 부산교구 : 무비 대구교구 : 지광 인천교구 : 혜초 대전교구 : 정수
창원교구 : 정우 경기교구 : 연봉 충북교구 : 심공 충남교구 : 능원 전북교구 : 진원
경북1교구 : 서암 경북2교구 : 대현 경남교구 : 혜묵

■ 문의 : 입종문의 안내(입종 구비서류 및 발급 증명서)
☎ 053) 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한국불자 신심 느껴… 三藏 깊이 공부하길”

[특별인터뷰]

티베트 스승 ‘롭상 도르제 린뽀체’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라마를 필두로 전 세계 곳곳에 티베트 불교가 전해지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티베트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기기라도 하듯 ‘샤르빠 최제 롭상 도르제 린뽀체(82)’가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중 하나인 겔룩파의 최고위 법계인 ‘샤르빠 최제’를 맡은 롭상 도르제 린뽀체는 오는 2021년 한국불교의 종정 개념인 ‘간댄티빠’에 오를 예정이다.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법회가 예정된 바쁜 일정 가운데, 부산시 서구에 위치한 한국티베트불교사원 광성사에서 특별히 린뽀체를 만나 인터뷰했다.

어떤 계기로 한국에 오게 되셨습니까? 또 소감은 어떠신지요?

원래는 대만 불교단체의 초청으로 8월까지 대만에 머무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제자인 소남 스님(광성사 주지)이 오랫동안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한 요청이 있었기에 그에 따라 잠시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대만의 여름은 너무나 덥고 습해 조금 불편했는데 한국에 오니 날도 크게 덥지 않고 아주 편안합니다.

한국 방문은 처음입니다만 많은 사찰을 순례하고, 불자들을 만나보니 과연 오랜 역사 속에서 불교가 잘 뿌리내린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자들도 신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신행에 열심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근래에 한국에도 티베트 불교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린뽀체께서 생각하시기에 티베트 불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국과 중국불교에서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삼귀의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티베트에서는 스승을 포함해 사귀의를 강조하는데요. 이를 두고 오해해서 일각에서는 티베트불교를 라마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올바른 불교가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티베트 불교에서는 바라밀승인 현교와 금강승인 밀교가 같이 전해집니다. 특히 금강승에서는 스승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밀교적인 차원에서 스승을 부처님과 같이 모시는 것이지 라마교라든지, 불교를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스승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입멸하셨기에 우리는 눈 밝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불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미 한국불자들께서는 열심히 정진 중이시기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신앙적으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경을 외는 것은 마치 음식의 맛을 잘 모르고 먹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공부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교리에 대해 배우고 이해해 수행하면 불자로서 불교의 진정한 맛을 알고, 수행과 교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경율론 삼장에 있습니다. 율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히 지켜야합니다. 그러나 경과 논은 깊이 분석하고 사고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지어 부처님께서도 “나의 가르침을 잘 분석하고서 따라야지, 나에 대한 신심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 해도 살피고 분석해 취사하는 것이 불교의 특징입니다.

또 이번 생에 집착하면 불교를 수행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생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정진해야 합니다. 윤회에 들어있는 이상 우리는 이 생이 짧고 무상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학에 대한 수학과 수행에 대한 정진이 함께 간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더 발전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롭상 도르제 린뽀체 약력

1937. 동부 티베트 캄 지방의 마르캄에서 출생
1954. 17세에 티베트의 수도인 라싸 데뿡사원으로 출가
1959. 인도 망명 후 당대 최고의 스승들께 사사, 달라이라마의 스승인 링 린뽀체를 계사로 구족계 수지
1979. 겔룩파의 최고 학위인 게쎄 하람빠(불교학 박사) 수석졸업
1985. 규뙤사원 밀교강원에서 밀교 수학
1993. 규뙤사원 호법소임 역임
1996. 달라이라마로부터 동 사원의 방장으로 임명
2016. 겔룩파 법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샤르빠 최제’에 임명

빛고을 환경운동 10년 “앞으로 더 많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창립 10주년 기념음악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7월 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10주년 기념음악회 ‘맑고 향기로운 노래이야기’를 개최했다. 음악회서는 정율 스님, 심진 스님, 도신 스님, 정목 스님을 비롯해 나무숲어린이연희단, 무지개선율, 한마음선원합창단, 빛고을콰이어합창단이 등이 출연해 불교음악의 진수를 펼쳐 행사장을 찾은 1,600여 관중을 사로잡았다.

사회는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맡았으며, 첫 무대는 정율 스님이 ‘천의 손, 천의 눈, 해탈’ 등의 잔잔한 곡을 들려주며 문을 열었다. 이어 힐링멘토 정목 스님의 ‘생명과 환경 이야기’가 대중의 마음을 일깨웠다.



기념음악회 출연진들이 무대에서 함께 합창하며 환경연대 10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산사음악회에서 천진불들의 무대는 더욱 특별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어린이중창단 무지개선율은 이번 행사 의미를 담고 있는 ‘빛고을 염불나라’ ‘지구를 내 손으로’ 등을 불렀으며, 나무숲어린이연희단은 ‘108배 율동’으로 흥을 돋웠다. 아울러 명상 음악으로 사랑받는 심진 스님과 도신 스님은 수행의 노래를 표현한 음악을 들려줬다.

행사의 마지막 무대는 한마음선원합창단과 빛고을콰이어합창단이 ‘꽃을 바치나이다’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를 하모니로 선보였으며, 출연자 전원이 ‘아미타불 나의 님’을 합창하면서 무대를 마무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몽골 장벽 넘어 화합을”

대구 동대사, 몽골 전통 나담축제 열어

천태종 대구 동대사(주지 도산)는 7월 8일 경내 잔디광장에서 몽골의 대표적 민속축제인 ‘나담축제’가 열렸다. 나담축제에는 몽골출신 이주근로자와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300여 명이 모여 자국의 전통축제를 즐겼다. 이들은 몽골의 씨름인 ‘부흐’를 비롯해 활쏘기, 팔씨름, 줄다리기 등 몽골 전통 스포츠를 시연하고, 전통음악과 음식으로 향수를 달랬다.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은 “동대사가 대구시민과 몽골인들의 화합을 위한 나눔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인사를 했다.

한편 나담축제는 매년 7월 몽골에서 치러지는 전통축제로 대구마하이주민센터와 대구몽골인친선협회가 201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강원도 ‘여행상품 개발’ 협약

월정사-코레일 청량리역 MOU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는 7월 4일 코레일 청량리역(역장 김명철)과 업무협약을 맺고, KTX 강릉선 개통 이후 증가하는 지역 방문객 수요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정사와 청량리역은 여행상품을 개발·진행하고, KTX를 이용해 방문하는 승객들에게 문화재관람료 및 템플스테이 참가비 할인, 홍보 포스터 설치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 로스엔젤레스 후원의 밤

자광 스님 2천만원 등 5억원 모금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자광)는 7월 11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동국대 로스엔젤레스(DULA)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DULA는 1979년 설립 후 1997년 동국대가 인수했다. 이날 이승덕 DULA 총장이 △한국식 한의학 치료구현을 통한 불교 전파 등 비전을 발표했으며, 자광 스님 2000만원 희사를 비롯해 총 4억9700만원이 모연됐다.

신성민 기자

양양 보리암, 지장대불 점안

7월 1일, 사부대중 500여 명 참석



대한불교 광선조계종(총무원장 법광)은 7월 1일 본산 양양 보리암에서 지장대불 점안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1부 점안식에 이어 2부 합창단 축가, 공로자 감사패 수여식 등이 진행됐으며,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장 회암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3부 산사음악회로 마무리됐다. 윤호섭 기자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지 사 명	지사장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51)405-9402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사랑의 집 입주식에서 스님들과 관계자들이 기념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

“어르신 새 보금자리서 행복을…”

진안 탑사 · 쌍봉사, ‘사랑의 보금자리’ 동참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가 화재로 집을 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주택마련에 적극 동참했다.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7월 11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진안군 백운면 박완규씨 집에서 사랑의 집 입주식을 개최했다.

진성 스님과 보경 스님은 지난 1월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해 주택이 전소돼 임시로 마을회관에 거주하고 있는 진안군 백운면 박완규 어르신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얻어 15평 규모의 주택건립에 동참했다.

이날 입주식에는 진성 스님, 보경 스님, 진안 광명사 송운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이항로 진안군수,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봉사활동에 동참한 진안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고통 받고 있다는 소식에 건축 자재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박완규 어르신이 흡족해 하시는 거 같아 한결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보경 스님은 “평소에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던 중 딱한 사정을 듣고 신도들과 함께 싱크대 등 생활집기를 지원했다”며 “작은 나눔활동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평소에도 자비의 쌀 나눔, 사랑의 연탄 나눔, 고추장 나눔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장보고 숨결 찾아 떠난 ‘섬 아이들’

장보고아카데미, 중국서 장보고 유적 탐방

완도 섬 아이들을 위한 장보고 문화답사가 이뤄졌다.

완도 신흥사(주지 법공)가 운영하는 (사)장보고아카데미는 7월 7~10일 완도지역 섬 아이들 28명을 포함해 지도교사 등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 산동성 위해 · 석도 · 연태지역의 장보고 대사 유적지를 답사했다.〈사진〉



석도에는 장보고 대사가 창건한 적산법화원을 비롯해 옛 신라인들의 거주지인 신라원 등 다양한 장보고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답사단은 방문기간 중 적산법화원을 방문해 주지 스님을 예방하고, 경내에서 ‘장보고 문예대회’를 개최해 장보고 대사의 업적과 생애 등을 그림과 글, 시로 표현하는 시간을 보냈다.

지도법사로 동참한 지성 스님(신흥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은 “완도의 어린 친구들에게 장보고 대사의 업적과 웅대한 뜻을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문화답사가 섬 아이들에게 미래의 큰 꿈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답사에 참여한 강경민(초등 6년) 군은 “무엇보다 완도 출신의 위대한 인물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장보고 대사처럼 세계에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답사단은 법화원 이외에도 성산두, 야생동물원, 갑오전쟁박물관, 해양세계 아쿠아리룸, 봉래각 등을 탐방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 茶香, 세계를 감동시키자”

향기로운문화동맹,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조직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문화와 불교로 행복을 전하는 도량 부산 청량사가 국제 차문화 교류에 앞장서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은 7월 6일 부산 기장 청량사 경내 마당에서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발대식’ 및 보혜 스님의 시집 〈마음을 보았는가〉 봉정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청량선문화원의 헌다 ‘천처(淺處)’를 시작으로 보혜 스님의 시집 〈마음을 보았는가〉 봉정식이 진행됐다. 아울러 기장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 정영자 한국문인협회 고문, 김대철 한국여천문화원장의 격려사와 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특히 향기로운문화동행에서 운영하는 청량사 찻집 ‘동행’ 수익금과 향기로운문화동행 후원가게 달맞이 빵집에서 마련한 장학금을 조은별(신진초 · 5) 외 3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사장 보혜 스님은 한국 차 위상을 위해 국제 교류사업을 활발히 할 것을 다짐하며 최원형 부산차문화교류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조현미 바이올리니스트, 고충진 기타리스트, 국악클럽 탈의 공연이 무대를 장식했다.

이사장 보혜 스님은 “앞으로 국제 교류를 통해 한국 차의 위상을 올리고 또, 출발을 널리 알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저희 향기로운문화동행의 행보를 지켜 봐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7월 6일 부산 청량사서 발대
중국 · 일본 등과 차문화 교류
인재불사 위한 장학금 후원도
초등학생 등 4人 총 200만원

부산차문화교류회 발대식에는 이사장 보혜 스님, 기장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과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 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장, 향기로운문화동행 김순애 운영위원장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향기로운문화동행은 불교문화 발전과 예술인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3월 창단됐다. 향기로운문화동행은 현재 시인이자 이사장인 보혜 스님을 주축으로 음악가, 문학 소설가 및 시인, 다인 등 부산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함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발족을 통해 국제 차(茶) 교류 활동을 펼치고 다인 후원 및 교육활동도 폭넓게 확장한다는 목표로 운영된다. 아울러 중국 및 일본과 함께 세계 차 문화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향기로운문화동행은 기장차문화대학 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9월 5일이며 수강 내용은 기초 잎차 및 말차 등 생활 다법과 예절 및 헌다를 포함해 전문분야 인문학 강의도 진행된다. 강의는 청량사에서 진행된다.

기장차문화대학은 시낭송 · 문학창작, 선차발우명상, 6대 다류 시음회 지도자 과정 등 차 · 문학 관련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또 매년 달빛차 음악회, 백일장 및 시낭송대회, 차문화 축제 등을 연다. 지난 1기와 2기에서는 기장경찰서 경찰과 소방관에게 차와 명상을 지도한 바 있다. (051)723-1851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발대식을 7월 6일 부산 기장 청량사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청량선문화원이 발대식을 축하하며 헌다를 진행하는 모습.

‘담마’ 전하기 위해 한국어 배워요

동명대 한국어 강좌에 미얀마 스님들 ‘눈길’

부산 동명대 국제교류원 한국어학당에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찾아온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얀마에서 온 판야르바라, 네민다, 루파산디, 이수바티 스님은 한국 전통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고, 동명대(총장 정홍섭)에서 한국어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스님들은 6월 4일부터 3개월간 월~금 하루 4시간씩 수업을 받는 중이다. 이 스님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오직 불법 홍포를 위해서다.

이수바티 스님은 “다르마(부처님 법)를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한국어 공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한국 불교의 여러 내용도 함께 공부해 차이점을 익히고 알아 소통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동명대에서는 미얀마 스님의 한국어 수업을 위해 특별 강의를 개설,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중락 동명대 국제교류원장은 “기존 한국어 수업보다 스님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학교에서는 경제적으론 손해지만 스님들에게 좋은 강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한 달가량 수업을 진행했는데 스님들의 한국어 실력이 크게 성장했다. 앞으로 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명대는 지난 7월 5일부터 17일까지 캄보디아 씨엠립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동명대는 베사반 초등학교 놀이터 보수와 크나트 초등학교 놀이터 설치 기증 및 개장식을 개최했다. 아울러 교육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구호물품을 기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얀마에서 온 스님들이 동명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

“경봉 스님의 선풍 후학들이 이을 것”

경봉 스님 열반 36주기 다례재

한국 근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사, 경봉 스님의 열반 36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경봉문도회(대표 법산)는 7월 10일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대종사 36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주지 영배 스님, 경봉문도회 대표 법산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문도대표 법산 스님은 “36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스님의 법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수행정진 해 승풍을 진작하고 깨달음을 얻어 훌륭한 수행자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봉장학회는 동국대, 중앙승가대 스님 40명에게 장학금 3600만원과 극락암 호국선원, 보광선원, 서운암 무위선원과 영축율학승가대학원에 수행지원금 및 연구비 800만원을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그대 스스로 힘써 나아가야 하리. 여래는 다만 길잡이일 뿐이 길을 닦아 나아가는 자 마(魔)의 속박에서 결정코 벗어나리라.

– 법구경 –



관상(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기도와명상

"신간 책 소개!"
기도와명상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국서점 구입!
책이름검색 손재찬선사 북갤러리 인터넷 구입!



모든불교인의 '필독서'입니다
문의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천기누설 운

"엄청난 책내용"
천기누설
검색!!
운
토굴기도실와
운명점술학박사1호 손도사봉



책제목 검색 후 인터넷 구입
문의010-5105-5000

풍수지리 신통력

음택명당 이장하는데 해무리, 무지개 3시간 1년에 30회 뜹니다

무지개 스님

010-4413-3377

인생상담

능력있는 비구,비구니부전스님 및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421-0730

동이민간의술학회

당뇨, 간질환(특효), 오십견, 어깨, 팔다리, 저리고 아픈 증상 방문해주시면
무료 치유 봉사 해드립니다

심복사 지덕 합장

010-5758-8689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산로 263-46 (북가현리 8-1)

불광(佛光)에너지 체험

관세음보살 · 약왕보살 가피받는 비법 전수, 건강회복, 운명(팔자)바뀜

블로그에서「묘진사」검색

053-652-2714
010-9616-2477

묘진사 (대구 내당동 소재)

모 집 안 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명 상 (무료)

"누구나"

T.1588-5654

화 태 명 상 원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3길 31
전철 2호선 홍대역 2번출구

기도의 신 대주스님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수리 비술
- 수리의 비밀과 의미를 알려 드립니다.
- 손 하나만으로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전 후의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운세 작법
- 명리나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교육학 박사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七星 철학 命理 學堂

※실전통변술 해법(命理學神通術)
※실 전 반 모 집(1:1 맞춤 직강)

∵ 칠성사 부설 칠성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뱀내장터로 21(신천역)

☎ 031-315-4684
010-8427-6199

한국 민간 요법 연구소

전립선 도움

내성이나 항체가 강하면 연고 2개를 쓰시고, 약하신 분은 1개를 쓰세요.

한달 분 가격 55만원

비염 치료

25일 사용
70 ~ 80% 치료 효과

가격 40만원

010-9523-3338

농협 421019-58-009257 (이광주)
※ 37년간 연구 했음

정법수행에 적합한 토굴을 구합니다

산속이나 한적한 곳이면 되고
물이 가까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임대 또는 싼값으로 양도도 가능합니다.
좋은 인연을 기다리겠습니다

010-7678-5536

대한불교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010-7344-1881

청정한 제주에서 기도하며 함께 살아갈 비구스님 모십니다

010-3516-6375

(문자로 남겨주세요)

친환경 삼베타올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기도 하실 분 수행 하실 분 요양 하실 분

청풍호반 성불사(법계선원)

043-644-4366
010-5485-4080

명예박사학위취득 필요한분상담환영

(미국령, 대학교)

1.정치외교학 2.경제학
3.문화예술학 4.철합,문학
5.종교학 6.체육학
7.대체의학

상담:070-8844-20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한마음선원 문경지원에서 공양주를 모십니다

월(백삼십만원)

010-9373-3778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3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자제하라. 방일하지 말라.
선행의 원리를 실천하라.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진리의 행자는 편히 잠든다.

– 법구경 –



양평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한옥 법당. 요사채. 토지 1,200㎡
- 주변 산사찰. 기도 도량. 전망 좋음.
- 양도 : 2억 8천만원(토지값정도로) (위치 알려드리지 않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 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시 치악산 자락
- 대지 : 900평
- 건물 : 대웅전 28평 (전통 목조)
- 요사채 2동, 산신각(4평) (각 3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010-4028-88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논산 사찰(급)안내
- 마을기도도량.토지 400㎡
- 목조 한옥 법당.요사채. 삼성각
- 운영잘됨. 위치좋음. 건물4동
- 스님사정으로 타지방 불사
- 양도가액 : 1억2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구입의사 있으신 스님만 모심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정릉유원지 근처
- 대지 : 734평(국유지)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상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010-3700-1893
02)911-924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수도권
◎ 대지 : 14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 40평
◎ 양도가 : 12억 3천
◎ 위치 : 서울 북한산
◎ 부지 : 100평사용
◎ 인법당 : 약 60평
◎ 산속, 무허가 건물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 대지 : 254평, 하천부지 330평 총 58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관음전, 공양간, 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010-2041-8182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전농성동 5거리) 경열로 45번길 10
- 2층 건물(1~2층) 전체 약 30평
- 법당, 방5개, 화장실 1,2층 각각 창고
- 가액: 보증금 5백만원(월세 3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급한인연으로 몸만오시면 됨

010-3102-5102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 대지 108평, 건평 104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각 52평
- 서울 시내 공원 입구 가족테마공원 개발 서울시 허가득 상태
- 가액 : 시설 포함 11억 3천

010-3124-3952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동대동 천변
- 신축 건물 2층 40여평 트인 전망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010-5438-013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읍내 거리 5분
- 부지 : 약 1,700평. 가액 : 14억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돌탑 높이 9m30 둘레 13m 돌탑 108개, 요사체 2동 정자각 1동,심야전기보일러 태양광열 설치,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문의 : 033-562-044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찰,학원 어린이집 부지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큰길 옆 산자락
- 5천세대 자이 2차 아파트 단지내 자명요양병원 입구
- 평수 : 256평
- 가액 : 5억

010-3173-51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문의처 010-2607-7114

도심 별장 같은 사찰
- 위치: 시청 5분, 김해공항 10분 거리
- 토지 : 270여평,주차장 완비
- 법당,산신각,종각,용왕당,종무소 주지실, 요사채(방 3) 30평
- 돗대산, 주변 1500세대 아파트
- 가액 : 평당 280만원 (은행 2억1천 안고)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15년 기반 포교원안내
- 위치: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대전역 인접
- 제반시설 : 법당, 주방, 상담실, 방 3개, 60평
- 2층 건물, 옥상 60평 사용
- 초기설비 : 3000만원
- 보증금 1000만,월세50만원
- 통화 희망시간 : 오시, 6시 이후

010-3452-11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몽땅 : 1억 1천만원

010-8861-1785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6억(융자 5억 5천 안고 11억)

010-9567-081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5번출구에서 5분거리
- 평수 : 2층 상가건물 약30평
- 교통 위치 좋음
- 보증금 1000만원,월50만원 시설비일체 1000만원 (가격절충)

010-8887-9894

임법당 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소백산 앞 개울끼고 공기 좋은 곳,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 원함
- 불기일체,집기일부,수도,전기,보일러 유
- 벽돌연와 건물 35평, 텃밭, 대형주차 총 평수 714평
- 스님 사정으로 양도. 2억2천

주인직 : 010-4747-3468
낮 12시 이후 4시전 통화가능

토 지 안 내
- 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단산윗길 264 지리산 보현사 근처
- 3800여평
- 평당 약 23만원
- 종교시설, 복지시설, 개인주택 및 농가 모두 가능

010-5393-3689
보현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동울산 시장 옆
- 2층 50평
- 칠보 삼존불, 천수천안, 호신불 617불 등 320등
- 원목3단 수미단,신중단,영단
- 주택,아파트,상가,시장,인구밀접지역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 전화주시면 법당 사진 보내드립니다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6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8424-0042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 땅 1,700평, 건물 5동 130평
- 선방을 할 수 있는 명당자리 입니다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3882-8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
- 82,000평
- 양도 가능합니다

010-2913-7963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2,500만원
- 22년 포교중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관이 수려한 고찰로써 수행하기 좋은곳
- 대지 1,80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황토) 창고
- 주차시설 아주 좋음
- 확인 후 절충가능

주지직 010-7918-7328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변두리 마을 위 산밑 사찰
- 대지 : 420여평
- 건물 : 극락전 목조 30평, 요사60평, 30평, 창고 3개
- 법당,후원 모든 기물은 인계함
- 가액 : 10억 5,000만원
- 사정상 양도함

010-5141-53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대로변
- 4층 건물 4층 약 80평 (엘레베이터)
- 시설 : A급
- 구조 : 법당, 방사1, 상담실, 주방, 화장실
- 가액: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방문 후에 상호 결정

010-2270-6611

토 굴 안 내
- 위치 : 신림 IC 15분
- 넓은 주차장에서 바로 산으로 연결
-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환상적인 전망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대지 639평, 건평 60평
- 방3, 화장실3, 심야전기, 매우 따듯, 마을 상수도
- 가액 : 4억 2천

010-6399-337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대사동
- 평수 : 40평
- 방 2개, 법당, 주방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삼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 몸만오셔도 법회 바로 가능
- 스님, 법사님, 보살님

010-8651-3568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 아파트 대단지 4만5천세대 부근
- 가액: 3억 5천만원

010-5019-5385

금정산 전통 사찰
- 위치 : 부산외대 뒷산 고찰
- 법당,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 산림도 접, 600여평 점유
- 등산로, 샘물 식수 명당
- 짚차 4WD 올라감
- 가액 : 2억 5천만원

주지 010-3585-0200
010-9906-3631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 격 : ~~10만원~~ ▶ 90,000원
주 문 : 02)2004-8216
입 금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연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CD08-제15. 종지용출품(21:13)
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사 찰 안 내
- 호미곶 대보리 최고요지
- 대지 : 약 200평
- 2층건물 옥상 해수관음 설치 7자
- 바다 조망권 최상
- 태양광 설치, 전기 절약
- 업자 펜션 전용가능
- 몽땅 : 4억 3천
- 비구니스님 적격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선산에 법당 건립 관계로..

010-7441-2345

사 찰 안 내
- 위치 : 함양군 마천면
- 작은 암자터 계획 관리지역 360평
- 측량, 배수공사 완료, 토목 공사 진행중
- 소임자리 관계로 급양도
- 가액 : 상담후 결정

010-4162-290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용학로)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입구17년째 운영
- 평수 : 40평, 3층 옥상 사용 사무실, 스님방
- 법당 : 삼존불, 시설 원만,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1000만원, 월40만원,에어컨 완비
- 시설비 1000만원, 가격 절충 가능

010-7536-2588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353-20 외
- 대지 약 380평, 전290평
- 전통한옥ㄱ자형, 본채, 별채 (2채 약70평,부속건물포함)
- 준공일 : 2012년 12월
- 가액 : 8억 5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0-7449-29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읍
- 건물 : 법당 삼성각준문화제동기와
- 공양실, 요사체, 5층석탑
- 평수 : 8백평
- 가액 : 4억
- 요양원,실버타운,납골당, 묘지조성(수목장)

010-5224-0399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지하철 신평역 3분거리
- 1천세대아파트 상가내 반지층
- 면적 : 170평(법당 60평,방 5칸,주방 큼)
-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법당
- 주위에 5천세대 대규모 아파트단지
- 바로 법회가능(모든조건, 시설 완비)
- 주차 무제한 가능, 휠체어 출입 가능
- 비품, 집기, 시설일체 포함된 금액임
- 가액: 대출 9천안고 1억 7천(이전등기)

010-4270-339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매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단독 주택 약 50평
- 법당, 방 3, 화장실 2
- 법당(아미타 삼존불), 청동불(3자)
- 보증금 1천500만원, 월30만
- 시설비 : 청동불 인수 포함 2천만원

010-9735-80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547-4990

오늘도 '#불(佛)스타그램' 하세요

SNS로 사진 · 영상 전문 포교하는 日사찰 '주목'

박정현 객원기자

SNS 인기가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옮겨가자 일본 불교계도 온라인 포교 방법에 변화를 주는 모양새다. 페이스북이 '글+사진+영상'이 혼합된 형태의 콘텐츠가 적극 활용됐다면, 인스타그램 · 유튜브는 보다 전문적으로 사진 · 영상 콘텐츠에 집중하는 추세다.

일본 언론 아사히신문은 7월 5일 SNS 계정을 통해 온라인 포교를 실시, 많은 팔로워를 확보한 일본 간사이 지역의 유명 사찰들을 소개했다. 해당 사찰들은 인스타그램 · 유튜브를 통한 SNS 포교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사시사철 변화하는 사찰의 풍경과 법회, 설법 등을 전문적인 사진 및 비디오로 적극 홍보하는 것.

교토에 위치한 정토종 본사 치오닌사(Chionin)는 올 4월 초부터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3년 전 페이스북을 시작한 치오닌사는 젊은 불자들의 관심이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가자 즉각 이를 포교에 반영했다. 스님들은 동 트는 사원의 모습, 또는 사찰 보유 국보급 문화재 등을 사진으로 게재했다.

이케 구치 류호 스님은 "인스타그램 포교는 (절에서)불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직접 나서 절을 홍보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한 불교 관련 협회 사이코쿠 산 주산쇼 후다쇼카이(Saigoku San Jusan-sho Fudashokai)는 33개 사찰을 홍보하기 위한 인스타그램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 협회는 나라 현에 위치한 하스데라사(Hasedera), 싱가 현에 위치한 이시야마데라사 외 31개 관음 사찰로 구성된다. 일본 서부의 사이코쿠 산 주산쇼로 불리는 고대 순례길에 위치해 있다.

작가와 계약… 경내 사진 게시
유튜브로 가상현실 영상 포교도
팔로워 16만명 보유한 사찰 등
새로운 포교방법으로 각광받아

협회는 각 사찰 특유의 풍경을 사진으로 홍보할 뿐 아니라 순례자들을 위해 곳곳의 포토 스팟(photo spots)도 추천한다. 33개 사찰 중 교토의 로카쿠도사에서 근무하는 종무원 료기 타나카(51)씨는 "방문객들이 천천히 넓은 경내를 돌아보며 (우리가 추천한)명소에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 등 SNS에 널리 알려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보다 전문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작가와 계약을 맺은 사찰도 있다. 교토에 위치한 키요미즈데라사는 작가 카즈야 수도(37) 씨가 찍은 사원의 모습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한다. 키요미즈데라사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약 400장의 사진을 게시, 16만7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2016년에는 해당 사진들을 모아 사진집을 출판하기도 했다.



전문 사진작가 카즈야 수도가 촬영한 키요즈미데라사(寺)의 모습. 키요즈미데라사는 전문 작가를 고용해 경내 모습을 촬영,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있다. 사진출처=아사히신문

키요미즈데라사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를 맡고 있는 오이니 오니시(40) 스님은 사찰에서 나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이 불자들이 더욱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한다. 현대인들은 풍경이 좋은 곳에 가면 사진을 찍기 바쁜데 이 역할을 사찰이 대신한다는 것.

"불자들이 절에 방문하면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직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림으로써 불자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기도를 위한 순간에 몰입하길 바랍니다."

한편 또 다른 사찰은 유튜브를 통한 영상 포교에 집중하고 있다.

엔랴쿠지사에 본부를 둔 시가 현의 텐다이 불교 학교는 지난해 11월 유튜브에 12분 분량의 VR(가상현실)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가부키 배우 이치카와 이노 노스케가 가이드로 출연, 사원 내 8개 스팟을 소개한다. 이는 1만7000번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키센 호시노 텐다이 학교 교장은 "사람들이 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자는)점점 줄어들 것"이라며 "SNS 및 영상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사용해 적극적으로 온라인 포교 전략을 구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사찰 공양물, 이웃에게 회향합니다"

일본 모임 '절 반찬 클럽'
소외이웃 돕고자 캠페인

절에 들어온 공양물을 다시 이웃에게 베푸는 모임이 있어 화제다.

지난 7월 4일 일본 '후쿠이신문'은 이 특별한 보시행을 실천하는 '절 반찬 클럽(おてらおやつクラブ)'을 특별히 소개했다.

2014년 나라현 안요지(安養寺)의 주지, 마츠시마 세이로(43) 스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지금까지 일본 전국에 874개소의 사찰, 364개의 사회단체가 참가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마츠시마 스님은 "사찰이란 무엇을 위한 장소인가? 출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에서 아동 6명중 1명은 경제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려는 뜻에서 시작했다"며 활동의 계기를 설명했다.




이웃들과 나누기전 법당에 쌓여있는 공양물(사진 왼쪽)과 응원메시지 등이 담긴 박스 내용물. 사진출처=절 반찬 클럽 공식홈페이지

처음에는 사찰에 신도들이 공양올린 음식이나 과일 등의 식료품을 지역의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에 전달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마츠시마 스님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내린 음식 등에는 부처님의 가피가 담겼기에 '부처님께 내려 받았다'는 말을 쓴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절에서 다 소비하기 힘든 공양물들을 모아, 신도들이 알음알음으로 어려운 가정을 찾아 전달했다"고 첫 시작을 설명했다.

공양물을 다시 베푼다는 소식을 들은 도반스님들과 다른 사찰들이 참여하면서, 지원활동에 힘이 붙기 시작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결손가정을 돕는 단체와 연계하면서 활동의 폭도 넓어졌고, 전달하는 품목도 일상용품, 도서 등으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활동이 알려지면서 각지에 지부와 설명회가 열렸다. 지난 7월 3일 후쿠이현 죠젠지에서 열린 설명회를 담당한 아사쿠라 츠네노리(42) 씨는 "현내 불교계에서도 '절 반찬 클럽'의 활동에 관심이 뜨겁다. 후쿠이현은 일본에서도 사찰이 특히 많은 현이기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절 반찬 클럽'의 사무국장 카츠라 쵸군(40) 씨는 "지역과의 교류가 늘어나고, 직접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1회라도 좋으니 공양물을 나누는 활동을 하자는 것이 본 활동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찰과 종파 간의 화합,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생겨나는 장이자,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보시행"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성추문' 캐나다 불교지도자, 대중 앞 참회

복수 여성 성추행 혐의로 캐나다 불교계 공분

성추행 혐의를 받은 캐나다 할리팩스 지역의 유명 불교 지도자 사경 미팜 린포체(Shakhong Mipham Rinpoche)가 결국 사과했다. 지난달 미팜이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불교단체의 수사가 시작되는 등 캐나다 불교계의 분노가 빗발친 바 있다.

캐나다 언론 글로벌뉴스는 7월 10일(현지시간) 성추문을 일으킨 미팜이 샴발라 불교 커뮤니티 전역을 휩쓴 '고통, 혼란과 분노'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미팜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나로 인해 불교 공동체가 겪게 된 고통에 큰 책임을 느낀다"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소임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소외감을 느낀 우리 사회 여성들을 비롯한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성찰의 시간 동안 내 언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게 돌아볼 것"이라고 반성했다.

미팜은 할리팩스에 위치한 종교단체 샴발라 불교 커뮤니티의 수장이다. 티베트 불교에 근원한 샴발라 불교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약 200개 명상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큰 서부 불교 운동 중 하나다.


성추문을 일으킨 사경 미팜 린포체(사진 왼쪽)가 대중에게 사과했다. 사진출처=해럴드뉴스

미팜의 성추행 의혹은 샴발라 커뮤니티 회원이었던 안드레아 윈(Andrea Winn)의 폭로로 불거졌다.

안드레아가 공개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익명 여성은 "미팜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적 만족을 충족시킬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 수행원들을 이용했다"고 고발했다. 여성들은 미팜이 수업 또는 행사 동안 여성들의 신분을 파악하고 접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행위를 하기 위해 그의 수행원에게 점찍어둔 여성을 데려올 것을 강요했다는 것. 여성들은 이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현재까지 법정에서 구체적 혐의는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불상 의복으로 만나는 부처님

日, 불상 의복 재현한 패션쇼 강좌 열어

불상과 불화로만 보던 가사와 장엄구를 직접 재현하는 '불상 패션쇼'가 열렸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7월 6일 패션쇼와 강좌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지난달 21일에 도쿄의 중심 요요기의 문화복장학원에서 열린 이 행사는 나라의 코후쿠지(興福) 중금당 재건을 기념해 열리는 도쿄문화강좌의 일환이다. 패션쇼와 함께 '복장으로 배우는 불상의 종류와 형태'라는 주제로 아이치현 예술대학 야마자키 타카노(山崎隆之) 명예교수가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문화복장학원의 학생들은 직접 재현한 색색의 의복과 장엄을 몸에 걸치고 런웨이에 나섰다. 몇몇 의상은 런웨이 위에서 직접 착용하면서 그 구조를 보여주었다. 패션쇼의 테마는 크게 여래 · 보살 · 천신의 세 종류였다.

패션쇼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천신의 의복이었다. 야마자키 교수는 "천신의 의복은 고대 인도 귀족들의 복장을 본따 묘사되었기에 장신구가 화려하고, 가짓수도 많다"고 설명했다. 장신구는 물론, 신발이나 갑옷과 같은 화려한 의복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런웨이에서 직접 옷을 착용하는 모델. 사진출처=아사히신문

패션쇼와 강좌가 끝나고 열린 기념 촬영에서 참석자들이 모델들이 입고 있는 옷들을 직접 만지고 관찰하면서 오랫동안 장사진을 이뤘다.

아마자키 교수는 "얼핏 보면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인도의 전통 의상인 사리(sari)와 같이 큰 천을 몸에 감는 형태"라며 "여래에서 보살, 천신의 순으로 그 의복의 화려함과 구조가 다양해진다. 불교의 수행과 깨달음의 단계를 생각해 볼 때, 여래의 의복이 가장 단순한 것은 그만큼 집착과 탐욕이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 뜻을 설명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 급 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찰신도 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천지운명
건강 120세
대구 법당 이온식 특별 할인 판매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 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 효소(발효) 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가 15만원인데
50% 할인하여 특별 판매 합니다.
₩75,000원
기회는 딱 한 번 많이 주문해주세요!!
연세 많은 분들에게 최고 선물입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 병고에 시달리고 계시는분에게 최고 선물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꼭 필요한 책자

천지운명 건강 120세

1 어떠한 병이라도 민간요법으로 치유할수 있음을 사실 그대로 이 책자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기관지 천식, 심장병, 피부병에 관한 민간요법이 탁월합니다.
3 명절 선물용으로 최고로 실속있는 책자이며, 어느 집이고 꼭 필요한 민간요법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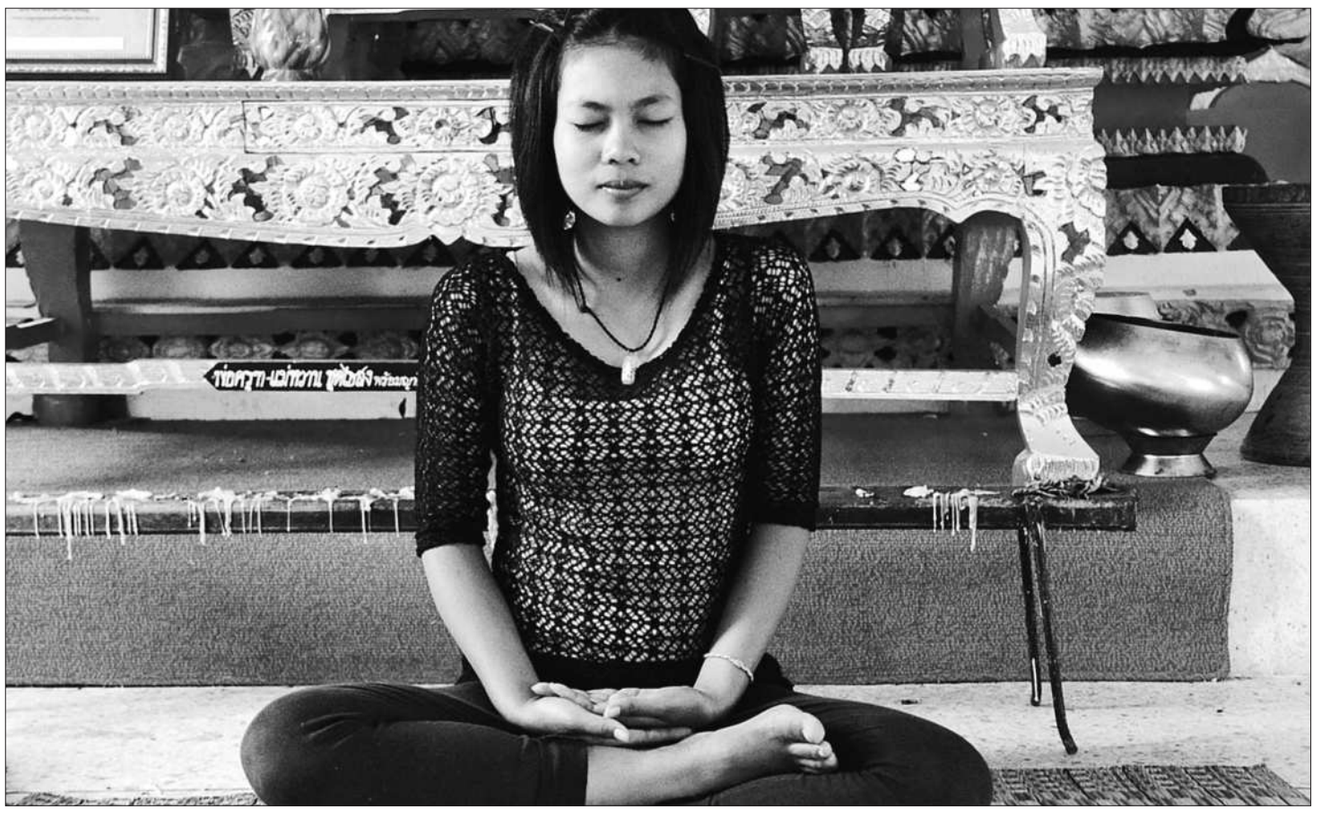
H·P 010-4496-6060,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예금주 : 장지엽)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아잔 브람

〈2〉 숨 (호흡수행 1~4단계)

호흡을 끌어당기지 말고 초대하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감하듯 수행의 가장 커다란 방해꾼은 역시 잡념입니다. 수행하려고 앉아서 잡념만 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저는 잡념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몇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없는 방법도 몇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효과가 없는 방법 중 하나는 잡념에 빠져들면 마음을 호흡으로 가져오고 또 잡념에 빠져들면 마음을 다시 호흡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몇 년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계발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 몹시 지겨워지게 될 것입니다.

불교의 방법은 잡념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근본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며 마음을 호흡으로 다시 가져오기를 무작정 되풀이하는 대신에 잡념이 끝없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새장 안에서 새를 키우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새장의 문을 언제나 닫아놓으면 새는 밖으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장의 문이 열리면 새는 밖으로 날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에게 새장은 감옥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새가 원할 때마다 나갔다 들어올 수 있게 새장의 문을 연 채로 놓아둔다면 어떻겠습니까? 문이 열려 있어도 새장 안에 신선한 곡식, 깨끗한 물, 아름다운 횃대, 그리고 새가 좋아하는 다른 여러 가지 것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 새는 밖으로 나가기보다 새장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행복하고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호흡 수행에 행복감도 없고 평화로움도 없어서 지내기 불편하다면 마음은 다른 곳으로 날아가려 할 것입니다. 호흡에서 벗어나 아무 소용도 없는 계획을 짜기 시작하거나 미래에 대한 망상에 빠져들 것입니다.

새장의 문 열어두기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호흡을 알아차릴 수 없는 이유는 잘못된 태도로 호흡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호흡을 통제하고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호흡은 새장에 갇힌 새의 처지가 됩니다. 기회만 있으면 달아나려 할 것입니다.

새가 원하면 나갈 수 있게 새장의 문을 열어 두십시오. 새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지만 나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애심을 가지고 대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애로운 마음가짐이 수행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 마음은 어떻게든 현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숨을 보라고 하고 이러라고 하고 저러라고 하면 마음은 멀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음이 떠나도록 가방을 챙겨주고 도시락을 싸주든지 아니면 점심 값을 주고 손을 흔들며 배웅을 해주면 됩니다. 자애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하면 마음은 그다지 멀리 가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자마자 곧 돌아올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머무를 것입니다. 새장의 문을 열어두고 아름답게 새장을 가꾸어주면 새가 다시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애로움이 있어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행복감을 느끼면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에 호흡 수행을 할 준비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호흡 초대

마음이 행복감을 느끼고 고요해지면 수행자는 호흡을 안으로 초대합니다. 저는 언제나 초대한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호흡을 움켜잡아서 마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을 초대한다는 것은 호흡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태도로 호흡을 대하면 수행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호흡을 안으로 잡아당기고 호흡이 밖으로 나가면 다시 끌어다놓는 식으로 수행한다면 호흡은 줄곧 달아날 기회만 찾을 것입니다. 호흡을 붙잡고 있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수행하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의지력으로 수행해도 어느 단계까지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지가 강하면 니밋따의 단계까지 나아가서 밝은 빛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장 갇힌 새는 탈출 꿈꾼다
마음도 통제할 때 달아나려해
결국 선정을 얻는 데는 실패
들숨 · 날숨만 알아도 행복하다

선정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수행자가 행위하고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과정에 수행자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수행하는 자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청정도론〉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길은 있으나 길을 가는 자는 없고, 열반은 있으나 열반을 얻는 자는 없다' 라는 구절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사라져야 합니다. 길 위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때 길은 고속도로처럼 넓게 열릴 것입니다. 그런 길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수행하려고 억지로 애쓴다면 어느 지점까지는 다다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습니다. 선정을 얻으려면 놓아버려야 합니다. 선정은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행의 시작 단계부터 초대하는 마음으로 호흡을 대하기 바랍니다. 억지로 잡아끌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호흡 수행을 주요 수행법으로 가르치신 이유 중의 하나는 다른 것이 모두 사라진 후에 남는 것이 호흡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경〉에서 설명하는 호흡 수행의 1~2단계는 긴 숨은 긴 숨으로, 짧은 숨은 짧은 숨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중간 숨은 어떻습니까? 일부러 숨을 길게 쉬어야 하나요? 만약 일부러 숨을 길게 쉬어야 한다면 짧은 숨을 쉬기 전에 긴 숨을 얼마나 오랫동안 쉬어야 합니까?

아마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미 이해했을 것입니다. 호흡 수행의 제1단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2단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단계는 어느 것을 먼저 하거나 상관없습니다. 호흡 수행의 1~2단계는 호흡에 관심을 기울이는 단계입니다. 그저 호흡을 주시하기보다 호흡이 긴지 짧은지 알아차림으로써 호흡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호흡이 긴지 짧은지, 아니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중간인지를 알아차리고 있으면 호흡에 좀 더 흥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호흡 수행 1~12단계의 목적은 마음이 다른 곳으로 헤매다니지 않고 호흡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호흡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호흡을 알면서 호흡과 함께 충분히 오래 머무르면 수행자는 호흡에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렇듯 호흡에 마음챙김을 유지하면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면 마음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 특히 정신적인 에너지는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느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약하고 피로합니다. 마음챙김의 힘이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머무르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고 저장됩니다. 마음에 에너지가 충분하면 말 그대로 잠에서 깨어난 상태가 됩니다. 빨리어에서 붓다(Buddha)라는 단어는 붓자띠(bujjhati), '잠에서 깨어나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붓다는 정말로 깨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잠에서 깨어났습니까?

호흡의 온몸을 경험하기

호흡 수행을 통해서 호흡 한 번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그저 숨을 들이쉬기, 숨을 내쉬기가 아닙니다. 수행자는 숨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숨에 대한 온전한 마음챙김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어떤 수행 지도자들은 호흡 수행의 제3단계인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숨, 날숨)을 쉬리라' 며 공부짓는 단계에서 '몸' 을 실제 육체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호흡 수행 제3단계의 '온몸을 경험하면서' 에서 '몸' 을 육체로 해석하는 것은 '고마양(소똥)' 입니다. 여기에서 온몸은 호흡의 온몸입니다. 몸을 뜻하는 빨리어 '까야' 는 그저 육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노 까야' , 마음의 몸이라는 단어도 사용되고 태국에서 지금 약간 오용이 되고 있지만 '담마 까야' , 법의 몸이라는 표현에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경전에서 초선을 설명하는 비유에 '몸'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초선에 대한 비유는 목욕가루가 물에 반죽되는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물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에서 목욕가루를 신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에 기쁨이 스며든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목욕가루는 마음의 몸, 즉 마음을 의미합니다. 신체는 초선에 들어가기 전의 수행 단계에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 비유는 마음에 기쁨이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호흡이 고요해지면 마음은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되어 행복감이 일어납니다. 호흡이 고요해지는 단계에 이르면 수행에 흥미를 가지게 되므로 이 단계부터는 힘들이지 않고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감이 일어나는 단계는 호흡 수행의 5~6단계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면서 앉아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경전에서 말하듯 마음이 수행으로 이끌려갑니다.

이 글은 아잔 브람의 위빠사나 명상 강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오주 생명 光(빛)의 기둥을 가슴에 세워드립니다!

자신이 직접 수행이나 기도, 명상, 참선중에 눈 앞에서 다양한 영적인 빛 기둥의 가피를 보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기도문과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한 자신만의 빛의 체험)

❶ 업장소멸, 한과 집착, 끝없는 고통의 소멸을 몸으로 체험(몸의 환골탈퇴) 눈물, 기침, 트림, 하품, 진동, 전율, 코물, 구역질, 담음, 빛의 변화, 몸, 마음, 영혼의 진동 주파수의 변화를 통한 삶의 대전환
❷ 인간의 3가지 고통 (1) 인간관계 (2) 금전의고통 (3) 몸의 질병의 고통 해결 기도문과 기도법제시
❸ 영적인 질환, 빙의, 영가장애, 무속병 원인없는 질병, 그 자리에서 확인
❹ 돈, 사업, 이혼, 사별, 별거, 자식, 취업 등의 마음상처치유 기도문
❺ 내몸에 잠자는 영혼을 깨워 마음, 몸을 쓰는 원리수행
❻ 가슴이 열리지 않아 수행에 진전이 없는 모든분(수십년기도하신분)
❼ 의통(심의과정)업장소멸후 의로움으로 재산환원 하실분 (심의대학 설립에 필요한 기금조성, 몸, 마음, 영혼을치유하는 의사 양성)
❽ 상단전(지성) + 중단전(감성) + 영성(단전) = 깨달음의 경지 수행

매월 3주, 4주 토요일 2시에
공개유료강연회 (10명에 한함 2만)
업장소멸, 고통소멸 원리, 가슴이 변해야
고통에서 행복으로 나아간다.
(강연후 체험 빛의 기둥)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266-8
043-296-5258 010-9242-5259
자각선원 (부설 뇌파 마음수련원) 자각선원장 자각 합장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041-943-5505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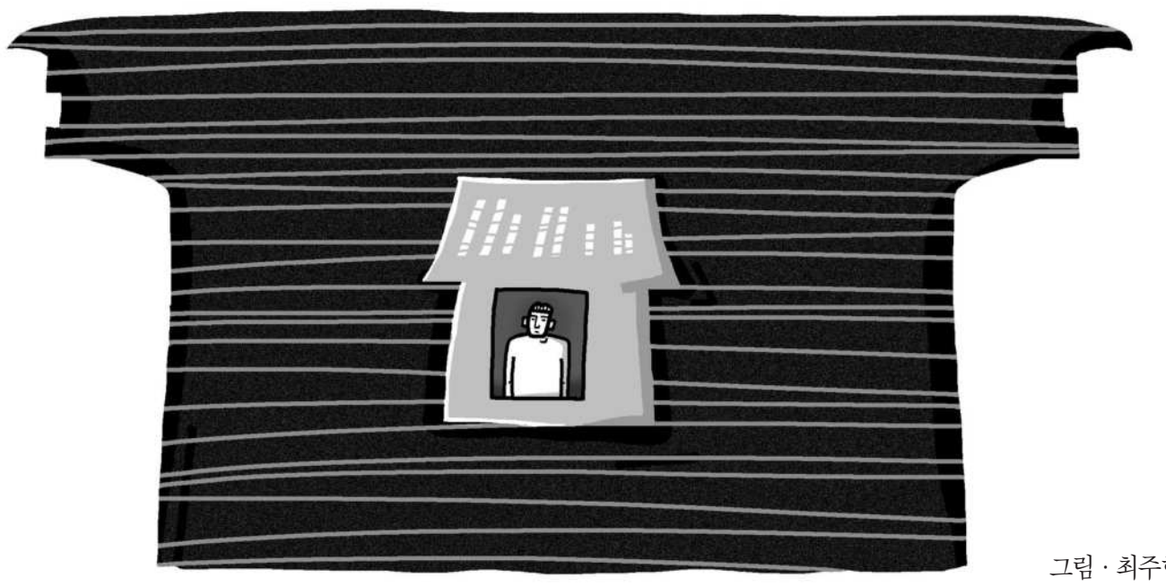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께서 한자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다 바쁘신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바쁜 것을 다 제치고 이렇게 한자리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요상합니다. 색깔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을, 마음내기 이전을 말해서 자기 불성이라고 하죠. 영원한 근본이라고도 하고 뿌리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냈다 하면 법신(法身)이라고 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육체가 움죽거린다 하면 화신(化身), 응신(應身)이라고 하죠. 화신은 바뀌지는 걸 말하고 응신은 서로가 대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마음을 안 냈을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냈을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를 움죽거릴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 몸속에 많은 중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이냐 심장이냐 위냐 식도냐, 방광이냐 콩팥이냐 정맥이냐 동맥이냐 하는, 일체 이름해서 움죽거리는 그 자체가 바로 어떠한 부분에서 움죽거릴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정맥이 움죽거릴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동맥이 움죽거릴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많은 생명체들이 작용을 하는데 어떠한 것이 작용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알아보신다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나기 이전에도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생각을 냈을 때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몸이 움죽거릴 때나 육체 속에서 정맥 동맥이 움죽거릴 때, 또는 눈귀가 움죽거릴 때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천차만별의 이름이 전부 내 한 그릇에 있습니다, 내 몸뚱이 한 그릇에. 그런데 그게 다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모두 본인이 하는 거죠? 남이라고 할 수 없죠? 몸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어떠한 거위 한 마리도 나 아님이 없죠? 그러니 내가 했다고도 할 수 없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어떠한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 '나는 없다' 하는 겁니다. 나는 없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맥 동맥이 쉬지 않고 뛰면서 이어져 돌아가는데 정맥이 뛸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맥이 뛸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볼 때에 어떤 걸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없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 나는 공동체야! 공동체니만큼 모든 것을 해도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몸이 함이 없이 하기 때문에 손도 손 없는 손이 하고 있다. 그리고 없는 발이 한자리를 디뎠다. 이게 평발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법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작용하는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고, 여러분이 법신이자 부처님이자 바로 화신입니다. 그리고 상대성 원리로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니까 항상 응신으로서 베푼다 이겁니다. 타의의 어떠한 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나 자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나 자체부터. 나 자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는 걸요. 나 자체가 나왔으니까, 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자체가 모두, 바로 악업 선업이 인과가 돼서 영혼의 근본과 더불어 같이, 어머니의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빌려서, 즉 정자와 난자를 말하죠. 그래서 합류화돼서 합성체제로서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두 몸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나 외부에서 내 몸뚱이가 작용하는 거나 모든 것이 전체가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왜?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죠.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 하랴, 남편 노릇하랴, 아들 노릇 하랴, 형님 노릇 하랴, 아우 노릇 하랴, 사위 노릇 하랴, 친구 노릇 하랴,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회사나 직장에 있다든가 어떠한 지위를 가졌을 때 또 이름이 붙죠? 그러니 따로따로, 몸뚱이 체가 따로 있어서 따로 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아주 묘법이죠. 그게 묘법입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여보!" 하면 뜻과 행과 말이 동시에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아버지 노릇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거나, 그 지금 말씀드린 거나 모두가 하나로 통과가 됩니다. 이 모두가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내가 됐다고 할 수 없고, 내가 말했다고 할 수 없는 까닭에 모두가 공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공하고, 모두가 함이 없이 했고, 모두가 비었다. 어느 것도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 내가 없으니 물이 있으랴. 물이 없으니 강을 건널 게 있으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한 찰나…, 찰나라고 하는 소리도 그 까닭입니다. 찰나에 아버지가 됐다 찰나에 남편이 됐다 이렇게 하듯, 부처님의 마음도 역시 그렇게 찰나에 바로 칠성 부처가 됐다가 지장이 됐다가 관세음보살이 됐다가, 약사가 됐다가 용신이 됐다가 지신이 됐다가 온통 그렇게 화해서 나투죠. 자동적으로 이게 됐다 저게 됐다, 이게 됐다 저게 됐다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걸 납득을 하시죠?

그래서 부처님 마음도 동방에 이름을 지어 놓든가, 서방에 이름을 지어 놓든가, 지장이라는 이름을 지어 놓든가 어떠한 이름이든지 그거는 이름일 뿐입니다. 지금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다 남편이다 아들이다 하는 거는 바로 이름일 뿐이죠. 그런데 이름이 자동적으로 누구한테나 주어졌지만 누구한테나 주어진 그 이름이 진실하기도 합니다. 영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고 본다면 그렇게 공하고 그렇게 내가 없는 가운데 바로 "너는 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구나. 산과 물이 둘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구나."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묘하기도 하고 말로 어떻게 형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 배우고 권세나 모든 게 아무리 다 좋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작용을 한다면 망하든지 흥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치든지 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마음의 꼭지에 달려서 끌려 다니고 움죽거리는 체(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스럽지 못하게 모두 생활들을 하시거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당당한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생각지를 못하세요, 모두. 하, 참!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부처다" 이랬는데도 왜 한 겹을 벗지 못하고 그렇게 극매는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 요상한 그 마음 말입니다, 그거를 잘 다루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법입니까?

나는 입산을 하러 왔을 때도 '어이구, 참 이렇게 잘 배운 사람이 잘 왔다.' 이게 아니라, 못 배웠든지 잘 배웠든지 말입니다, 마음이 참 요상하다는 생각에, 그 마음이 너무나 요상하게 보여서 웃었습니다. 하하하…. 마음이 얼마나 요상합니까? 그런데 그 요상한 마음을 내가 다스려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도 다 입력이 돼요. 그냥 허탕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내기 이전이 꼭지가 붙어 가지고, 그 꼭지가 뭐냐? 그게 오신통이에요. 그 꼭지가요.

거기에는 숙명통도 들어 있고 타심통도 들어 있고 천안통도 들어 있고 또 신족통도 들어 있고 천이통도 들어 있어요. 다섯 가지가 다 들어 있는 동시에 이 마음의 꼭지가 붙어 있는 데서,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마음을 냈든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마음을 냈든 그 꼭지에서 신호가 차악 두뇌로 갑니다. 두뇌라는 건 우리가 지금 그냥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뇌로 가서 모든 것을 사대(四大)로 통신을 하게 돼 있죠. 통신을 해서 이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마음을 다 알 수 있게끔요. 내 몸뚱이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오고 무엇을 하는지를 알게끔 신호를 다 주는 거죠, 안팎이 다. 안에서 내가 움죽거리는 걸 다 알게 돼 있고, 또 내가 안에서 움죽거리는 거를 다 알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누진(漏盡), 즉 두뇌라고 하는 게 누진을 말하죠, 이게 누진에 통신이 되질 않고 이 사대에, 오장육부에 통신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 몸뚱이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뭐를 어떻게 하고 가는지, 잘못하고 가는지 잘하고 가는지 이것도 일체 중생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

☞ A18면으로 계속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힐링 에너지가 아주 좋은 명당터 인도합니다

산 수 배산임수(背山臨水), 전저후고(前低後高) 장풍득수(藏風得水), 남 동 향(南 東 向)

입 지 양지 바르고 아늑하며 앞이 탁 터져 있고 일조량이 적당하며 통풍이 잘 되고 주위 사방에 호위하는 산들로 싸여 있으며 산맥이 평지 쪽으로 유유히 뻗어 내려 있다. 500여평씩 4~5m의 단차를 두고 둘로 나뉘어 있으며 심한 가문에도 마르지 않는 지하수가 항상 나옴

접근성 서울 요금소에서 1시간 20분 (평일 기준) : 고속도로 104km, 자동차전용도로 7.5km, 마을길 2.5km로 최고의 접근성. 휴일에도 보통 1시간반 ~ 2시간 소요

용 도 힐링센터, 기도도량, 기도원, 암자, 요양원 등으로 최상의 요지

양도조건 980여평, 1필지, 관리지역, 건물 없음. 4억원

연락처 010-2723-3278

터 중심에서 아주 강한 치유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코드를 스캔하면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를 아는 분만 연락주세요.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의 샘나 효모밥죽순 콩단백 조직 콩고기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밥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 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58(오류동) 블루텍공존 3층 312호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샘나]

보이지 않는 데서 먼저 해결이 나야 보이는 데로 나와요!

☞ A17면에서 계속

것이 의심이 가걸랑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두? 지금 우리 몸뚱이 속에서 별성들이, 그 중생들이 다 살고 있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가 지구 속에서 또 살고 있어요. 지구가 찰나찰나라는 언어도 붙지 않게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돌아간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다니는지 그건 도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를 하는 데 상대와 부딪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내 탓이지 왜 남의 탓으로 돌리느냐 이겁니다. 안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그 자체를 모두 '네가 하고 있는 거니까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돌려서 놓는 거죠. 놓는다는 것이 맡겨 놓는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맡겨 놓는 것만이 아니라 굴려서 놓는 거죠. 내가 모를 때,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너만이 알아서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맡겨만 놓으면 아주 정식대로 다 해 나가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놔야 굴려 놓는 거죠. 구정물이 들어왔을 때 바로 그 구정물을 새 물로 바꿔 쓰는 거나 똑같죠. 어떤 물체가 아니라 이건 마음의 장난이기 때문입니다. 물체는 맨 나중에 나오게끔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데서 먼저 해결이 나야 보이는 데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이런 말은 어느 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책에 쓰여 있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책으로 나오기 이전,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자체가 그런 겁니다. 어떻게 그걸 말로 다 하며 어떻게 글로 다 쓰리까. 이렇게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고 자유스럽게 마음을 낼 수 있으니,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 생활과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지구 및 우주의 섭류를 파악해서 바로 자유인으로서 살아나가는 계기를 만들자는 거죠. 또 부처님께서도 그런 계기가 돼서 '너희들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명시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십구 년이다 삼천 년 전이다 해도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기가 지금 어디서 왔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며, 또는 자기가 내면에 그렇게 많다는 거를 모르기 때문이며, 이 몸뚱이라는 집합소에 자기라는 모습이 천차만별로 돼서 한 바구니에 지금 들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몸뚱이는 내가 작용하는 집합소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다스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 중생이 둘이 아니요, 부처는 중생 속에 있고 중생은 부처 속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딴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체가 없다면, 그리고 생활이 없다면, 여러분 자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어디 상대가 있고 세상이 있고 우주가 있겠습니까? 아주 냉철하게 생각을 잘 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종교를 따로 떨어진 어떤 것으로 알지 마십시오.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종교며 불교입니다. 이렇게 가깝게 종교 속에서 살고 있고, 지금 생활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이 종교니 저 종교니, 또는 "난 종교 안 믿어!" 이러거든요. "난 불교 안 믿어!" 이러거든요. 안 믿긴 뭘 안 믿습니까? 벌써 생명이 있고 움죽거림이 있고, 벌써 통신을 하고 돌아가고 있고 이러는데 불교가 아닙니까? 천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불(佛)이요, 바로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거, 말로 전달되는 거, 바로 통신으로 전달되는 게 다 교(敎)인데 어떻게 불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살고 있거든요. 하하하….



모두가 공하고, 모두가 함이 없이 했고, 모두가 비었다.
어느 것도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
내가 없으니 물이 있으랴. 물이 없으니 강을 건널 게 있으랴.

어떤 때 여러분 모습을 봤을 때 참 혈기 왕성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고 그래도, 잘 보면 모습은 건강하나 속이, 마음이 좀 상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꼭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심심하면 그렇게 되는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마다, 내가 너그럽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딱한 생각이 들면서…, 그게 다 부질없는 생각이겠죠? 여러분이 모두 잘하고 가시는데 내가 부질없는 생각을 하는 건지 그건 몰라도, 딱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얼른 쉽게 말해서 딴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본 셈 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내면적으로 외부적으로 한데 합쳐서 100%를 본다면 이건 남이 아니에요, 전부가. 줄창 여러분한테 말했지마는 억겁을 통해서 모습을 자꾸 바꿔 가면서 이게 되고 저게 될 때 모였던 인연으로 모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것이 인연이 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산천초목의 나무들도 이름은 각각이지만 모두 자리는 한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자리에서, 한 어머니 속에서 다 자라고 있듯이 이 산하대지에서 모두 살고 있습니다. 밤나무니 소나무니 이름은 다 각각이지만 그렇게 다 각각 살면서도 한자리에 살고 있듯이, 우리도 한자리에서 항상 화해서 돌아가서 또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온 것이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오늘, 바로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동시에 만날 바뀌어서 같이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저께 부모가 내 부모겠습니까, 또 오늘 다시 모습을 가지고 그 부모 속에서 나왔으니 그 부모가 내 부모겠습니까? 그러니 부모 아닌 게 없고 자식 아닌 게 없고 형제 아닌 게 없어요, 더 넓게 본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가면 독사도 되고 뭐, 뱀도 되고 곤충도 되는데 곤충이 되는 것을, 즉 말하자면 오간지옥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것까지도 모두가 화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네 생명이 따로 있고 내 생명이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알고 본다면.

그러니 그렇게 알면 '나'이기 때문에 하나도 죽이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묘한 도리가 있습니다. 죽여야 그 무명을 벗고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묘한 도리를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가 소로 보이면 고기를 못 먹고, 소가 약으로 보인다면 약으로 먹고 무명을 벗긴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에 한해서만이 그런 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기복으로써 만날 복이나 빌러 다니는 사람들하곤 다르죠. 천지 차이죠.

그래서 우주간 삼세를 다, 한마음이 포착하는 거죠. 그러니 이걸로 태어나고 저걸로 태어날 것도 없는 거죠. 내가 마음 먹으면 그대로 그것이 법이 돼서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니까요. 컴퓨터에 입력을 해 넣으면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 다 그렇게 나오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그 삼합이 체인지가 되어서 같이 내 한마음에서 그냥 돌아가니까 하나도 법에 저촉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죽여도 살리는 법, 살려도 살리는 법. 이게 전체가 자비가 되죠. 이 원리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하니 여러분께서 이 생에서만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니까 한 생, 한 철 지내려 나온 지금 이 도리를 완전히 파악한다면…, 이제는 삼세를 포착하고, 부처님을 집어삼키고 중생을 모두 집어삼켰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다 집어삼켰기 때문에, 태양이든지 은하계든지 어떠한 혹성도 다 포착해서 집어삼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집어삼켜서 자리를 만들어도 그 마음자리가 작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우주를 내 마음으로써 아주 축소시켜서 먼지 하나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있고, 내 손가락 하나로 삼천대천세계를 다 들 수도 있는 그런 대대적인 바로 삶의 포착이죠.

그러니 만약에 내 몸이 이 선원에 와서 마음공부 하기 이전부터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몸이 없어지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즉 집은 망가져서 헐어 버려야 될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새로 짓는 집을 잘 지어야 하니까요. 그 안의 주인이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다 쥐고 자유스럽게 건질 수 있고, 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새 집을 지어야 하니까 지금 집이, 오두막집이 아주 헐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겁내지 말고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훌떡 벗어 버리면 됩니다. 마음대로 입을 수도 없고, 벗어버릴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이렇다면 이 공부 하나 마나죠. 사실은 마음대로 못 사는 것도 마음대로 사는 거고, 하하하…, 마음대로 사는 것도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포착만 한다면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감사함과 더불어 크나큰…. '하이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하고서…. 허, 그건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육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말입니다, 육을 살리기 위해서 육 속에 있는 중생들을 먹여야 됩니다, 이제. 하하하…. 그래서 안으로는 먹이고 거죽으로는 살리고자 해서, 지금 먹여 살리려면 어떠한 짓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용기를 바로 내면에다 두세요. 지금 세상에 육신이 못 먹어서 죽을까 봐 애쓸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봐요. 전 그걸 고문받듯이 많이 배웠어요.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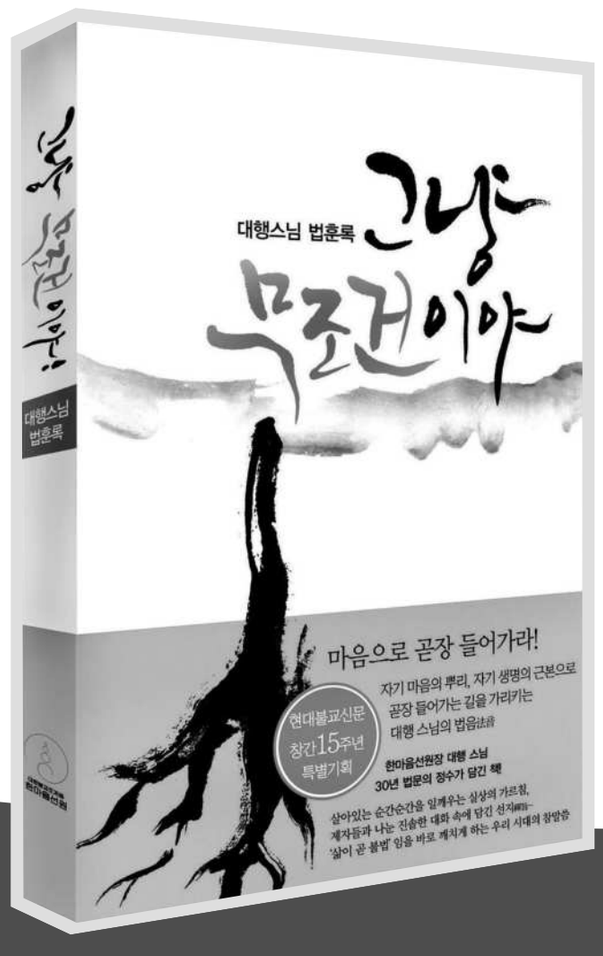
옛날에, 하다못해 콩 한 알갱이 이렇게 따서…, 다 거둬 가고 줄기에 콩이 하나든지 둘이든지 붙어 있어요. 다 베어 가고 나머지가요. 고춧잎과 고추를 다 따 간 뒤에도 조그만 고추들이 붙어 있죠. 이슬 맞기 전에도 그렇고 이슬 맞고도 그렇고. 그거를 무심코 따서 입에 넣었다가 이 공부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했던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죠. '너, 누구를 먹여 살리려고 그러느냐? 너를 먹여 살리려고 그러느냐, 네 육 속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어떤 것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남의 것을 따서 내 육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이런 고문 말이에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렇지 않으면 욕심에서 그러느냐?' 그런 문제 등등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야, 참!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없다고도 볼 수 없고, 이건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러 그러합디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께서도 '가리지 않고 벌어서, 어떠한 나쁜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해서 잘 먹고 잘 먹이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은 갖지 마세요. '너만이 스스로 우리 가정을 다 살릴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부지런히 옳게 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 마음속에서 다 응해 주는 겁니다. 마음이 요상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이 천차만별로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인 줄 아시죠? 하하하…. 마음은 하나인데 말입니다, 에너지 통은 하나인데 말입니다,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용(用)은 너무 많습니다. 이렇다고 끌어다 쓰고 저렇다고 끌어다 쓰고, 이거를 돌린다고 끌어다 쓰고 이거를 한다고 끌어다 쓰고, 밥을 지어 먹는다고 끌어다 쓰고 이러죠? 천차만별의 끌어다 쓰는 그 용은 지금 우리의 에너지 속에서 그대로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 양도 용도에 따라 정도에 맞춰서 나오고, 요런 그릇에다 밥을 지으면 그 그릇에 맞게 에너지가 다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음대로 마음 낼 수가 있는 건데 왜 마음대로 마음을 낼 수가 없느냐는 얘깁니다. 참 요상하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이 관습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거죠. 수억겁을 진화해 오면서 그 모든 사람이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살아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신을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러면서 또 삽니다. 그러한 습관이 잔뜩 담겨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나는 이렇게 되면 죽는다. 내가 돈을 못 벌면 우리 가정이 망한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질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7월 4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현불 논단

소년법 '폐지' 아닌 '보완'을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범죄학박사

최근 '잔혹' 청소년 폭력범죄들에
국민들 소년법 폐지 청원 이어져

소년범죄의 심각성은 세계적 화두
보호처분서 형사처벌로 이동 추세
형사미성년 9살 이하로 낮추기도

인과응보적 형사처벌만 능사 아냐
소년범죄 줄이는 맞춤형 대책 필요

최근 전국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듣기조차 힘들고 청소년들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범죄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놀란 가슴으로 사람들은 너나없이 소년법을 폐지하라고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다.

대다수 시민들이 이제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도 전통적으로 소년범죄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 보고 그들의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경한 대응책(Get tough policy)', 즉 "소년법을 폐지하라"고 청와대 신문고에 청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범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먼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한편에서는 인간은 자유의지(free will)를 가진 존재로 보아 범죄행위를 포함한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며, 당연히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한 범죄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한 책임, 즉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자는 생물학적, 유전적, 또는 사회학적 요인으로 범죄자가 되고 범죄행위를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행위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아니라 보호하고 치료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범죄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가?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은 아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가지고 선택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고, 그들의 범죄나 비행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잔인한 범죄행위조차도 소년사법의 대상이고 보호처분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소년범죄의 심각성은 세계적으로 보호처분 중심의 소년사법에 형사처벌이 강조되는 성인사법이 가미되는 경향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형사재판으로 이송하고, 형사미성년의 나이를 심지어는 9살 이하로까지 낮추며, 특정한 강력범죄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최소형량을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년법제나 소년사법제도 더 구체적으로는 소년보호처분이냐 아니면 전적으로 형사사법과 형사처벌이냐의 이분법적, 획일적 선택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이고 같은 나이라도 신체적, 정신적 성숙의 정도가 천차만별이다.

그들의 동기도 배경도 가지각색이어서 나이를 기준으로 모든 소년범죄자의 범죄행위를 획일적으로 보고 소년사법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거나, 그 반대로 소년사법과 소년법은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소년범의 범죄를 다 성인사법의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지나치다 할 것이다.

특히 소년범죄의 문제는 소년법을 폐지하는 등 사법제도의 변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소년보호처분도 형사처벌로 간주되고 있으나 형벌의 고통으로 인한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은 온데 간 데 없이 오히려 소년원에 다녀온 것이 훈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인과응보적 형사처벌만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낙인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소년사법이냐 형사사법이냐의 확일적 선택보다는 소년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어느 하나의 선택보다는 다양성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

社說

승가교육 개선, 미룰 수 없는 숙제

현재 한국불교는 '출가 절벽'에 당면해 있다. 지난해까지 유지했던 150명 선이 무너져 올해에는 110명 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감소 속도다. 200명에서 150명 선으로 무너지는 데 3년이 걸렸지만, 150명 선이 붕괴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년이다. 이런 속도라면 2025년이면 출가자가 고갈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출가자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제기된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여파가 출가에도 오고 있는 것이고, 25%에 달하는 퇴사율은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출가문화로 인한 문제이다.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출가자 감소는 노정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적은 출가 인원이 효율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

조계종 교육원이 7월 12일 승가교육 개선 방안을 주제로 종책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찰승가대학 수 조정, 수학기간 변화 등의 다양한 개선안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교육기관 대표자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입장 차는 명확했다. 해당 교육기관 대표자들은 전통적 교육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교육원은 승가교육의 변화는 불가피함을 어필했다. 그러면서도 참가자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지금 승가교육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현재 종단의 교육시스템은 이 변화를 담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현상과 문제점이 대두된다면 그에 맞는 분석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폭 넓은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미래지향적 승가교육 변화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변화의 적기다.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세계유산 산사, 조화로운 변화를

한국의 전통산사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6월 30일 바레인에서 열린 제42차 회의에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하 산사)'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키로 결의했다.

원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산사에 대해 신청된 7곳이 아닌 통도사, 부석사, 법주사, 대흥사 4곳을 등재할 것을 권고했으나 조계종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와 정부, 지차체는 막판 외교전을 펼쳐 7곳 모두 등재를 이끌어냈다.

특히 등재추진위 실무진들은 정오표와 외교 지지 교섭 자료들을 작성해 전달·배포했고, 이는 모두 등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고 한다. 산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노력한 실무진이 있었기에 이 같은 쾌거는 이뤄질 수 있었다.

이번 등재로 한국의 산사는 독보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특히 천년 넘게 이어온 한국 스님들의 수행·생활·교육 등 무형적 요소들이 '살아있는 유산'으로 높게 평가된 것은 의미가 크다. 단순히 건축물, 불상과 같은 유형의 유산만이 아닌 스님들의 생활·수행·신앙 등도 무형의 유산임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7곳 산사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노력할 때가 됐다. 등재처는 6년마다 잘 보존되는지를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잘못됐을 경우 위험 유산으로 분류돼 등재 취소가 될 수 있다. 조계종이 산사통합관리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같은 계획들이 착실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제대로 된 보존·관리·활용만이 오늘의 이 기쁨을 이어가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부산지사 : (051)405-9402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전북지사 : (063)910-8977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특별기고

자살예방 템플스테이 후기

자살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힐링 체험이 사찰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불교계 유일의 전문상담기관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이 7월 7~8일 서울시와 함께 서울 금선사에서 자살예방 템플스테이를 개최한 것이다. 마음 속의 아픈 상처를 녹인 이날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후기를 전한다. <편집자 주>

"마음 한구석 힘든 부분 떨쳐"

가족 중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7월 7일 진행된 마음 돌아보기 어루만지기 템플스테이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템플스테이 참가는 2017년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산 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맑은 물소리가 처음 방문하는 저를 반기는 듯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아서 좋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더 좋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저는 108배를 통해 힘들었던 심신에 집중하면서 나쁜 감정들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새 출발을 위한 자신감을 얻었으며, 마음 한 구석에 힘들었던 부분을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못한 것을 집단상담을 통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소감 나누기 시간에 한 여성 참가자 분께서 자신의 희망모습이 아닌 저의 희망모습을 지점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앞으로는 항상 웃는 얼굴로 아내와 행복하게 잘 지내라는 것을 재차 말씀해 주셔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잊고 웅크리고 살았습니다. 이번 기회는 불쌍한 나를 돌아보고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너무 행복했으며, 아울러 긍정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살자 유가족 윤이석 씨(가명)

"항상 내 고통만 생각했는데…"

참가할지 말지를 7월 7일 토요일 아침까지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템플스테이에 용기 내어 참가하게 되어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단 프로그램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나의 고통만을 생각하면서 아파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고민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 고민했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사찰에서 조용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니 모두가 힘들게 사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 마음도 어루만질 수 있는 여유를, 삶의 여백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중 숲속 명상에서 마음의 여유 느끼기, 거울 바라보기, 숲속의 바람소리, 새소리 계곡물 소리 등이 좋았습니다.

자연의 소리가 저를 자연인으로 만들어주는 느낌을 받아 너무 좋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친 가운데 우리도 하나의 생명이구나, 이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힘차게 살아야 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도 다시 사회로 돌아가면 금방 지치겠지요. 하지만 지금 있는 이런 상쾌한 마음가짐을 다시 떠올리며 힘을 내야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육인숙 씨(가명)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황금룡을 집안으로

황룡나한과 복호나한

황룡나한은 용위에 큰복을 실어다 줄 것이며
복호나한은 악귀를 물러치고 삼재를 소멸하여 들어온 복을 지켜 줄 것입니다.

나한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리며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황룡나한은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하며, 황금룡을 타고 다니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해 주신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치며 삼재을 소멸하여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어 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8명의 나한들에게 부탁 하시기를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줄것을 당부 하였으니 16명의 나한들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설파하고 황룡나한과 복호나한은 거처를 정하지 않고 세상을 두루 돌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하고 악을 몰아내며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고 있다.





- 족자 크기 : 세로 120cm × 가로 54 cm
  족자 1개 금액 : 10만원
  족자 2벌 구입시 19만원에 드립니다.
- 그림 크기 : 세로 67cm × 가로 44 cm
  금액 : 그림당 7만원
- 구 입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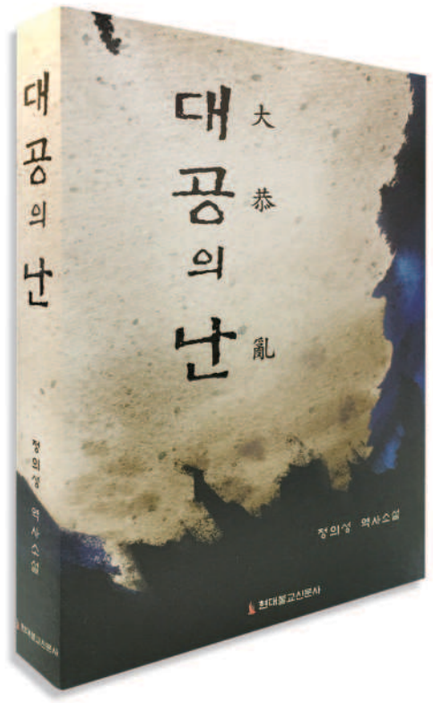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18나한 설명서 를 보내드립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BTN 대표이사 서성우

‘三人行 必有我師’, ‘돈’ 말고 ‘사람’ 보라

〈세명이 함께 길을 가면 필시 그 중 스승이 있다〉



민병덕 前 국민은행장은… 1954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보문고 ·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국민은행에 입행한 이후 충무로지점 지점장, 영동지점 지점장 등을 거치며 영업의 달인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후 영업그룹 부행장을 거쳐 2010년 제4대 국민은행장에 선임됐다. 2011년 국군불교후원회장을 맡아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불사에 크게 기여했으며 2012년 불자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으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리더에게 聽하다

민병덕 前 국민은행장(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민병덕 前국민은행장은 사원에서 은행장까지 오른 금융계의 신화이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전의 명수로 불린다. 이면에는 상생의 마음씀씀이가 있었다. 독실한 불자 금융인인 민 前 국민은행장은 현재 무보수로 핀테크 벤처기업 ‘올이프’ 회장을 맡아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공부와 경륜을 사회에 회향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Q: 민병덕 회장님은 국민은행 입사 후 평직원으로 시작해 은행장까지 하셨습니다. 금융계 신화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은행은 대기업인데 비결이 있을 듯 합니다.

저는 성격이 긍정적입니다. 안 되는 게 없다는 ‘I can do it’이 제 신조입니다. 은행에 첫 입사했을 당시 김천수 수석부행장께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신입행원들이 앉자마자 물컵 반을 들이키고 물컵을 보여주면서 ‘물이 반 담겨있는 잔을 바라볼 때 두가지 시각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반컵이나 있네’란 긍정마인드로 직장 생활하면 분명 성공한다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면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하고 반드시 성공하는 반면에, 매사 부정적이면 환영도 못 받고 직장에서는 도태된다. 제군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는가?’ 이런 말이 확 와닿았습니다.

이후 어느 영업이든 저는 사원이 아니라 지점장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서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겠다고 했어요. 대신에 가정에 소홀해져서 집사람이 고생이 많았죠. 대신 사회에선 인정은 받게 됐습니다.

Q: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닌데, 진급 과정에서 순탄하게 풀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경쟁도 심하고, 위기는 없었는지요?

제가 은행장이 되는데 도움이 된 것이 ‘영업’입니다. 사실 저는 영업을 잘 몰랐습니다. 인사업무만 10년을 했어요. 사람관리, 분업 등 그런 것도 은행장에겐 필요하죠. 근데 은행은 영업 안 되면 망하잖아요. 그만큼 영업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제가 영업의 달인이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때 송탄 지점에 가게 됐습니다. 그 지점은 당시에 퇴직을 얼마 안 남긴 고참 지점장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전 지점장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부실 대출이 많아 업적 평가가 바닥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극복할 방안이 막막했습니다. 보통 실적이 안 좋으면 지점장이 1년만 되도 잘리기도 합니다. 먹여살려야 하는 가족이 많으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냥 부지런히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요령있게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었죠. 당시에 제 스승이 된 사람이 같은 지점 과장이었던 직원입니다. 그 직원은 저와 방문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면 아주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기업 방침, 심지어 기술 동향까지 모두 공부했습니다.

보통 은행원이 반도체 기술 개발 현황과 시장 전망, 세계 흐름 등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영어와 불어에 능통해 원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외국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번역해 익히니 기업 운영진에서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사, 거래 다 여기로 옮겨’ 이렇게 되는 거였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것을 부하 직원에게서 배웠습니다.

Q: 부하직원에게 배우기 쉽지 않은데요. 그냥 직원이 열심히 하는 대로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논어에 ‘삼인행이면 필유아사’(三人行 必有我師)란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동행해 가다보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아랫사람이든 동료이든, 윗 사람이든 저는 다 제 스승으로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영업도 후배한테 배운 거죠. 계속해서 노력해 당시 최악의 점포로 간 이후 다음 해에 전국에서 최고 이익을 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도 위기가 왔습니다. 제가 동국대 출신이다 보니 은행 측에서 동국대가 위치한 충무로 지점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문제는 충무로 인근이 출판 인쇄 사업체가 많은데, 인쇄 사업이 꺾인 상태란 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충무로 지점이 등록금 수납 등 동국대 거래를 90% 이상 했는데, 총장님이 바뀌면서 거래은행이 바뀐 겁니다. 지점장으로 오자 마자 말이죠. 모두가 제가 이제 끝났다고 할 때였습니다.

먼저 월급의 반은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미 떠나 버린 동국대 시장은 차치하고, 꺾였다고 평가 받는 출판 인쇄업 사장님들을 만났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인쇄업도 위기가 기회였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성공 원동력
부하직원에 배워 위기 극복
‘영업의 달인’ 평가, 승승장구
“부처님이 위기 주신 것” 감사

건물이 없는 인쇄업자분들에게는 지금이라도 건물을 사라고 권유하고, 건물이 있는 인쇄업자 분들에게는 더 큰 건물로 미리 옮기라고 했습니다. 충무로는 서울 중심에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본업인 인쇄업이 힘들더라도 임대업이나 다른 쪽으로 수익 변화가 충분히 가능했고, 이런 계획이 주효했습니다. 다시 충무로지점에서 전국 탑을 차지했습니다. 두 차례의 위기극복을 거치면서 저는 사내에서 ‘영업의 달인’ 소리를 들으며 본부장, 부행장을 거쳐 50대에 은행장을 하는 등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Q: 지금와서 그분들이 고마워하겠네요. 은행 입장에서야 대출이자 등 수익 측면에서 권유했다고 해도 고객 입장서도 잘풀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함께 잘되었죠. 그분들은 지금 인쇄업에 임대업으로도 잘 사십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은행이 은행 이익만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입니다. 고객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돈을 따라가다 보면 고객에게 손실을 입히며 은행의 이익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고객이 떠납니다.

결국 상생해야 합니다.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 수많은 기업이 쓰러졌습니다. 모두가 은행은 비오면 우산을 뺏는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사시좌선(四時坐禪)
B5 문화 김양수 개인전 ‘무진법문’ 展
B6 학술 · 문화재 전재성 〈통합판 앙굿따라니까야〉 발간







2011년 국군불교후원회장으로 위촉받는 민 前 국민은행장.



민병덕 前 국민은행장은 IMF 등 위기에도 상생의 힘으로 딛고 일어선 기업이 많다며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논산 육군훈련소 불사에 화주 역할을 해 2012년 불자대상도 수상했다.

相生, 성공의 지름길… "기업·조직 新성장동력 얻어"

'민병덕 前 국민은행장'

B1면에서 계속

Q: 그래도 은행 측에서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기업의 비전이나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할 듯하네요.

예. IMF때 사장님 손을 잡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기름때가 묻어서 미안해서 악수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성실함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고 비전을 봐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주변의 평판도 찾아보면 됩니다. 지역 향우회나 동종업계 등에 물어보면 됩니다.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회생을 도와주면 결국 모두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이뤄집니다.

절대로 은행이 심사를 한다고 해서 갑의 위치에 서면 안됩니다.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열정을 보고 함께 커갈 수 있게 힘을 넣어줘야 합니다.

Q: 그럼에도 은행에 가면 참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은행에 갔다가 기분이 상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하지만 원하는 대로 이뤄지면 참 고마워지는 게 또 은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은행에 있을 때 직원들에게 'No'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객한테 '안 됩니다' 하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면전에서 'No' 하지 말고, 이유를 설명한 다음 나중에 지점장이나 팀장에게 그 고객을 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내는 분들이 숨을 좀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다른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대부분 고객들은 'A는 A' 'B는 B'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금융업에 있다보면 꼭 A를 하지 않아도, 해결가능한 방법을 알지요. 일정부분이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화난 마음은 고마움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충성고객이 되고 은행을 홍보하는 영업맨이 되는겁니다. 화가 애정으로 바뀌는 그 마음쓰임을 잘 아는게 중요합니다.

Q: '마음쓰임'이라고 하셨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음이 중요하고, 경영도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금융업은 굉장히 민감한 직업같습니다. 사람을 응대하고 다루고, 또 사람이 민감해하는 돈을 다룹니다. 실수하면 피해도 매우 크고요. 조직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근 은행업무는 부동산과 시사, 의학까지 고객들의 필요한 모든 부분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천후가 되어야 합니다. 기계가 많은 일을 하지만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고, 결국 사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드러난 실적을 가지고 사람을 일괄적으로 다루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두 차례 퇴직할 뻔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년이 내일이라도 잘하면 승진시킨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점장들은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뛰지만 팀장들은 실적 안 나와도 월급이 제때 나오니 나몰라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점장 승진이 안 된, 나이 많은 팀장들의 경우 더욱 심하죠. 이런 이들에게 지점장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습니다. 살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엉뚱한 일을 시켜면 제대로 능력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리더는 그것을 잘 캐치해야 합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용병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Q: 모든 사회생활이 그렇지만 경쟁 속에서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겁니다. 불교란 종교가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직원에겐 'No' 말라 강조
차분한 마음에 머리 맞대면
또 다른 방법이 도출 돼
"사람에게 답이 있어요"

모두 부처님 가피라고 봐야겠지요. 저희 집안은 부모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보문고등학교나 동국대에 진학한 것도 부모님 영향이 컸어요. 살아오면서 저희 집안에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저보다 10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형은 수재였어요. 그런데 제 나이 5살 때 형이 중학교 다니다가 학교 폭력으로 맞아서 장 파열로 사망했습니다.

형이 죽고 나니 부모님이 저를 학교에 안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께서 스님에게 애를 맡기면 명이 길어진다는 얘기를 들으셨나봐요. 부모님은 공주의 한 암자로 저를 보냈습니다.

머리를 깍고 행자복 입고 대웅전 청소하고 절하고 염불하곤 했습니다. 1년 반 쯤 절에서 있다 기관지가 좋지 않아 시내에 어머니와 병원에 가기 위해 나섰습니다. 14살이었어요. 차 창가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보니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1년 늦게 고등국민학교라고 중학교 전에 다니는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판단을 내린 게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거였죠. 당시 학교에 안 들어갔으면 스님이 됐겠죠. 그 선택으로 스님이 안 되고 은행장이 됐어요.

Q: 어렵게 얻은 아드님이 초파일에 태어나기도 했지만 불심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은행일을 하시느라 바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불교 종립학교를 계속 나왔지만 삶이 바쁘니 아내가 진관사에 다닐 때 함께 가서 절하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한 건 현재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을 만나고 나서죠.

2010년 제가 국민은행장을 하던 시절 군종교구장으로 계셨습니다. 당시 자광 스님은 논산 연무대에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모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저에게 군불교후원회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흔쾌히 맡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불교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은행장으로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과거 국민은행이 군 내 금융거래를 독점했는데 신한은행에 뺏겼던 상황이었습니다.

국방부 고위직들을 만나면 다들 젊었을 때는 국민은행을 썼는데, 왜 지금은 신한은행이냐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임기 중이든 임기가 끝나든 반드시 군 내 금융거래를 찾아오겠다고 원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군불교후원회장을 맡아 자광 스님과 130억원을 모연해 법당을 지었습니다. 거의 다 자광 스님이 하시고 저는 조금 거들었는데 2012년 불자대상도 받게 됐습니다.

Q: 최근 사회가 상생, 더불어 사는 사회가 화두입니다. 기업이나 조직의 새로운 성장 동력 얻는데 화합과 상생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은행장을 하시면서 많은 기업을 상대하셨잖아요. 그 많은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보셨을 텐데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부처님 뜻대로 보면 모든 게 연기법에 의해서 이것과 저것이 인연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부모님의 인연에 의해 이뤄진 것이죠. 모든 것이 관련된 인연이기에 항상 상생이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밝혔듯 '나만 잘 살겠다' 하면 오래 못갑니다. 거상 임상옥은 장사는 이문을 남기지 않고, 사람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현재에도 대입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어려워져도 주위를 챙겼던 기업은 다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돌아옵니다.

Q: 요즘 봉사를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봉사하시면서 얻은 기쁨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봉사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서 옴부즈맨으로 2년 간 봉사를 했습니다. 한국베트남문화교류협회도 도와준 적이 있어요. 저는 요청만 오면, 특히 벤처기업들도 많이 돕고, 무보수로 도와줍니다. 올이프라는 기업도 창업에 있어서 도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업이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프라나 경영능력이 있어야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진 경륜을 활용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재능기부를 해서 그 기업이 성장하면 큰 기쁨을 느낍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제 경력과 연륜,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 하겠다는 게 좌우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룰 건 다 이뤘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를 필요로 하는 신생기업들이나 사회단체, 어디든 막론하고 언제든 가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취업, 실업, 창업문제에 대해서도 봉사할 의향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아쉬웠거나 회한으로 남는 순간들이 있었나요?

너무 직장에만 열정을 쏟았던 것 같아요. 가정에는 무척 소홀했죠. 일에만 올인하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생은 가정에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집에서 아내를 위해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것도 재능기부에 들어갈까요?



좌선의 정례화… 四時坐禪

〈사시좌선〉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⑬ 사시좌선(四時坐禪)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의 선원은 모두 하루에 4번 좌선을 한다. 새벽 · 오전 · 오후 · 저녁. 이것을 '사시좌선(四時坐禪)'이라고 하는데, 사시좌선이 제도화, 정례화 되는 것은 남송시대(1226년) 이후부터이다. 그 이전 즉 당 · 북송시대까지 좌선은 정례화 하지 않았다. '프리(free)'였다. 즉 좌선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청규에서 처음으로 좌선의 횟수와 시간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청규는 남송 후기에 편찬(1264년)된 무량종수의 〈입중수지(入衆須知)〉 '좌선' 편과 남송 후기에 유면(惟勉)이 편찬(1274년)한 〈총림교정청규총요(叢林校定淸規總要, 함순청규)〉 '좌선좌당방참(坐禪坐堂放參)' 편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청규인 장로종색의 〈선원청규〉(1103년, 북송 후기)에는 좌선에 대하여 일체 언급이 없다. 언급이 없다는 것은 종래와 같기 때문이다. 종래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당 · 북송시대에는 좌선을 정례화하지 않았음, 프리였음),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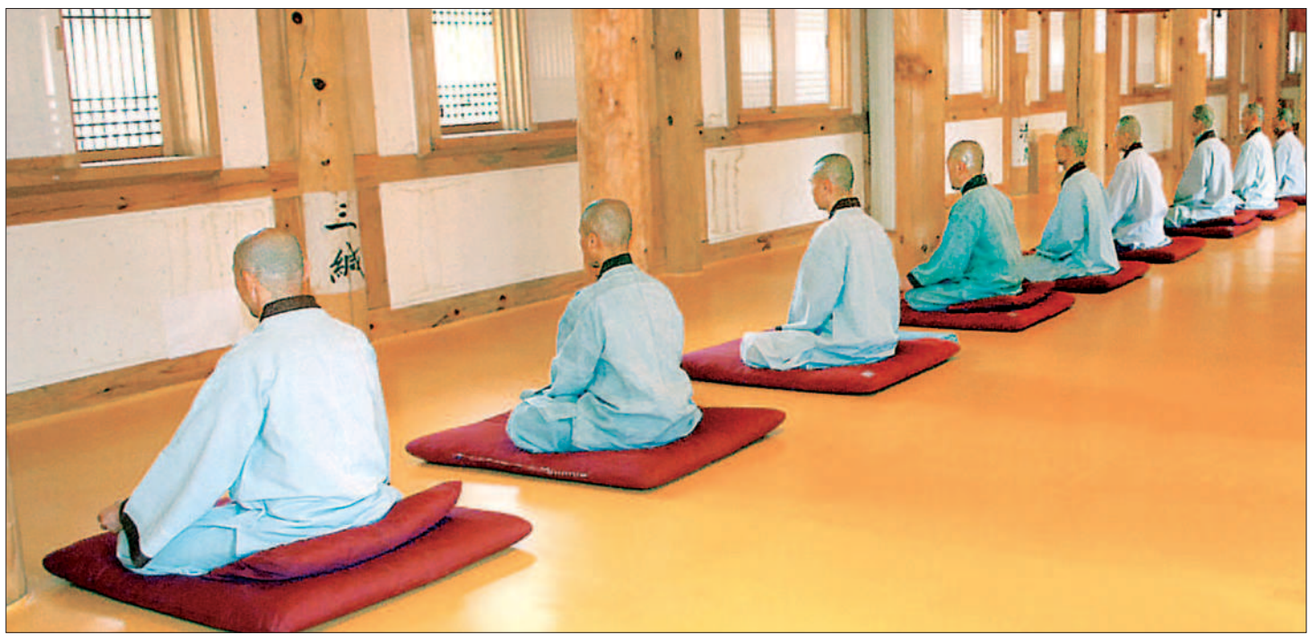
좌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앞의 두 중국 청규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시기적으로는 〈입중수지〉가 10년 앞서지만, 내용적으로는 〈총림교정청규총요〉가 좀 더 구체적이다. 그러나 사시좌선(四時坐禪)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청규는 영평도겐(道元, 1200~1253)의 〈영평청규〉 '판도법'(1245)이다. 도겐(道元)은 24세(1224년) 때 천동사 천동여정의 문하에서 약 4년간 좌선 판도(辦道 · 수행) 후 28세에 귀국하여 일본 조동종을 개창한 선승이다. 그의 '판도법'은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다. 앞의 〈입중수지(入衆須知)〉(1264년)보다는 19년 앞서고, 유면(有)의 〈총림교정청규총요(일명 함순청규)〉(1274년)보다는 29년이나 앞선다. 따라서 좌선의 제도화, 정례화나 또 하루 횟수에 관한 청규의 기록으로는 가장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도겐의 〈영평청규〉 '판도법'과 〈입중수지(入衆須知)〉, 유면의 〈총림교정청규총요(일명 함순청규)〉, 그리고 무착도충의 〈선림상기전(禪林象器箋)〉과 〈선학대사전(大修館발행)〉 등을 바탕으로 사시좌선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시(四時) 좌선은 새벽 좌선인 후야좌선(後夜坐禪), 오전 좌선인 조신좌선(早晨坐禪), 오후 좌선인 포시좌선(哺時坐禪, 오후 좌선), 그리고 저녁 좌선인 황혼좌선(黃昏坐禪)이다.

(1) 후야좌선(後夜坐禪, 새벽 좌선)

새벽 좌선. 후야(後夜)는 시간적으로 밤 자정(12시)부터 새벽까지를 가리키는데, 새벽 한 시부터 다섯 시까지의 시간을 가리킨다. 후야좌선을 주로 '효천좌선(曉天坐禪)'이라고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송시대 선종사원은 새벽 4시에 기상한다. 효천좌선은 새벽 4시 20분이나 30분경부터 시작하여 5시나 5시 10분이면 마친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시 좌선'은 남송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남송 때에는 선종사원에서도 예불을 했다. 새벽 예불은 좌선 후에 하는데, 약 40~50분 정도이다.(필자의 책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에서는 새벽 예불은 효천좌선 즉 새벽 좌선 전에 한 것으로 쓰고 있으나 오류이다.)

필자가 2018년 4월 일본 후쿠이에 있는 에이헤이지(永平寺)에 가서 좌선체험을 다녀왔는데, 대중들은 새벽 4시 20분경부터 시작하여 40분 좌선하고 5시경에 마친다. 이것이 효천좌선이다. 그리고 새벽 5시부터 약 40~50분 동안 조사당에서 헌다(獻茶)와 풍경(諷經, 독경) 등이 있었는데, 의외로 새벽에 대웅전에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안내하는 스님에게 질문했더니 새벽에 불전(대웅전)에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대웅전에서 하는 것은 사시공양과 저녁예불만 한다는 것이다.



남송시대 이후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 일본의 선원은 모두 하루 4번 좌선을 하게 되었다. 새벽 · 오전 · 오후 · 저녁 4번 하는 '사시좌선'이다.

남송시대 좌선 방식 정례화
한 · 중 · 일 선원 '사시좌선'
일주향 피워 시간 측정

(2) 조신좌선(早晨坐禪, 오전 좌선)

오전 좌선을 가리킨다. 아침 공양 후 청소를 마치고 시작한다. 조참(아침 법문)이 있을 때는 그보다 더 늦게 한다. 오전 10시 40분 경에 고원(庫院 · 주방)에서 곧 점심 공양이 있게 됨을 알리는 화판(火板 · 庫院의 雲版) 소리가 나면 방선한다. 조신좌선은 대략 2시간 정도 좌선하는데, 40분 씩 좌선하고 15~20분 씩 경행을 한다. 사시 좌선 가운데, 가장 많은 좌선 시간이 할애된다.

(3) 포시좌선(哺時坐禪, 오후 좌선)

오후 좌선을 가리킨다. 포시는 시간적으로 미시(未時 · 1시~3시)를 가리키지만, 실제 좌선은 미시의 끝인 오후 3시에 해당하는데, 3시경에 시작하여 3시 40분경에 마친다. 오후 좌선인 포시좌선의 경우는 바쁜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총림교정청규총요(함순청규)〉에는 "점심 공양 후에는 좌선을 알리는 판(板)을 치지 않는다. 공부하는 학인은 여기에 구애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포시 좌선은 꼭 참석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으로서 개인의 시간 여하에 맡겼다고 볼 수 있다[隨意坐禪]. 오후 좌선인 포시좌선은 가사는 입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좌선한다. 그 이유는 소임 등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좌선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4) 황혼좌선(黃昏坐禪)

저녁 좌선. 초야에 하므로 '초야 좌선(初夜坐禪)'이라고도 한다. 황혼좌선은 저녁 7시경에 시작하여 8시 30분경에 마친다. 좌선을 시작하기 전에 유나는 좌선이 있음을 알리는 좌선패(坐禪牌)를 승당(僧堂)과 중료(衆寮 · 대중방, 큰방) 앞에 건다. 그런 후에는 좌선판(坐禪板 · 좌선을 알리는 판)을 친다. 좌선판을 치면 수좌와 대중들은 가사를 입고 승당으로 들어간다. 오후 좌선인 포시좌선에는 가사를 입지 않는다. 모든 납자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면벽 좌선한다. 다만 수좌는 면벽하지 않는다(수좌는 감독하기 위하여 앞을 보고 좌선한다).

대중들은 모두 장련상(長連床)의 자기 자리에 앉아서 좌선을 하고 다만 주지는 의자에 앉아서 성승(聖僧 · 僧形文殊像)을 향하여 좌선한다(주지 즉 방장은 선당 가운데 모셔져 있는 문수상을 향하여 좌선한다. 의자에 앉아서 좌선하는데, 바닥이 복도로서 벽돌이기 때문이다).

좌선 시간은 장향 일주향(長香一炷香, 40분)

이상과 같이 남송시대부터는 하루에 4번 좌선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중국, 일본도 남송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루 4회 좌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시좌선(四時坐禪)'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하루에 좌선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야 다섯 시간을 넘지 않는다. 당송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남송시대에도 모든 일을 전폐하고 오로지 좌선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상당법문과 조참 · 만참 · 독참, 그리고 각자 맡은 바 소임 등을 하고 나면 실제 좌선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다만 비교적 한가한 겨울에는 좀 더 했고, 또 선칠(禪七, 7일간 용맹정진) 등 특별 정진 기간에는 3시간 정도만 자고 좌선하는 때도 있었다.

그리고 좌선을 할 때는 장향 일주향(長香一炷香)을 피웠다. 일주향을 피우는 이유는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였다. 향이 다 타려면 약 40분이 걸렸는데, 한 번 앉으면 약 40분 정도 좌선했음을 알 수 있다.

당송시대에는 관아(官衙)는 물론이고, 선원총림에서도 향(香)을 피워서 시간을 체크했다. 그 향을 '일주향(一炷香)' '장향 일주향(長香一炷香)', 또는 '선향(線香)'이라고 불렀는데, 향 한 개의 소진 시간은 약 40분이었다.

입선(入禪)할 때는 유나가 석목(析木 · 각목 두 개. 우리나라는 죽비를 친다)을 한 번 치고 인경(引磬)을 세 번 치면 입정(入定, 入禪)을 한다. 그와 동시에 일주향을 피운다. 향이 다 타면 향을 관리하는 향사(香司)가 유나에게 고(告)한다. 이어 유나가 석목을 치면 주지, 수좌 순서로 일어나서 경행을 한다. 경행 시간은 약 10~15분 가량이다.

그리고 평소 개별적으로 더 좌선을 하고 싶을 때는 야좌(夜坐)를 이용한다. 야좌는 밤 9시 취침종이 울린 이후에 혼자 밖에 나가거나 마루 등 다른 공간에서 혼자 하는 좌선[獨坐]을 말한다. 또 정규 좌선 외의 정종좌선(定鐘坐禪)이 있다. 정종좌선은 저녁좌선인 황혼좌선을 마치자마자(8시 30분경) 곧바로 하는데, "정종좌선이오(定鐘坐禪)이오"라고 말하면 잠시 경행을 한 후 계속 좌선을 한다. 영평사 도겐(道元) 선사가 천동여정 문하(천동사)에서 수행할 적에 밤 10시까지 좌선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야좌나 정종좌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선종사원에서는 포살이나 불사, 행사, 보청(울력)이 많은 날이나 행사가 있는 날 등에는 좌선을 하지 않는다. 한여름 무더울 때도 좌선을 하지 않는다(방선). 무덥고 피곤하면 졸음이 와서 좌선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농사 등 잡무가 별로 없는 겨울과 납월 팔일(臘月八日. 성도일)에는 선칠(禪七, 7일 특별 용맹정진), 또는 가행정진(加行精進)등 특별 정진을 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잠을 전혀 자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 3, 4시간 정도는 자면서 좌선한다.

경책(警策, 죽비)

당일 선당의 당번(當番)을 직당(直堂, 해당 일의 당번)이라고 하는데, 직당은 '경책(警策)'이라고 쓴 큰 막대를 메고 복도를 왕래한다. '경책(警策)'이란 경각(警覺) · 책려(策勵)한다는 뜻인데, 끄덕끄덕 조는 사람이나 허리가 굽은 사람, 두 엄지손가락이 떨어져 있으면 죽비로 어깨를 친다. 살살 치지 않고 매우 강하게 친다. 경책은 길이가 4적 2촌으로 약 140센티가 된다. 손잡이 쪽은 원형이고 끝 쪽으로 가면서 얇고 평평하다. 참나무과에 속하는 단단한 나무로 만든다.

경책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장군죽비(將軍竹)'라고 하는데, 이는 선원청규에는 없는 말로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비속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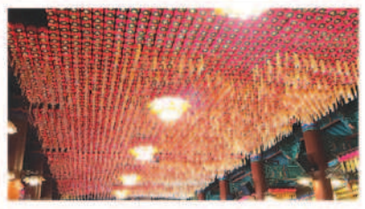
'장군죽비'라는 말은 백파긍선(白坡亘璇 · 1767~1852)의 〈선문수경〉 간당십통설(看堂十統說)과 〈작법귀감〉 하권(139쪽)에도 나온다. 〈선문수경〉에는 "장군죽비를 한 번 치면 벽을 향하여 앉는다(將軍竹 一聲 向壁而坐)." 그리고 〈작법귀감〉에는 "장군죽비를 벽에 한 번치면 무명의 껍질을 타파한다(將軍竹 擊壁一聲 打破無明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로 본다면 '장군죽비'라는 말은 백파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것 같다. 조선시대부터 장군죽비는 좌선 시에 경책(警策) 용으로도 쓰였고, 시식문(施食文)에서 영가 천도용으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운허 스님의 〈불교사전〉 '장군죽비(將軍竹)' 항목에는 "절의 큰 방 어간 문설주에 걸어 두는 장척(長尺). 대중의 행좌(行坐)와 위열(位列)을 바르게 하는 것인데, 시속(時俗)에서 이것을 장군죽비라 함은 잘못된 말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운허 스님이 '시속(時俗)'이라고 한 것을 보면 처음에는 세속인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선원에서도 점차 오염되어 통용된 것 같다.

경행을 할 때는 대중 모두가 장련상(長連床, 좌선상)에서 내려와 좌차(座次, 앉는 순서)에 따라 한 줄로 줄을 지어서 선당 중앙의 복도를 왕래한다. 경행법은 한 호흡에 반보행(半步行)으로 오늘날과 같다. 경행 시간은 약 15분 전후인데 이때 동사(東司 · 화장실)에 갈 사람은 동사에 가고,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물을 마실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시간을 주기로 50분 좌선하고 10분 경행한다.

〈민족사 대표〉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공단등

만월등

불기등


사찰 고유의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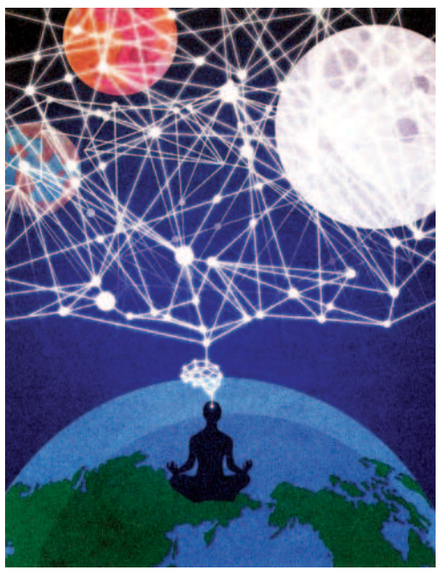
이번주 베스트불서 1위는…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이 책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유심조, 공(空), 불이(不二), 구족(具足)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한 체험을 소개한 설법집이다.
저자 김원수 법사(전 홍익대 공대 교수)는 이 책에서 난민이 된 청년들, 노인 빈곤층, 고독사 증가, 인구감소로 암울한 미래, 대량실업과 해고위기 등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시대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한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6 ~ 7/12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카르마 100일 (보현스님의 행복 체크카드)	보현스님	부처님마을
2	그대는 꽃입니다(새로운 시작을 위한 행복한 첫걸음)	천룡스님/효석스님	사유수	7	친우서 – 친구(왕)에게 보내는 편지	용수보살	운주사
3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8	화엄경, 보살의 길을 열다	윤홍식	봉황동래
4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불교 명구 365	무비스님	불광출판사	9	도표로 읽는 경전입문	정운스님/배종훈	민족사
5	중론(용수의 사상, 저술, 생애의 모든 것)	가츠라 쇼류 외	불광출판사	10	위빠사나 명상일기	영선	운주사

‘본래마음’을 구해 병든 삶을 치유하다



모든 경계를 허무는 인간의 본래마음, ‘공적영지’
우리는 왜 ‘대상’만 알고
대상을 아는 ‘마음’은 알지 못하는가
표층의식 너머 ‘공적영지’에서 답을 구하다
‘본래마음’으로 인간과 세계 고찰한 사유 결정체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김영사 펴냄/1만 3천원/한자경 지음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우리는 진정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까? 우주 만물은 모두 알되 그렇게 아는 자기 자신은 왜 모를까? 세상 모든 것은 드러난 모습이 서로 다르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임을 이미 아는 마음이 ‘공적영지(空寂靈知)’이다. 이 말은 인간의 본래 마음을 밝혀 숨 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짚어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이화여대 한자경 교수의 사유 결정체이다. 한 교수의 이번 책은 경쟁사회서 소외와 우울,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근본적인 치유의 길을 제시하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안내한 교양 철학서이다.

표층에 머무르는 의식은 옷은 보되 옷입은 사람은 보지 못하고, 말은 듣되 말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의식이다. 마음의 본성을 알지 못하므로 자신과 남에 대해서도 오직 드러난 모습에 따라 판단하고 단정한다. 상(相)을 따라 떠다닐 뿐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다. 현대인은 표층에 부유하면서 바닥에 닿을 내리지 못하는 방랑자들이다.

보이는 것이 없는 허공(空)과 같은 마음, 들리는 것이 없는 적적한(寂) 마음이 자신을 신령하게(靈) 아는 공적영지이다. 이 심층 마음의 빛을 우리는 본래 갖추고 있다. 이것을 자각함으로써만 세상 모든 것이 드러난 모습은 다르지만, 근본에서는 서로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표층에서의 부유를 멈춘다.

인간의 심층 마음을 일관되게 연구해 자신만의 고유한 사유체계를 정립한 ‘일심의 철학자’ 한자경 교수가 그의 사유의 정수만을 모아 쉽고 명쾌하게 풀어낸 대중 철학서이다. 이미 저자는 1993년 제5회 서우철학상(〈칸트와 초월철학: 인간이란 무엇인가〉), 2008년 제2회 청송학술상(〈불교의 무아론〉), 2012년 제3회 원효학술상(〈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 2013년 제10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대승기신론 강해〉), 2017년 제7회 반야학술상(〈심층마음의 연구〉)을 수상하며 국내 학계서 호평 받은 바 있다.

서문에서 저자는 “그동안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고 생각해 얻은 결론들을 가능한 군더더기 없이 간략히 표현해 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듯, 이 책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면서도 그간의 연구가 알알이 녹아있어 심오한 사유를 가능케 한다.

사람들은 선과 악, 미와 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나와 나 아닌 것, 몸과 마음 등 일체를 크게 둘로 나눠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원적 사고는 차이를 본질로 규정하면서 공통점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개인주의로 이어진다. 분별은 둘 사이의 경계인 장벽을 세우고 소통을 막으며 둘 중 하나에 나를 가둔다. 장벽 이쪽은 나이고, 장벽 저쪽은 너이다. 둘의 관계는 시소와도 같아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이 내려간다.

하지만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는 것처럼, ‘나’가 ‘나’인 것은 ‘나 아닌 것’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개별자는 자신이 아닌 것을 통해 자신이 되는 ‘상즉(相卽)’의 존재이다. 그런데 ‘나’는 내 앞의 사과를 ‘나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그 사과를 먹으면 그것이 나의 살과 뼈가 되는 것처럼, ‘나 아닌 것’이 ‘나’가 된다. 그리고 그 사과는 지구의 땅과 물, 햇빛과 공기 등을 통해 자라났기 때문에 그 사과에는 ‘우주’가 포함되어 있다.

즉 일체는 ‘상입(相入)’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우리를 전체의 하나로 인도한다. 전체의 하나는 절대 무한의 마음이다. 무한으로 나아간 마음은 그 안에 보이는 것이 없는 허공과 같은 마음이고 그 안에 들리는 것이 없는 적적한 마음, 공적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본래적 각성으로 깨어있는 ‘아는 자’로서의 마음이기도 하다. 공적의 마음이 자신을 신령하게(영) 아는(지) 이 것을 공적영지라 한다. 현대인은 공적영지를 망각하고, 의식되는 것을 자기 밖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표층의식이 마음활동의 전부라고 여긴다. 이는 ‘꿈꾸는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를 ‘꿈속의 나’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 표층에 머무르는 의식은 심층의 본성을 알지 못하므로 자신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오직 드러난 모습인 상(相)을 따라 판단하고 평가하며 단정한다. 현대인은 상을 따라 표층에서 부유할 뿐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다.

심층을 망각하고 세상을 보면 존재하는 것은 모두 표층 개별자일 뿐이다. 분별 이전의 공통의 기반은 모두 사라지고 개별자들은 허공에 부유하며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도모한다.

이런 삶은 타인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게 하고, 상대를 비교와 경쟁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한다. 친구도 동료도 경쟁 대상이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게 된다. 비교와 경쟁에 익숙해지면 현재는 오로지 성공하는 미래를 위한 수단이 되고, 결국 현재가 없는 삶이 된다. 성공 지향적 인간은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행복은 현재의 느낌인데 현재가 늘 비어있기 때문이다.

보물은 현재 내가 갖지 못해 새롭게 획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언제나 갖추어져 있어 내가 그 소중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의식의 문턱 아래 있는 것,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본에 속한 것이다. 그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심층마음이다. 진정한 행복은 비교와 경쟁을 멈추고 내 본래마음을 알아차림으로써만 도달할 수 있다. 경쟁사회 속에서 우울과 불안, 소외를 안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 책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심층마음으로 지금 여기의 ‘나’와 내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게 해준다.

송시 속에는 어떤 시대정신과 선학이 들어 있을까?



송시의 선학적 이해

박영환 지음/운주사 펴냄/2만 7천원

중국문학의 최고봉으로 평가되는 송대의 문학. 이 책은 그 가운데서도 백미라 할 수 있는 송대의 시가(詩歌)를 선종의 관점서 회통과 융합이란 주제로 치밀하게 연구한 역작이다. 이를 통해 송(남북송)대의 문학(시)에 대한 불교(선종)의 영향과, 양자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밝힌다.

중국 문화사서 송대는 각별한 위치를 가진다. 중국 역사상 송나라 때가 중국 문화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문화의 회통성과 융합성이 작용한 결과로, 특히 시가와 회화의 결합서 두드러지게 표현돼 문화의 찬란한 꽃을 피웠다. 그 가운데 송대 시가는 유·불·도 회통이라는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는데, 특히 ‘유가들의 선종화’와 ‘선승들의 유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송시는 선적인 사유로 새로운 혁신을 추구했기에 당시(唐詩)와는 다른 새로운 특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주로 송대 선학(禪學)의 시각서 바라본 송시에 대한 연구이다. 선학에 있어서 문자선·간화선·묵조선을 강령으로 삼고, 송시의 대가들을 맥락으로 하여 송대 시가사 전체를 조망하고 있다. 이들 대가들의 시작과 논시를 보면 모두 불교와 밀접한 인연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선종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특히 지금까지의 연구가 대부분 소식과 왕안석·황정견 등 대가들에게만 집중돼 제한적이었으나, 저자가 이 책서 언급하는 범위는 크게 확대돼, 위로는 송대 전기의 범중엄·구양수·왕안석, 아래로는 남송의 육유·양만리·범성대·강서시파·영가사령 등 전반적으로 송시의 대가들을 거의 모두 아우른다.

중국 송대는 융합과 회통의 시대였다. 유학을 빌어 선종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원유증선(援儒證禪)’의 유행과 그 영향으로 문자선과 간화선이 출현했다. 선종을 빌어 유학의 사상적인 깊이를 추구한 ‘원선입유’의 사조는 성리학을 탄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유불 간의 융합과 회통은 송대 문자선, 간화선, 묵조선의 발흥에 영향을 미치면서 송대 선종은 전성기를 맞이한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서 특히 제 4부 ‘간화선과 남송 시단’에서는 문자선으로 말미암아 성행한 북송 시단에 비해 남송서는 문자선을 비판하며 나온 간화선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에 따라 남송 시단에 나타난 변화와 대표적 남송 시인들을 고찰한다. 먼저 애국시인 육유와 간화선의 창시자 대혜종고의 교유, 거기서 나온 이선유시와 시가삼매를 다루고, 이어 양만리의 시가 이론과 이선입시의 시가를, 그리고 범성대의 불문과의 교유와 입처개진, 반야공관에 입각한 시가를 탐구한다.

이 책은 한마디로 송대에 가장 크게 번성한 선종과 송대 문학의 백미인 송시가 어떤 시대정신 속에서 만나고, 어떻게 새로운 차원의 문학을 창출하였는가를 인물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중국불교와 송대의 선종, 특히 송시宋詩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부여해 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대승불교 수행의 핵심 가르침!

親友書 친구(왕)에게 보내는 편지

용수보살 지음
수다지 캔뽀 한역 및 강설
지엄 편역 / 신국판 양장
504쪽 / 값 25,000원

제2의 붓다로 불리는 용수보살이 친구인 왕에게 경전의 요점과 수행의 비결을 게송으로 풀어 가르친 것으로, 대승불교 전체의 교리와 수행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

지난 역사 속에서 발생하였던 윤회와 인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역사적 진실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만을 골라 엮었다.

석운광 지음 / 국판 / 200쪽 / 값 10,000원



우리말 팔천송반야경

반야경전 중 가장 오래된, 대승불교의 근본 경전!

일상에서 흔히 쓰는 현대 우리말로 쉽게 풀어 옮겨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치 설법과 대화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박이오 역 / 신국판 양장 / 368쪽 / 값 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어디로 가나요 그대들은?”

김양수 선서화 초대개인전 ‘무진법문’ 展

화엄사성보박물관서, 8월 1~31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어디로 가나요 그대들은?”

달빛 드리운 연못, 달빛 밑으로 물고기들이 줄을 지어 지나가고, 바위에 걸터앉은 개구리가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묻는다. 언어란 입 밖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한 폭의 그림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 개구리가 물고기들에게 묻고 있으니 말이다. 누구도 답할 수 없는, 그 어렵고 끝이 없는 질문을 개구리가 물고기들에게 하고 있다. 한 폭의 그림은 무진법문이다. 그동안 바람, 새, 꽃피우는 소리, 나비의 날갯짓 등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자연 속의 법문을 담백한 수묵으로 그려온 김양수(一休 · 58) 화백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화엄사성보박물관에서 초대개인전 ‘무진법문’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개구리가 만들어내는 풍경 30여 점이 전시된다. 대나무밭에 앉아 몰아치는 비바람을 ‘고요’ 속에 담아내고 있는 한 쌍의 개구리, 홀로 앉자 이슬로 차 한 잔을 짓는 개구리, 석탑에 앉아 잠 못 이루는 개구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노래하고 기도하는 개구리가족, 개구리들은 시원한 바람을 만들며 화엄사로 뛰어 들어와 무진법문을 한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늘 고요합니다.”

“이슬을 받아 당신께 차 한 잔 끓여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봄빛에 흔들리지 않는 게 있던가요?”

개구리는 물의 상상계를 대표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로 신화나 도상에 자주 등장한다. 특히나 동아시아인들에게는 복을 지니고 집으로 들어온다는 기복적 믿음의 상징이기도 하다. 김 화백은 유년의 추억 속에서 개구리를 가져왔다. 그리고 세월의 두께와 깊이에 그 개구리를 풀어놓았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과 모든 이들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림을 그렸다.

김 화백은 불교계에서 널리 알려진 선화가이며, 시인이다. 그 동안 그려온 그의 수묵화는 생략과 절제, 여백의 미학으로 선(禪)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그림 위에 또 다른 그림으로 던져놓은 시어들은 보는 이들의 마음에 많은 위로와 치유를 주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의 소재는 개구리들이다. 개구리를 통해 우리 일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자아를 들여다보게 하고 성찰하게 한다. 가벼운 색채는 화면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서정과 해학은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의 그늘을 덜어낸다. 그의 그림과 글은 간결하고 짤막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종이에 번진 그림 속 먹물처럼 가슴의 끝에서 차분하게, 진하게 번져온다.


김양수 作, ‘무진법문’ 展 中에서.

산사의 벽에 걸린 선화, 그 여법한 화장(畵藏)세계에서 잠시나마 고요한 자신을 만나보면 어떨까. 선화가 주는 새로운 언어의 세계를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양수 화백은 동국대학교와 중국중앙미술학교에서 벽화를 전공했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28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동국대 예술대학과 성신여대 겸임교수를 지냈다. 시화집으로 〈내속 뜰에도 상사화가 핀다〉 〈고요를 본다〉 〈함께 걸어요 그 꽃길〉 〈새벽별에게 꽃을 전하는 마음〉을 출간했다. (061)783-7610

불상의 시작, 간다라 미술

‘미소로 나투신 부처님–불상의 기원 · 간다라 미술’ 展

서울 갤러리 아트링크 7월 5일부터 31일까지


부처의 기적, 112×42㎝, 2~3세기.

불교미술의 도상학적 기원으로 알려진 간다라(현 파키스탄) 불상들이 전시되고 있다. 서울 갤러리 아트링크는 7월 5일부터 31일까지 ‘미소로 나투신 부처님-불상의 기원 · 간다라 미술’ 展을 통해 2~4세기 간다라 지역에서 조성된 불상 1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2017년 6월 예술의 전당에서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과 페샤와르 박물관, 라호르 박물관 주최로 열렸던 ‘알렉산더가 만난 붓다’ 展을 통해 소개됐던 67점의 불상 중 ‘부처입상’과 ‘부처님 발자국’, ‘금강수보살’, ‘보살교각상’, ‘미륵보살교각상’ 등 세계 여러 지역의 개인 소장품들을 모은 것이다.

지난 ‘알렉산더가 만난 붓다’ 展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간다라 유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 불상의 기원인 간다라 불상을 또 한 번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전시의 의미일 것이다.

아트링크 이경은 대표는 “간다라 불상은 나발이나 수인 등 ‘불상’으로서의 도상(ICON)이 확립되기 전의 불상이다. 간다라에서 각지로 전파되어 도상이 확립된 오늘날의 불상과 비교해 본다면 관람의 의미가 배가될 것이다”고 말했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약 400여 년 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상이 조성되지 않았다. 불상 조성은 기원 후 1세기 지나서야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불상의 기원으로 알려진 간다라 미술은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으로 인해 그리스 문화와 동양 문화가 만나 탄생했다. 신을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하려 했던 그리스 문명과 간다라 지역에서 일어난 대승불교 사상이 만나 불상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불상의 기원’이다. 당시 간다라 지역에서는 대승불교 사상을 반영하듯 부처님상과 더불어 보살상이 많이 조성되었는데, 작품에는 불법에 귀의하고 보살행을 통해 열반에 이르고자 했던 당시 왕족과 귀족의 장신구와 복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당시 사람들의 상상과 염원으로 조성된 부처님상은 전생담과 초기불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또한 그리스의 헤라클레스가 사천왕으로 융합된 모습, 조로아스터(배화교) 신자들과 함께 부처님께 경배 드리는 모습, 전형적인 그리스 꽃 줄 문양이 새겨진 스투파 사리함 등 조각품의 곳곳엔 당시 간다라 지역에서 평화롭게 공존했던 여러 종교의 설화와 문화가 함께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간다라 불상의 의미는 불교미술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치와 함께 불교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신전을 받치는 코린트식 기둥 안에 법륜, 연꽃, 삼보 경배의 상징이 새겨진 부처님의 발자국, 2000년 전의 사리함은 특별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2500년 전의 부처님 모습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볼 수 있는 시간이다. (02)738-0738

박재완 기자

명호 속 가르침 선명서화로

운곡 스님 선명서화 展

8월 3일~6일, 금정문화회관


운곡 스님 作, ‘없을 무’.

부산 을파소 대관음사 주지 운곡 스님은 부처님의 명호와 선사의 법명을 선서화로 그려왔다. 불자들이 부처님의 명호를 간절히 부르며 염불하고 기도하듯, 스님은 명호를 적는 것이 기도였고 수행이었다.

30년 간 선명서화(禪名書畵)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운곡 스님의 첫 전시회가 8월 3일~6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린다.

선명서화는 이름과 불명, 법호, 법명 등을 그림과 서체로 표현한 새로운 선서화로, 특징은 한자를 갑골문자로 새롭게 해석해 마치 그림처럼 이름을 적는 것이다. 운곡 스님은 “갑골문자는 자연의 모습을 닮은 가장 순수한 언어로, 선서화로 담기에 좋은 주제가 된다”며 “이름은 나를 알리는 유일한 도구로 깊이 들여다보면 인생관이 담겨있어 부처님의 명호와 선사의 법명을 그림으로 그릴 때 마다 새롭고 교훈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작품은 선서화 30여점과 선명서화 20여점이 전시되며 개막식은 8월 3일 오후 2시이다.

운곡 스님은 2002년 11월 해인종으로 출가해 2010년 사미계를, 2011년 구족계를 받았다. 현재 해인불교학술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2015년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에서 주관하는 불교미술 선서화 명인으로 등록됐다. 한편, 전시 후 운곡 스님은 불교 포교 활성화를 위한 100만 선명서화 나눔을 8월 11일~11월 18일 100일 동안 진행한다. 010-2458-0860

하성미 부산주재 기자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 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❶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❷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❸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❹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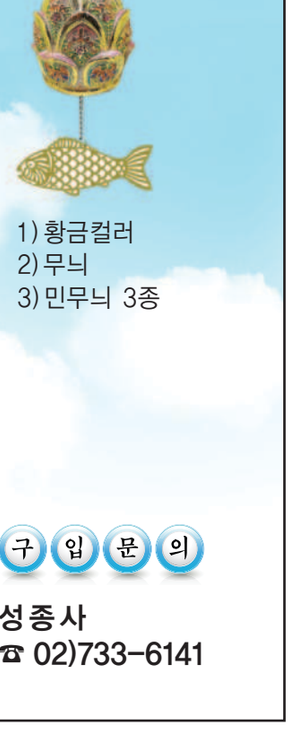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 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이제 처마에도 연꽃을 달자!


연꽃 풍경


1) 황금컬러
2) 무늬
3) 민무늬 3종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

부처님 원음 가르침을 한 권에 담다

전재성 회장 〈통합판 앙굿따라니까야〉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의 원음이 담긴 초기 경전 중 하나인 〈앙굿따라니까야〉는 방대한 분량을 가진 경전이다. 이를 한 권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사진 오른쪽〉은 6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08년 출간한 우리말 〈앙굿따라니까야〉를 한 권으로 엮은 〈통합개정판 앙굿따라니까야 전서〉〈사진 왼쪽〉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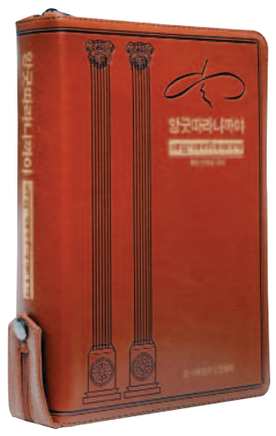
총 11권에 달하는 분량이었지만, 가장 가벼운 종이를 사용해 부피를 줄였고, 가죽표지에 지퍼를 달아 휴대하기 편하게 했다. 이 같은 전서를 발간한 것은 〈쌍윳따라니까야〉에 이어 두 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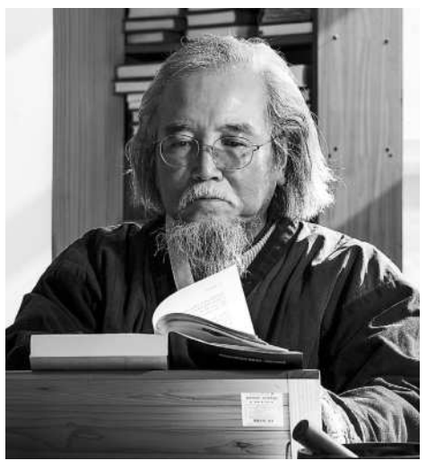
〈앙굿따라니까야〉는 4부 니까야 가운데 가장 나중에 성립됐고 가장 경전 수도 많다. "한역(漢譯)에서는 〈증일아함경〉에 해당하지만 북전 〈잡아함경〉이나 〈중아함경〉과 일치하는 경전이 더 많아 〈증일아함경〉보다 훨씬 원형에 가까운 부처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전 회장의 설명이다.

〈앙굿따라니까야〉의 가장 큰 특징은 법수(法數)로 부처님 가르침을 분류해 편집한 점이다. 이는 〈쌍윳따니까야〉가 내용적 분류에 의한 편집을 보여주는 것과는 대비가 된다.

실제, 〈쌍윳따니까야〉가 철학적 이론과 수행의 주요한 구조를 명확히 표현해주는 짧은 경전들을 집대성했다면, 〈앙굿따라니까야〉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심리적·윤리적인 면을 재가신도의 일상적인 관심과 연결시키는 교육적 측면에서 고려된 짧은 경전들로 이뤄졌다.

전 회장은 "〈앙굿따라니까야〉를 읽어보면 이론적인 측면에서 편집된 것이 주는 선입관에서 벗어나 오히려 친근하게 읽을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면서 "포교를 위한 교재로서 이용하기 가장 좋은 니까야"라고 강조했다.





'쌍윳따라니까야' 이어 두 번째
초판본 윤문·오역 수정해 엮어
3771개 경·4546개 주석들 담아
색인 통해 쉽게 경전 찾기 가능
"니까야, 법문 오케스트라 같아"

전 회장이 새로 선보인 〈앙굿따라니까야 전서〉는 이전에 발간한 초판본 상당 부분을 윤문했고, 오역들도 바로잡았다. 책 분량도 2780여 페이지로 방대하다. 이 안에는 부처님 원음을 담은 3771개의 경과 스님·연구자·신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 4546개가 담겨있다.

번역은 빠알리성전협회(PTS)의 교열원전과 미얀마6차결집본(인터넷판본)을 비교해 생략된 부분을 모두 복원·번역했으며, 적지 않는 '제목조차 없는 경'의 경우 각각의 경 명칭을 부여하면서 번역했다.

이번 전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색인'이다. 대표적 예가 '비유 색인'이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설하며 말씀한 다양한 비유를 경전 내에서 단숨에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전서는 부처님의 설한 비유들을 분류하고 경전을 색인해 독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처님 생애, 윤회, 대인관계 등 주제별 분류 색인, 다른 경전과의 비교·연결 색인 등도 독자들의 수행과 공부를 용이하게 한다.

전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모를 심층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쌍윳따니까야〉와 〈앙굿따라니까야〉를 읽는 것이 필수적이다. 두 니까야는 편집 시기는 차이가 있을 지라도 짧은 경전으로 구성돼 승원적인 전문 수행자의 삶을 대변하는 〈맛지마니까야〉나 〈디가니까야〉에 비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니까야는 부처님 가르침을 부재로 잘 지어진 집과 같고, 아주 조화로운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다"고 예찬했다.

1977년 민중불교론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전 회장은 이후에는 독일에서 유학하며 인도학 및 티베트학을 전공했다. 한국에 돌아온 1989년 현재까지 30여 년간 빠알리어 경전을 번역해오고 있다.

현재 다양한 초기 경전을 만나볼 수 있는 것도 그의 공이 크다. 그는 〈디가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쌍윳따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는 물론 〈율장 대품〉 〈율장 소품〉 〈율장 비구계〉 〈율장 비구니계〉 〈테라가타-장로게〉 〈테리가타-장로니게〉 〈우다나〉 등을 모두 번역해냈다. 올해 3월부터는 〈청정도론〉을 번역 중이며, 9월 중 내놓을 계획이다.

國博, 일제시기 입수 석탑 조사 완료

흥법국사탑비 등 21점…고려 승탑 상륜부 부재 확인

국립박물관에 수장된 석조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국립박물관 미정리 유물 및 자료조사(2010~2020년)'의 일환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조사·수집한 보물 제359호 정토사 홍법국사탑비 등 석조문화재 21점을 조사·완료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국보 제102호 정토사지 홍법국사탑', '국보 제104호 전흥법사지 염거화상탑', '보물 제190호 거돈사지 원공국사탑', '보물 제365호 흥법사지 진공대사탑' 등 4기의 고려시대 승탑 상륜부 부재와 국보 제103호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과 함께 입수한 석사자 4구(軀)가 확인됐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은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와 유리건판 자료, 소장품 입수대장 등을 확인하고, 승탑 상륜부 부재 등은 실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시 중인 승탑과 3D 스캔 실측 및 암질분석도 실시해 비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보물 제365호 흥법사지 진공대사탑 상륜부재.

국립중앙박물관은 "확인된 승탑 상륜부 부재들은 7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상반기까지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할 것"이라며 "석사자 4구는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을 전시하고 있는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옮겨 함께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金石文으로 6세기 신라를 엿보다

경주문화재硏, 19~20일 '신라 금석문' 학술대회

금석문(金石文)을 통해 신라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한국고대사학회(회장 하일식) 공동으로 오는 6월 19~20일 경주 드림센터에서 '6세기 금석문과 신라 사회'를 개최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6세기 금석문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신라 왕경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 원로부터 젊은 학자들까지 다양한 경력의 연구자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설 예정다.

1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학술대회에서는 양일간 기조 강연과 6개의 주제 발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첫째 날은 기조 강연인 '6세기 새로운 금석문의 출현이 신라사 연구에 끼친 영향(주보돈, 경북대)'을 시작으로, △'4~6세기 포항과 울진 지역의 고고학적인 환경(이인숙,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한국 고대 금석문의 발견지와 건립지(하일식, 연세대)' 등이 발표된다.

둘째 날은 '비문으로 본 신라의 정치와 사회'를 주제로 중견학자와 신진 연구자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6세기 초 신라 3비의 서사구조와 6부인의 천손의식(天孫意識)(여호규, 한국외대)' △'금석문을 통해 본 6세기 신라의 법제와 그에 따른 지방민에 대한 인식 변화(윤진석, 계명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신라의 율령과 노동력 체계를 살펴본 '문자자료를 통해 본 6세기 신라의 법제와 역역동원체계(강나리, 고려대)'와 발견 30주년을 맞은 울진 봉평리 신라비(국보 제242호)에 나타난 행정 단위, 직책 이름과 당시 지방행정 체계를 알아보는 '6세기 봉평비의 노인촌과 촌사인(최경선, 연세)'의 발표도 눈여겨볼 만 하다.

신성민 기자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주목! 학술서

술락 사비락사의 〈불교경제학〉



세계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과학기술의 이름으로, 경제개발의 이름으로 파괴와 착취가 자행되고 있다. 여기에 인간은 배제됐다. 경제와 기술, 발전이라는 명제들만 존재한다. 그럼 오롯이 인간을 위한, 생명을 위한,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계적인 참여불교운동가인 술락 시바락사는 저서 〈불교경제학〉을 통해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다.

'불교경제학'이라는 용어는 경제학자 E.F. 슈마허가 가장 먼저 사용했다. 불교경제학에 대해 슈마허는 "불교경제학의 핵심은 단순성과 비폭력"이라며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불교식 생활방식의 경이로움은 그 완전한 합리성에 있다. 지극히 적은 투자로 엄청나게 만족스런 결과를 끌어낸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시바락사는 세계 경제시스템을 지적해 낸다. 그는 현 세계가 '경제개발'이라는 이념에 취해 있고, '소비주의'라는 종교에 빠져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 더 벌려 애쓰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소비를 자극하는 현재의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 한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며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와 불평등과 환경파괴의 끝이 공멸"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돈의 흐름과 숫자 싸움에 빠진 경제학이 아닌 인간을 위한 경제학, 생명을 살리는 경제학, 행복의 디딤돌이 되는 경제학을 창조해야 한다"고 대중에게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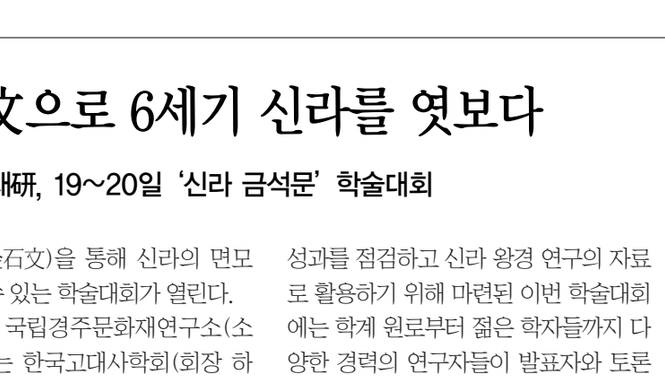
불교경제학은 삶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나의 깨달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개선이 개인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연기적이고 순환적인 발전을 시바락사는 이야기한다.

자칫 문제제기만 잔뜩 늘어놓거나 비판에 그칠 수 있는 주제들이 단숨에 자신의 실천과제로 전환되고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신성민 기자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 40,800원
(무료배송)



희담석 稀潭石
(Batu Hitam) 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하고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 법고·
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박재완의 PhotoEssay



무정의 시간에서

수많은 별들을 지나온 햇살과
수많은 계절을 지나온 풀들이
먼저 시간이 되고
먼저 길이 되어간다

우리의 시간이란 그렇게
그들의 여부에 달렸으니
우리의 길이란 것 또한 그렇게
반 발짝도 그들의 앞에 설 수 없음이니

이 아침에 근심이 있고 없고는
이미 이 시간의 사안이 아님을
풀들이 햇살 쪽으로 기우는 것도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
북치고 종치고 눈을 감아도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일 뿐



정지천의
가족이 건강해지는 비법
⑤ 채식과 육식

피치못할 육식, 양파 마늘로 건강을

중년 이후가 되면 성인병이 증가하기 때문에 육류 섭취는 줄이고 채식 섭취를 늘이는 것이 기본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갱년기장애를 극복하며 노화를 지연시키려면 적당한 육식이 필수적이다. 고기를 먹자니 불안하고 안 먹자니 뭔가 부족하고, 어떻게 먹으면 될까?

고기를 삶아서 먹자

우리나라에서 장수촌에 속하는 제주도에서는 일주일에 삶은 돼지고기를 3회 이상 먹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즐겨 먹는다. 세계 최고의 장수촌인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 돼지고기를 2.5배나 많이 먹는데, 삶아서 기름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먹고 있다. 세계적인 장수촌인 중국 신장 위구르지구의 위구르족의 장수비결에도 하루 200g의 양고기를 먹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역시 푹 삶아서 기름을 없애고 먹는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맛을 위해 고기를 구워먹는 것이 일반화되었지만 전통적인 고기 조리법은 삶는 것이었다.

고기를 구워먹는 것보다 삶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고기를 불에 구울 경우, 몸에 해로운 '인'은 증가하는 반면 이로운 '칼슘'은 감소된다. 또한 불에 구울 경우 벤조피렌, 인돌, 타르 등의 발암물질이 생성된다. 그러니 위구르족이 양고기를 삶아 먹는 것도 장수비결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위구르족의 전통적인 고기 조리법에 의하면 고기를 너무 강한 불이 아닌 적당한 불로 2~3시간 동안 푹 삶으면서 수시로 피와 기름을 제거하고, 고기가 충분히 익으면 채소를 넣고 함께 끓인 뒤 국물은 먹지 않고 버린다고 한다. 게다가 과일을 껍질째 많이 먹는다. 위구르족은 고기를 통해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채소와 과일을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보충하는 것이다.

중국인의 심장병 발병률이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이유는?

중국음식에 양파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양파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양파는 토마토, 수박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세계 3대 채소의 하나인데, 특히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기도 하지만 조리할 때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리며 맛을 더해 주고 생선과 육류의 좋지 못한 냄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기름진 중국요리와 잘 조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람들이 모두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지만 심장병 발병률은 중국인이 10배나 적은 이유가 바로 양파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파는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되는 것을 막아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질환을 예방해 주므로 혈관과 혈액 건강에 최고의 식품이다. 게다가 양파를 찍어 먹는 춘장은 콩으로 만들어져 이소플라본이 들어 있으므로 양파의 항산화작용에 상승효과를 준다고 한다.



고기를 통해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채소와 과일을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보충한다.

건강위해 적당한 육식은 필요
양파, 혈관질환 예방

한의학에서 양파는 매운맛에 따뜻한 성질로서 기를 소통시키고 위장을 조화롭게 하며 비위장을 건실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식욕이 떨어지거나 배가 부르고 설사하는 경우에 쓴다. 뱃속이 차갑고 아프거나 음식을 먹은 것이 내려가지 않고 맺혀서 소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 좋다.

고기를 먹고 싶지만 소화가 안 된다면 마늘을 함께 먹자

한의학에서도 마늘의 수많은 효능 가운데 소화력이 뛰어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소화를 시키는데도 열에너지가 필요하므로 몸에 열이 많으면 소화가 잘되고 열이 부족하면 소화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특히 비위장에 열이 많은 경우는 소화가 잘되지만, 비위장이 냉하면 소화가 잘되지 않아 항상 속이 더부룩하다. 마늘은 따뜻한 성질로서 비위장을 따뜻하게 하므로 소화기능을 증진시켜준다. 게다가 응어리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으므로 음식 먹은 것이 맺히고 막혀 있거나 배가 차가우면서 아픈 것을 치료한다. 아울러 설사, 이질의 치료에도 좋다.

특히 마늘은 '화육식(化肉食)'이라 하여 고기를 잘 소화시킨다고 한의서에 나와 있다. 특히 차가운 성질을 가진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마늘을 함께 먹는 것이 좋다. 생선회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다.

마늘의 소화 작용을 발휘하게 하는 성분은?

고기를 먹을 때 마늘을 함께 먹으면 좋은 것은 고기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맛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응고시켜 위장에 대한 자극을 부드럽게 하여 소화를 잘 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알리신은 위와 장점막의 세포를 자극해서 소화액과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위와 장의 소화력을 높여주고 식욕을 증진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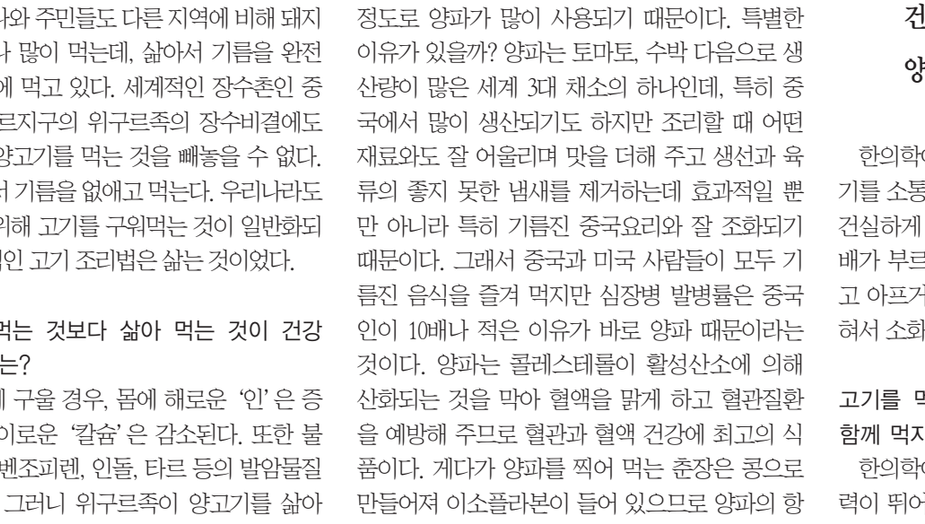
아울러 위점막의 저항력도 강하게 해서 건강한 위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 특히 알리신 성분은 위장의 내벽으로부터 직접 흡수되어 효능이 빠르게 나타나는데, 알리신이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생긴 알리티아민(alliithiamin)은 위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작용을 하므로 소화불량을 해결해 준다. 또한 캡사이신(capsicin) 성분도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히노하라박사의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에 나오는 육식은?

일본의 대표적인 노화학자로서 2017년에 10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까지 현역 심장내과 의사로 활동했던 히노하라 박사(1911~2017)는 '인생에 은퇴는 없다'는 신념 아래 활기찬 노년생활을 주창하는 대중운동과 저술 활동을 활기차게 펼쳤다.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소식을 했지만 일주일에 두 번은 지방이 없는 고기를 100g씩 먹었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2018년 한마음선원 여름 수련회

지원명	분 류	주 제	기 간	장 소	기 타
본 원	• 어린이회(초등3~6학년)	뛰어봤자 주인공 손바닥!	7/27(금)~29(일)	광명선원	본원, 광명 연합수련회
	• 학생회	몰락 놓고 푹 쉬자 – 얘들아 놀자!	7/20(금)~22(일)	통영지원	
	• 청년회	마음	7/6(금)~8(일)	통영지원	
광명선원	• 어린이회(초등3~6학년)	뛰어봤자 주인공 손바닥!	7/27(금)~29(일)	광명선원	본원, 광명 연합수련회
	• 학생회	바다로 떠나는 힐링캠프	8/2(목)~4(토)	통영지원	
	• 청년회	소확행(소소함으로 확실한 행복한 여행)	7/27(금)~29(일)	해남일대	광명, 청주 연합수련회
	• 탑주 가족	가족의 인연과 함께하는 인연의 도리	8/18(토)~19(일)	한마음 광명선원 도량	선착순 50명 미만
제주지원	• 어린이회	고.마.이.(고요한 마음으로 이루오리다)	6/23(토)~24(일)	제주캠핑장	
	• 청년회	일체 만물이 우리 스승	7/28(토)~29(일)	제주지원, 제주도 내 펜션	
부산지원	• 어린이회(초등학생)	우리는 보물이다	7/27(금)~29(일)	부산지원	
	• 학생회(중 · 고등학생)	우리는 어디서나 빛나는 보물이다	8/3(금)~5(일)	서울	
	• 청년회 (20세 ~ 직장인 미혼남녀)	마음의 숨	7/7(토)~8(일)	지리산 일대	
광주지원	• 어린이회(7세~초등 6학년)	넓고 깊은 한마음의 바다로	7/21(토)~22(일)	전남 무안 일대	
	• 학생회, 청년회 연합수련회 (중 · 고등학생, 청년)	하나되기	7/28(토)~30(월)	경기도 일대	광주, 목포 연합수련회
울산지원	• 어린이회	마음꽃 활짝	7/28(토)~29(일)	울산지원	
	• 학생회	우리는 한마음	7/21(토)~22(일)	울산지원	
대구지원	• 어린이회	무조건 OK	7/30(월)~31(화)	통영지원	통영, 중부경남, 진주, 대구 연합수련회
	• 학생회	우리는 하나	7/28(금)~29(토)	대구지원	
중부경남 지원	• 어린이 · 학생회 연합수련회	무조건 OK	7/30(월)~31(화)	통영지원	통영, 중부경남, 진주 대구 연합수련회
	• 청년회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고!	7/7(토)~8(일)	지리산 일대(비발디펜션)	
진주지원	• 어린이회(7세~초등 6학년)	무조건 OK	7/30(월)~31(화)	통영지원	통영, 중부경남, 진주, 대구 연합수련회
	• 청년회	마음의 숨	7/7(토)~8(일)	지리산 일대	
포항지원	• 어린이회	사랑해! 감사해! 모든 생명 나의 부처님!	7/21(토)~22(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예정)	
	• 청년회	몸도 마음도 둥굴게 둥굴게	7/14(토)~15(일)	평사리	
청주지원	• 어린이회	우리가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8/11(토)~12(일)	광명선원	
	• 학생회	우리는 한가족	6/8(금)~9(토)	광명선원	부모님과 함께하는 수련회
	• 청년회	소확행(소소함으로 확실한 행복한 여행)	7/27(금)~29(일)	전남 해남	광명, 청주 연합수련회
통영지원	• 어린이회(7세~초등 6학년)	무조건 OK	7/30(월)~31(화)	통영지원	통영, 중부경남, 진주, 대구 연합수련회
	• 학생회	몰락 놓고 푹쉬자 – 얘들아 놀자!	7/20(금)~22(일)	통영지원	본원과 연합
	• 청년회	마음	7/6(금)~8일(일)	통영지원	본원과 연합
목포지원	• 학생회, 청년회(중·고학생, 청년)	하나되기	7/28(금)~30(일)	경기도 일대	광주, 목포 연합수련회
문경지원	• 어린이 · 학생회	뛰어 봤자 주인공 손바닥!	7/27(금)~29(일)	광명선원	광명, 문경 연합수련회

● 수련회 일정은 2018년 7월 5일까지 확정된 내용을 실은 것이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의 일정이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